

연구보고 2010-09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 보고서

이 정 립
이 정 원
김 진 경
송 신 영
왕 영 희
이 예 진
이 숙
박 혜 원
나 종 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에 적합한 육아와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다 과학적이고 설명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육아정책의 데이터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육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출생부터 12년 동안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2008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고 1차년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2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였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종단적으로 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의 특징상, 1년에 한번의 조사만으로는 영아기에 이루어지는 급속한 발달을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변화하는 패널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일반 패널조사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영아의 발달 검사, 애착안정성, 기질 및 어머니의 성격 검사를, 일부 패널에 대해 심층적으로 실시한 연구내용을 수록하여, ‘한국아동패널’의 일반 조사와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의 심층조사에 참여해 주신 패널 가족 및 연구에 도움을 주신 협력 연구진들과 면접원들, 그리고 패널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가 아동 발달과 육아지원에 관한 종단연구의 모범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며, 연구의 결과들이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수립에 활발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요 약

1. 제1차 심층조사 개요 및 기초분석

□ 제1차 심층조사 개요

-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일반패널 조사만으로는 모든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영아기의 발달을 포착하기에 불충분함. 이에 1차년도인 한국아동패널2008과 2차년도인 한국아동패널 2009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패널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거점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들을 협력연구진으로 위촉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점대학의 전문가 또는 대학원생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심층조사의 자료를 수집함.
- 아동들에게는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 검사 제2판(K-BSID II)을 실시하여 발달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Q-set으로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였고, ECBQ를 통해 기질 자료를 수집함. 어머니들에게는 성격평가질문지를 실시하여 성격 변인을 측정함.

□ 제1차 심층조사 방법

- 심층조사 대상 선정은 2차년도 가구방문조사를 완료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9월 중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심층조사 신청을 받아 220명을 선정함.
- 심층조사 대상 수 대비 협력연구진에 해당하는 거점대학 수를 확정된 후 해당 권역 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함. 이들 전문가의 업무는 심층조사 변인 및 도구자문, 해당 학과/센터 내에서의 심층조사 수행 총괄, 해당 학과/센터 내에서의 검사자 확정 및 관리 등임.
-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K-BSID II 검사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함. 애착 Q-set, ECBQ, PAI 검사 실시 방법, 검사 보고서 작성 및 전반적인 심층조사 운영 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아동의 발달(K-BSID II)과 애착 안정성(Q-Set)은 권역별 지정 검사장소를 아동

과 주양육자가 방문하여 검사실에서 실시됨. 기질(ECBQ)과 어머니 성격검사 (PAI)는 유치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제1차 심층조사 현황

- 총 214명의 패널이 심층조사를 신청하였으며, 표본 할당에 미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6명을 추가 모집함.
- 200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206명이 심층조사를 완료함. 검사자는 4종의 검사를 완료 후 미리 제공된 코딩 시트에 자료를 입력하여 전송함.

□ 기초분석

- 표본 특성: 제1차 심층 조사 시점의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중 일부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가 수집된 2차년도 일반 조사의 자료를 사용함.
- 아동특성
 - 심층 조사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9%, 여아가 48.1%임.
 - 아동의 월령 범위는 14~20개월, 평균은 17.19개월임.
 - 외동이는 56.2%, 첫째 11.3%, 둘째 25.6%, 셋째이상은 6.9%임.
 - 체중은 평균 10.15kg (최소 7.0kg에서 최대 13.5kg), 신장은 평균 77.38cm(최소 67cm에서 90cm)임.
 - 심층 조사대상 아동은, 결핵 73.8%, B형 간염 70.9%,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69.4%, 소아마비 97.1%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바대로 예방 접종함.
 - 심층 조사대상 아동이 사고 및 중독에 의한 치료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0.2%,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9.8%임.
- 부모특성
 - 부모의 평균연령은 어머니 만 33.0세, 아버지 만 32.2세임.
 - 초혼이 99.5%이었고 평균 결혼기간은 4.5년임.
 - 어머니의 99.5%, 아버지의 100.0%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2.9%, 아버지의 3.7%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함.
 - 심층 조사대상 부모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졸인 어머니가 44.9%, 아버지가 47.0%로 가장 많았고, 초대졸 이상은 어머니 84.9%, 아버지 80.2%임.

- 어머니의 50.2%, 아버지의 42.8%가 종교가 있으며,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순임.
- 어머니의 4.9%, 아버지의 6.4%가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타지역 근무로 인한 비동거가 어머니의 85.7%, 아버지의 90.9%로 대다수임.
- 아버지의 1.0%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
- 어머니의 35.0%가 비음주자, 28.6%가 평소에 술을 마시나 임신과 모유수유 등의 이유로 현재 마시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36.5%는 마신다고 응답함. 아버지의 75.7%가 음주를 함. 흡연자는 어머니의 1.0%, 아버지의 44.8%임.
- 어머니의 34.5%와 아버지의 98.5%가 취업 중이며, 아버지의 0.5%가 학업 중임.
- 휴직 중이던 어머니의 77.1%가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였고, 8.6%는 한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였으며, 14.3%는 휴직 중임.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가구 구성원 수가 3명이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음.
 -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이 88.3%, 3세대 가족이 8.9%임.
 - 심층조사 대상의 5.8%가 자녀를 다른 가구에 위탁 중이라고 응답함.
 - 가구 월 소득과 지출규모 모두 201만원~300만원이 가장 많음. 국민기초생활수급 해당 가구는 없었으며, 차상위계층 해당 가구는 2.9%임.
 -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76.2%, 연립주택(빌라포함)이 12.1%, 다세대주택(다가구 주택)이 6.8%이었고, 소유 형태는 자가 41.3%, 전세 47.6%로 나타남.
- 지역사회 특성
 - 일반아파트지역이 70.0%, 일반주택지역이 24.1%임.

2. 제1차 심층조사 연구논문

□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의 인지발달 간 구조모형 분석

-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특

성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밝히고자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짐.
- 어머니의 불안은 영아의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짐.
- 어머니의 우울은 영아의 인지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불안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애착유형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

- 어머니와의 애착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에 대해 살펴본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안정애착유형 영아의 인지발달 지수는 불안정 애착유형의 영아의 인지발달 지수보다 높았음.
 -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애착유형의 효과는 유의하여 안정애착을 지닌 영아의 인지발달 지수가 불안정애착의 영아의 수행보다 높았음.
 - 2세 미만의 어린 영아기부터 부모의 양육영향에 의한 인지수행 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함.

□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영아의 애착안정성

- 영아기 애착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후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 지식, 양육 스타일 및 양육스트레스가 만1세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생후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만1세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후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에게 더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함.

- 이 시기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에 대하여 알고 적절한 양육행동을 하도록 돕고 자녀 양육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함.

□ 한국과 미국 영아의 기질 구조 비교: ECBQ 타당화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패널 1차 심층조사 대상이었던 17개월경의 한국 영아들의 기질 구조를 미국 영아들과 비교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질 측정도구인 ECBQ의 신뢰도는 미국의 연구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신뢰도 점수가 낮은 분포를 보이긴 하였지만 적절한 신뢰도 점수를 나타냄. 적절하지 않은 신뢰도 점수를 보인 충동성과 주의 전환 영역의 두 개 척도는 미국의 연구에서도 신뢰도 점수가 가장 낮았음.
 -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미국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부정적 정서, 외향성, 주의성의 3가지 요인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단, 본 연구에서는 지각 민감성 척도가 자기통제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ECBQ 기질 척도는 나라마다 성차를 나타내는 하위 척도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영아의 기질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기질특성이 애착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 영아의 애착 관련 행동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기질의 세 가지 하위영역이 다르게 밝혀짐.
 - 애착의 순응성에 기질의 외향성은 부적방향으로, 주의통제는 정적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애착의 까다로움/예민함에 대해 기질 중 주의통제력이 부적 영향을 미침.
 - 애착의 신체접촉의 즐거움 하위영역에 대해 기질 중 외향성이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 기질의 18가지 세부요인 중 애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애착의 하위영역 중 순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기질의 세부요인은 억제 통제력, 접근 기대, 사회성으로 나타남.
 - 애착의 하위영역 중 안전기지에는 기질의 세부요인 중 주의 전환만이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침.

- 애착의 하위영역 중 까다로움/예민함 특성에 대해 기질의 세부요인 중 억제 통제력, 낮은 기쁨, 분노/좌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애착의 하위영역 중 신체접촉의 즐거움에 대해 기질의 세부요인 중 안김, 수줍음, 자극의 통제, 낮은 기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애착의 하위영역 중 감정공유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세부요인은 수줍음, 지각 민감성으로 밝혀짐.

□ 인생초기 경험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임신기 및 출산 시 변인을 중심으로

- 임신기 및 출산 초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영아기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요인들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계획된 임신일수록 어머니가 임신을 알았을 때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짐.
 - 자연분만 여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와 아기의 접촉여부와 상관을 보임.
 - 임신의 계획여부와 출산 직후 아기의 접촉여부는 어머니들의 출산 직후 기분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들이 출산 직후에 긍정적인 기분을 가질수록 영아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짐.
 - 계획임신 여부, 분만방법, 출산 직후 아기와의 접촉여부 및 모유수유 여부에 따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차 례

1부. 제1차 심층조사 개요 및 기초분석

I. 제1차 심층조사	3
1. 심층조사 개요	3
2. 제1차 심층조사 방법	13
3. 제1차 심층조사 현황	17
4. 보고서 구성	21
II. 기초분석	22
1. 표본 특성	22
2. 일반적 특성	23
참 고 문 헌	51

2부. 제1차 심층조사 연구논문

I.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의 인지발달 간 구조모형 분석	55
1. 서론	55
2. 연구방법	57
3. 연구결과	60
4. 논의 및 결론	64

II. 애착유형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	69
1. 서론	69
2. 연구방법	72
3. 연구결과	75
4. 논의 및 결론	76
III.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영아의 애착안정성	84
1. 서론	84
2. 연구방법	88
3. 연구결과	95
4. 논의 및 결론	101
IV. 한국과 미국 영아의 기질 구조 비교 : ECBQ 타당화를 중심으로	108
1. 서론	108
2. 연구방법	112
3. 연구결과	114
4. 논의 및 결론	118
V. 영아의 기질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123
1. 서론	123
2. 연구방법	126
3. 연구결과	133
4. 논의 및 결론	136
VI. 인생초기 경험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임신기 및 출산 시 변인을 중심으로	143
1. 서론	143
2. 연구 방법	145
3. 연구 결과	149
4. 논의 및 결론	159

3부. 부록

부록 1. 심층조사 대상자 신청화면	167
부록 2. 부모 안내문(심층조사)	168
부록 3.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	170

표 차례

1부. 제1차 심층조사 개요 및 기초분석

〈표 I-1- 1〉 발달지수의 범주 발달지수의 범주와 분포	6
〈표 I-1- 2〉 연령집단별 세 가지 요인점수의 정의	6
〈표 I-1- 3〉 애착 Q-set의 하위영역과 그 정의	9
〈표 I-1- 4〉 ECBQ 하위영역별 문항번호 및 문항수	11
〈표 I-1- 5〉 PAI 하위 척도 구성	12
〈표 I-2- 1〉 제1차 심층조사 지역별 표본 배분	14
〈표 I-2- 2〉 제1차 심층조사 전문가 네트워크	15
〈표 I-2- 3〉 제1차 심층조사 검사자 교육	16
〈표 I-2- 4〉 제1차 심층조사 도구 및 자료수집 방법	16
〈표 I-3- 1〉 제1차 심층조사 지역별 배정 현황	18
〈표 I-3- 2〉 제1차 심층조사 월별 진행 현황	19
〈표 I-3- 3〉 제1차 심층조사 대상 권역별 분포	20
〈표 II-1-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22
〈표 II-1-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23
〈표 II-2- 1〉 아동의 성별	24
〈표 II-2- 2〉 아동의 월령	24
〈표 II-2- 3〉 아동의 출생순위	25
〈표 II-2- 4〉 아동의 신체적 특성	26
〈표 II-2- 5〉 예방접종 횟수(12개월 기준)	27
〈표 II-2- 6〉 입원/치료 경험	28
〈표 II-2- 7〉 부모 만 연령	29
〈표 II-2- 8〉 어머니 결혼 상태	29
〈표 II-2- 9〉 어머니 결혼기간	30
〈표 II-2-10〉 부모 국적 및 귀화 여부	30
〈표 II-2-11〉 부모의 학력	31

〈표 II-2-12〉 부모 종교	32
〈표 II-2-13〉 부모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	32
〈표 II-2-14〉 부모의 장애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여부	33
〈표 II-2-15〉 부모의 음주 여부	34
〈표 II-2-16〉 부모의 음주 빈도	34
〈표 II-2-17〉 부모의 음주 시 주량	35
〈표 II-2-18〉 부모의 흡연 여부	36
〈표 II-2-19〉 부모의 니코틴 중독 정도	36
〈표 II-2-20〉 부모 취업상태	37
〈표 II-2-21〉 부모 직업(대분류 기준)	38
〈표 II-2-22〉 부모 종사상 지위	39
〈표 II-2-23〉 부모 주당 총 근로시간	39
〈표 II-2-24〉 어머니 취업 상태	40
〈표 II-2-25〉 가구 구성원 수	40
〈표 II-2-26〉 가구 구성	41
〈표 II-2-27〉 자녀 위탁여부	41
〈표 II-2-28〉 위탁기간	42
〈표 II-2-29〉 가구 소득	43
〈표 II-2-30〉 가구 지출	44
〈표 II-2-31〉 부동산 총액	45
〈표 II-2-32〉 금융자산 총액	46
〈표 II-2-33〉 부채	47
〈표 II-2-34〉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47
〈표 II-2-35〉 주택 유형	48
〈표 II-2-36〉 주택 소유 형태	49
〈표 II-2-37〉 거주 주택 외 주택 소유 여부	49
〈표 II-2-38〉 거주 지역 유형	50

2부. 제1차 심층조사 연구논문

〈표 I-2-1〉 PAI 하위 척도 구성	59
〈표 I-3-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60

〈표 I-3- 2〉 영아의 성을 통제한 측정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관계	62
〈표 I-3- 3〉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63
〈표 I-3- 4〉 영아 인지발달에 대한 이론 모형의 적합도 지수	64
〈표 II-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2
〈표 II-2- 2〉 애착 Q-set 하위영역별 구성영역 정의 및 문항 수	74
〈표 II-3-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발달지수의 차이(K-BSID-II)	75
〈표 II-3- 2〉 애착의 유형에 따른 인지발달 지수의 차이(소득 통제 후)	76
〈표 III-2-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89
〈표 III-2- 2〉 양육지식 문항 구성	91
〈표 III-2- 3〉 양육스타일 척도 구성	92
〈표 III-2- 4〉 양육 스트레스 척도 구성	93
〈표 III-3-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95
〈표 III-3-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96
〈표 III-3- 3〉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100
〈표 IV-2- 1〉 연구 대상 영아의 일반적 특성	112
〈표 IV-2- 2〉 ECBQ의 18개 하위 척도	113
〈표 IV-3- 1〉 ECBQ 하위영역 신뢰도	115
〈표 IV-3- 2〉 ECBQ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206)	116
〈표 IV-3- 3〉 성별에 따른 ECBQ 하위척도 평균점수 차이 t 검증	118
〈표 V-2-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126
〈표 V-2- 2〉 표본의 부모 특성	127
〈표 V-2- 3〉 애착 Q-set 하위영역	129
〈표 V-2- 4〉 기질(ECBQ) 하위영역 및 세부요인	130
〈표 V-2- 5〉 제1차 심층조사 표본 배분 및 실제 표집 수	131
〈표 V-3- 1〉 영아의 외향성, 부정적정서, 주의통제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	133
〈표 V-3- 2〉 기질 세부요인이 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134
〈표 V-3- 3〉 기질 세부요인이 안전기지에 미치는 영향	135
〈표 V-3- 4〉 기질 세부요인이 까다로움/예민함에 미치는 영향	135
〈표 V-3- 5〉 기질 세부요인이 신체접촉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136
〈표 V-3- 6〉 기질 세부요인이 감정공유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136
〈표 VI-3- 1〉 심층조사대상 아동의 심층조사 시 월령	150
〈표 VI-3- 2〉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심층조사 대 일반조사)	150

〈표 VI-3- 3〉 초기경험의 특성(심층조사 대 일반조사)	152
〈표 VI-3- 4〉 초기경험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간 상관관계	155
〈표 VI-3- 5〉 계획임신 여부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156
〈표 VI-3- 6〉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157
〈표 VI-3- 7〉 분만방법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157
〈표 VI-3- 8〉 출산 직후 아기와의 접촉 여부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158
〈표 VI-3- 9〉 출산 직후 산모의 기분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159
〈표 VI-3-10〉 모유수유 여부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159

그림 차례

1부. 제1차 심층조사 개요 및 기초분석

[그림 I-1-1] 한국아동패널 조사 체계도	4
[그림 I-2-1] 심층조사 진행사항	17
[그림 I-2-3] 제1차 심층조사 대상 권역별 분포	20

2부. 제1차 심층조사 연구논문

[그림 I-1-1] 영아발달에 대한 이론 모형	57
[그림 I-3-1] 측정 모형의 검증	63
[그림 I-3-2] 영아 인지발달에 대한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	64
[그림 III-1-1]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대한 가설적 경로모형	87
[그림 III-3-1]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97
[그림 III-3-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적합도	98
[그림 III-3-3] 수정모형의 경로계수와 적합도	99

1부

제1차 심층조사 개요 및 기초분석

I. 제1차 심층조사

1. 심층조사 개요

가. 심층조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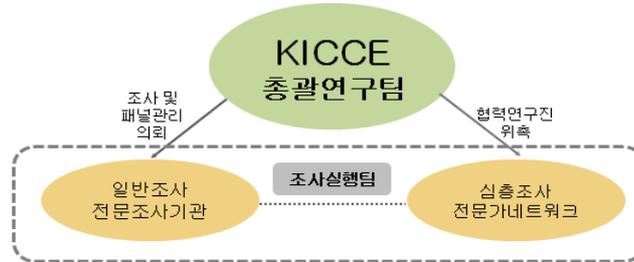
영아기는 신체 및 운동, 언어, 인지, 사회·정서 등 모든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일반적인 패널 조사로 아동의 발달결과를 포착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 이에 동기간동안 아동의 발달에 대한 조사를 심층적으로 한 번 더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패널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영아기는 자아를 형성하고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와의 관계 형성과 아동의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민감기에 해당하는 변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는 대규모 조사의 특성상 일반조사기관의 조사원을 활용하므로, 조사 설계 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질문지 중심의 조사도구를 선정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경우 조사의 편의성 및 자료의 객관성은 높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다. 이에 전체 패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학 전공 대학원 재학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을 활용한 심층조사 수행을 통해 아동의 발달 상태 및 주변 인적환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나. 심층조사의 운영 체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공자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심층조사의 특성상 일반조사와는 차별되게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거점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들을 협력연구진으로 위촉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점대학의 전문가 또는 대학원생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였다(그림 I-1-1 참조).



[그림 1-1-1] 한국아동패널 조사 체계도

다. 심층조사 내용

1) 발달변인

가) 변인 선정 이유

영유아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로, 무엇보다 영아는 선천적인 지각능력과 기억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Snow & McGaha, 2003). 국내에서도 특수교육법의 재정으로 장애아를 조기진단 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영유아의 잠재가능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기교육과 진단에 대한 요구는 특수아동 뿐 아니라 일반 아동에게도 보편화되고 있다(박혜원·신민선, 2006). 즉,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패널의 특성상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에 대한 정보를 단일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표준화된 발달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영유아의 발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연령별 발달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표준화된 발달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선별검사보다는 진단평가 검사를 선정하여 검사결과상 발달지수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나)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한국아동패널의 심층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아의 각 발

달영역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 검사 제2판 (Korean-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K-BSID II)을 사용하였다. 2004년 조복희와 박혜원은 예비연구(박혜원·조복희·최호정, 2003)를 통해 개발된 K-BSID를 사용하여 정상 분만한 1,700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화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 2, 3, 4, 5, 6, 8, 10, 12, 15, 18, 21, 24, 27, 30, 36, 42개월의 전체 17개 연령집단의 남녀 각 50명을 대상으로 규준을 마련하였다.

K-BSID II는 다수의 발달검사 중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검사로서, 한국형으로도 최근 표준화되어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공하는 도구이다. 특히 K-BSID II의 경우 잠재적인 위험군 집단을 발견해주는 선별적인 기능 이외에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2차 자료로서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적합한 도구라고 판단되었다. 즉, 검사결과 상 발달지수를 제공함으로써 2차 자료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도구 특성

K-BSID II는 1개월에서 42개월 영유아들의 발달과 수행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개인검사로, 이 검사의 목적은 발달수준을 진단하는 것이다. K-BSID II의 세 가지 하위척도는 인지척도, 동작척도, 행동평정척도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척도는 179문항, 동작척도는 114문항, 행동평정척도는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척도와 동작척도는 영아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개인·사회성 발달, 대·소근육 운동발달 수준을 평가하며, 행동평정척도는 검사과정 동안 영유아의 행동을 평가하여 인지척도와 동작척도의 해석을 용이하게 한다(박혜원·조복희, 2006).

K-BSID II의 표준화연구에서 인지척도의 재검사간 일치도는 $r=.91$, 동작척도의 일치도는 $r=.99$ 에 해당되었다. K-BSID II와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와의 상관은 $r=.65$ (인지척도), $r=.52$ (동작척도)로, 공준타당도도 입증되었다(조복희·박혜원, 2004).

라) 도구의 점수화

(1) 인지척도 및 동작척도의 해석

K-BSID II 점수를 해석할 때 인지발달지수 점수와 동작발달지수 점수의 신뢰구간을 산정해야 한다. 인지발달지수와 동작발달지수 각각의 점수 분포는 100점이 평균

이며 표준편차는 15이다. 표준편차와 백분위에 따라 표준점수를 해석하는데, 표준화 표본 아동들의 표준점수 분포는 이론적 정규분포에 기초한 수치와 근접하다(표 I-1-1 참조).

〈표 I-1-1〉 발달지수의 범주 발달지수의 범주와 분포

단위: %

발달지수 점수범위	범주	이론적 정상 분포	실제 분포	
			인지척도	동작척도
115이상	우수	16.0	14.8	16.5
85-114	정상	68.0	72.6	68.7
70-84	경도지체	13.5	11.1	12.5
69이하	중도지체	2.5	1.5	2.3

(2) 행동평정척도의 해석

① 총점 해석

총점은 정상범주(연령집단 내 백분위 26이상), 비정상 우려범주(연령집단 내 백분위 11-25), 비정상(연령집단 내 백분위 10이하) 세 가지 진단 범주로 구분된다. 비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점수는 하나 이상의 중요 영역에서 행동이 지체되었거나 손상되었음을 시사하며, 정상범주 점수는 또래 연령 영유아의 평균점수를 의미한다.

② 요인점수 해석

요인점수는 아동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1-5개월 연령 집단에는 2가지 요인점수가 있고, 6-12개월 및 13-42개월 사이의 연령 집단에는 3가지 요인점수가 있다(표 I-1-2 참조).

〈표 I-1-2〉 연령집단별 세 가지 요인점수의 정의

하위요인	해당연령	정의
주의/각성	1-5개월	영아의 검사 시 검사자 및 검사상태에 대한 각성정도와 검사도구와 자극에 대한 관심과 태도
동작수준	1-42개월	미세운동과 대근육 운동의 특성
과제지향성	6-42개월	새로운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탐색행동 및 조작
정서조절	6-42개월	활동수준, 좌절에 대한 인내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같은 기질

(3) 발달연령

인지 및 동작척도 상의 원점수에 해당되는 발달연령을 참조하여 해석한다. 모든 원점수의 발달연령을 추정하는 절차는 먼저 인접하는 두 연령 간 중앙값 간의 차이를 계산한 후, 그 차이를 반으로 나누어 낮은 절반의 점수는 낮은 연령 간격의 중앙값에 더했으며, 높은 절반의 점수는 높은 연령 간격의 중앙값에서 감한다. 간격이 홀수였을 경우 중간에 있는 원점수는 일관적으로 낮은 연령간격에 배치한다. 한국아동패널의 심층조사에서도 베일리검사의 해설표를 참고하여 해당 발달연령에 할당된 원점수 범위를 산출하였다.

2) 애착

가) 변인 선정 이유

생애 초기인 영아기에는 다양한 발달영역이 활발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애착은 영아기에 발달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애착이란 인간이 특정한 타인에게 갖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며, 영아기에는 영아와 양육자(주로 어머니) 간에 형성이 된다. 이와 같은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유대감은 생존을 위해 기능하므로(Bowlby, 1988)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후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의 기본 기저가 되며, 다양한 발달적 현상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애착연구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편적인 적응지표로서 애착을 연구하고 있다(정옥분·정순화·황현주, 2009). 영아기 애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패널연구의 특성상 일반조사에서는 애착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일반조사에서는 애착의 측정이 제외되었고, 심층조사에서 애착을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한국아동패널의 심층조사에서는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애착 Q-set(Waters, 1987)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애착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어온 낯선 상황실험은 실험실이라는 인위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제약과 더불어 애착을 질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인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영·박경자·나유미, 1997). 본 심층조사에서는 낯선 상황실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하는 Q-set을 애착 측정도구로 선정하였다. 낯선 상황실험과 달리 Q-set는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대한 질적 분류보다는 양적인 개인차를 알고자 하는 상황에 주로 사용되므로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도구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되었다.

다) 도구 특성

본 심층조사에서는 Waters와 Deane(1985)에 의해 개발되었고 Waters(1987)에 의해 개정된 Q-set를 이영·박경자·나유미(1997)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변안한 한국판 애착 Q-set를 사용하였다. Q-set는 가정이나 그 밖의 일상적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의 성격, 태도, 또는 행동을 묘사하는 문항이 적힌 9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드의 항목에 대해 1점부터 9점까지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카드의 분류방법은 먼저, 90개의 각 카드와 영아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많이 일치하는', '보통 일치하는', '일치하지 않는' 수준으로 크게 세 묶음을 나누고, 다시 세 묶음 중 한 묶음만을 놓고 같은 방법으로 세 묶음으로 나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모두 9개의 수준으로 분류하게 된다. 즉 90장의 카드 중 영아의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문항의 카드는 9점, 가장 일치하지 않는 문항의 카드는 1점이 되며, 각 점수마다 모두 10장의 카드가 놓이게 된다. 따라서 영아는 각 항목별로 1~9점의 범위에서 점수를 받게 된다.

Waters와 Deane(1985)이 보고한 Q-set의 관찰자 간 일치도는 .75~.95였고, 국내 연구에서는 관찰자와 어머니 간 평균 일치도는 .73(이정희, 1994)과 .75(이영·신은주·나종혜, 1994)였다.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 산출된 12개월 영아용 안정성 준거 점수 및 36개월 영아용 안정성 준거점수와 미국의 전문가에 의해 산출된 Waters(1987)의 안정성 준거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90과 .88이었다. 국내 12개월 영아용과 36개월 영아용 안정성 준거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89였다(이영·박경자·나유미, 1997).

라) 도구의 점수화

애착 안정성 점수는 각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도구의 준거점수와 연구 대상 영아가 얻은 점수 간의 상관계수이다.

애착 Q-set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애착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애착 Q-set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는 Pederson과 Moran(1995)이 애착 Q-set 분류에서 영아의 애착 행동을 아래 <표 I-1-3>과 같이 5개 하위 영역으로 범주화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90개 항목에 대해 관찰자가 배정한 원점수를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본 심층조사에서는 각 패널아동의 가정에 보내는 검사 결과 보고서의 애착에 관한 보고 시에도 사용하였다.

애착 Q-set의 각 항목 점수는 애착 Q-set이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항목을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어 이 점수들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볼 수도 있고, 집단 간의 차이를 항목별 차의 유의도 검증으로 비교할 수도 있다.

〈표 1-1-3〉 애착 Q-set의 하위영역과 그 정의

하위영역	정의
순응성(compliance)	양육자의 요구나 명령에 순종
안전기지(secure base)	양육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까다로움/예민함(fussy/difficult)	아동의 행동이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움
신체적 접촉을 좋아함 (enjoys physical contact)	양육자가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을 좋아함
정서적 공유(affective sharing)	아동의 느낌과 행동을 양육자와 함께 공유함

출처: Pederson과 Moran(1995)

3) 기질

가) 변인 선정 이유

영유아의 기질은 개인의 발달에서 환경과의 적합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특히 영아기는 기질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영아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 발달 경로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여 기질을 심층조사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나)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최근 기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Rothbart(2006)는 새로운 기질 척도를 고안하였는데, 발달 단계별로 영아기(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 유아기(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 아동기(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 CBQ), 성인기(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 ATQ)에 걸친 기질 척도를 개발하였다.

상기 도구 중 IBQ 또는 IBQ-R은 3~12개월 영아에게 사용가능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고 ECBQ의 경우는 18~36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이때 두 도구 사이에 약 6개월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Rothbart(2006)는 13~18개월 영아의 경우는 ECBQ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심층조사의 대상은 2008년 4~7월에 출생한 아동으로 심층조

사가 이루어지는 2009년 10월경에는 최소한 12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ECBQ가 사용되었다.

기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ECBQ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질 척도라는 점 외에도 동일 저자에 의한 척도가 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까지 존재하므로 추후 조사대상자가 아동기에 이르렀을 때 실시할 심층조사 결과와의 연계성까지 볼 수 있다는 이점을 고려하였다.

다) 도구 특성

ECBQ는 Putnam, Garstein 및 Rothbart(2006)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질 도구로서 18개의 척도로 구성된 20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8개의 척도는 두려움(Fear), 불편감(Discomfort), 활동성(Motor Activation), 슬픔(Sadness), 분노 좌절(Frustration), 부끄러움(Shyness), 반응진정성(Soothability),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억제 통제력(Inhibitory Control), 주의전환(Attentional Shifting), 밀착성(Cuddliness), 낮은 기쁨(Low-intensity Pleasure), 주의 집중(Attentional Focusing), 접근 기대(Positive Anticipation), 활동수준(Activity Level/Energy), 충동성(Impulsivity), 사회성(Sociability), 강한 기쁨(High-intensity Pleasure)이다. ECBQ를 이용하여 진행된 국내 연구로는 김민화·곽금주·성현란·심희옥·장유경(2003)의 연구가 있으며 황윤세(2009)에 의해 ECBQ 타당화 연구가 수행되었다.

라) 도구의 점수화

ECBQ 점수는 18개 영역별 평균점수를 사용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음(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에 걸친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지난 2주간의 관찰을 바탕으로 평정하는데 만약 주어진 문항에 대해 영유아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해당없음(NA)'으로 표기하고 점수계산에서는 제외한다.

척도의 구성은 위의 <표 I-1-4>와 같으며, SPSS 프로그램에서 각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총점이나 평균값을 이용하여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과 역채점 문항은 <표 I-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심층조사 수행 후 부모님들에게 기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심층조사 영아 대상 전체의 기질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점수를 이용하여 표준 점수 T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표 1-1-4〉 ECBQ 하위영역별 문항번호 및 문항수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두려움	6, 38, 39, 62, 97, 98, 99, 100, 104, 176, 177 [*]	11
불편감	8, 9, 33, 55, 56, 94, 105, 152, 153, 180	10
활동성	7, 36, 71, 72, 73, 108, 128, 129, 182, 194, 195	11
슬픔	20, 59, 88, 89 [*] , 114, 117, 118, 137, 145, 151, 185, 201	12
분노 좌절	1, 2, 19, 68, 86, 87 [*] , 119, 134, 135, 136, 171, 184	12
부끄러움	3 [*] , 4, 5, 52, 53, 54, 77, 78, 79 [*] , 148, 149, 150 [*]	12
반응진정성	10, 46, 47 [*] , 48 [*] , 115, 116 [*] , 186 [*] , 187, 188	9
지각 민감성	34, 35, 58, 96, 106, 107, 154, 155, 181, 183, 138, 139	12
억제 통제력	26 [*] , 27 [*] , 28 [*] , 111, 112, 113 [*] , 142 [*] , 143 [*] , 144, 173, 174, 175	12
주의전환	43, 51, 60, 61 [*] , 93, 95, 120, 121, 157, 158 [*] , 179, 189	12
밀착성	14, 15 [*] , 16 [*] , 17 [*] , 18, 80 [*] , 81 [*] , 103, 159 [*] , 160, 161, 162	12
낮은 기쁨	12, 29, 30, 31, 32, 67, 146, 147, 163, 170, 193	11
주의집중	49 [*] , 50, 90 [*] , 91, 92 [*] , 126 [*] , 127, 167 [*] , 168, 169 [*] , 196 [*] , 197 [*]	12
접근 기대	37, 65, 66, 130, 131, 132 [*] , 133, 164, 165, 166 [*] , 198	11
활동수준	41 [*] , 42, 57, 69, 70 [*] , 101, 102 [*] , 109, 110 [*] , 122, 123, 156	12
충동성	23 [*] , 24, 25 [*] , 63, 64, 82 [*] , 83, 140, 141 [*] , 178	10
사회성	21, 22, 40, 84, 85, 172, 199, 200	8
강한 기쁨	11, 13, 44, 45 [*] , 74, 75, 76, 124 [*] , 125, 190, 191, 192	12

주: *는 역채점 문항임

4) 어머니 특성

가) 변인 선정 이유

영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이 반영되며, 어머니는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주양육자의 특성이라 여겨지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검사 내용이 심층조사에 포함되었다.

심층조사의 변인들 대부분이 아동의 발달적 측면을 중심으로 선정되었기에 영아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요인으로 어머니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어머니 특성 중 어머니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를 사용하였다. PAI는 Morey(1991)가 제작한 객관형 성격검사로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총 34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에서는 김영환·김지혜·오상우·임영란·홍상황(2001)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일반적인 성격검사들이 정신병리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고 정상인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는 다소 제한적인 반면 PAI는 두 장면에서 모두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임상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인 MMPI는 검사가 개발된 지 너무 오래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체계에 적합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임상적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반면 PAI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다) 도구 특성

PAI는 4개의 타당성척도(비일관성척도, 저빈도척도, 부정적 인상척도, 긍정적 인상척도), 11개의 임상척도(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관련 장애, 우울, 조증, 망상, 정신분열병,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공격성, 자살,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 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지배성, 온정성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I-1-5> 와 같다.

<표 I-1-5> PAI 하위 척도 구성

척도	하위척도
타당도 척도	비일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임상척도	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관련 장애, 우울, 조증, 망상, 정신분열병,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음주문제, 약물사용
치료고려척도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
대인관계척도	지배성, 온정성

PAI는 <표 I-1-5>의 하위척도에 따른 표준점수가 계산되며,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임상척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도구이다. 대부분의 다른 임상적인 진단 척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AI의 모든 임상척도의 경우도 평균점수 50점을 기준으

로 2표준편차(1SD=10)점수 이상이 되는 70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임상적인 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라) 도구의 점수화

문항의 응답 값은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응답번호는 **[1-2-3-4]**가 아닌 **[0-1-2-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부터 '약간 그렇다(1점)', '중간이다(2점)', '매우 그렇다(3점)'로 이루어져 있다. 지정된 웹사이트 (<http://www.kops.co.kr>)를 통해 원점수를 입력하면 웹상에서 자동적으로 표준점수로 환산되는 방식으로 점수화가 이루어지며, 각 척도별 표준점수가 웹사이트에 제시된다.

원점수 입력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응답지에 표기된 응답 값이 아니라 응답지를 떼어낸 후에 나타나는 이면 먹지의 값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먹지의 값은 역채점 문항에 대하여 이미 역코딩이 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채점 문항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후 척도구성 시 역채점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들을 합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계산 값에서의 오류발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SPSS상에서 척도 구성을 위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역채점 문항들에 대한 코딩 변경과정이 이미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제1차 심층조사 방법

가. 심층조사 대상 선정

심층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2차년도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한 패널 가구 중 200가구로 제한하고 중도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220명을 선정하였다. 제1차 심층조사는 1차년도 조사 완료와 상관없이 예비표본 2,562가구 중 2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표본 2,562가구 중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여 표본으로 구축된 가구는 2,078가구이나, 중단연구의 특성상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484가구 중 2차년도 조사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제1차 심층조사 대상 선정은 1차년도 최종표본 2,078가구가 아닌 예비표본 2,562가구 중 2차년도에 실시되는 3종의 질문지 응답을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가구를 권역별로 배정하는 심층조사 대상 표본의 수는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1차년도에 시행한 K-ASQ와 덴버 I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위험군으로 선별된 아동을 심층조사에 우선 참여시키고자 해당 가구에 심층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조사 대상 선정은 2차년도 가구방문조사 완료 가구만을 대상으로 9월 중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icce.re.kr/panel>)를 통해 심층조사 신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부록 1 참조), 이에 앞서 신청 대상자들에게 홈페이지 공지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신청 접수 일정을 공지하였다. 홈페이지에 각 권역별 조사 장소를 공지한 후 원하는 장소를 1, 2지망으로 나누어 신청하도록 하였다.

제1차 심층조사 수행을 위한 지역별 표본 배분은 다음 <표 I-2-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2-1> 제1차 심층조사 지역별 표본 배분

단위: 명

권역	시/도	1차년도 최종표본		제1차 심층조사 표본	
수도권	서울	331	993	32	95
	경기	605		58	
	인천	57		5	
충청/강원권	충남	103	240	10	23
	충북	63		6	
	대전	74		7	
	강원	31		31	
경북권	경북	95	240	9	23
	대구	145		14	
경남권	경남	116	348	11	34
	부산	132		13	
	울산	100		10	
전라권	전남	107	226	10	22
	전북	51		5	
	광주	68		7	
계		2,078		200	

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15개시도(제주도 제외) 중 심층조사 대상 수 대비 협력연구진에 해당하는 거점대

학 수를 확정된 후 해당 권역 내 전문가를 확정하였다. 제1차 심층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구성된 지역별 전문가는 다음의 <표 I-2-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네트워크 구성 전문가의 업무는 심층조사 변인 및 도구들에 관한 자문, 해당 학과/센터 내에서의 심층조사 수행 총괄, 해당 학과/센터 내에서의 검사자 확정 및 관리 등이었다.

<표 I-2-2> 제1차 심층조사 전문가 네트워크

권역	학교/학과	지역 전문가	비고
서울/경인권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이화여대 아동학과 인하대 소비자 아동학과 충신대 유아교육과	이경옥 박성연 이완정/양성은 허계형	
충청권	한남대 아동복지학과 호서대 유아교육과	나종혜 조성연	공동연구진
경북권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김춘경	
경남권	부산대 유아교육과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정계숙 박혜원	공동연구진
전라권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전북대 아동학과	이 숙 이영환	공동연구진

주: 강원도는 지역전문가가 지정되지 않음.

다. 심층조사 검사자 훈련

심층조사는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학 전공 대학원생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심층조사 주요 수행 검사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K-BSID II는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심층조사 검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워크숍을 참석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K-BSID II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는데 초급과정은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중급과정은 검사자간 신뢰도 측정 등 심층조사에 적합하도록 보다 특화시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초급과정 이후 각 학교별로 심층조사 월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하게 한 뒤 검사장면을 동영상 파일로 미리 준비해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 연구회」에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K-BSID II 이외에 애착 Q-set, ECBQ, PAI 검사 실시 방법, 검사 보고서 작성 및 전반적인 심층조사 운영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표 1-2-3〉 제1차 심층조사 검사자 교육

구분	일시	장소	비고
K-BSID II 초급 과정	2009. 8. 8(토)~9(일), 2009. 8. 22(토)	보육사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연구회 주관
검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2009. 9. 23(토)	용산역 KTX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아동패널 소개 • 조사원 역할 및 유의사항 • PAI, Q-set, ECBQ 교육 • K-BSID II 해석 및 보고서 작성 • 검사자간 신뢰도 측정 및 슈퍼비전

라. 심층조사 방법

1) 도구

제1차 심층조사에서는 K-BSID II, 애착 Q-set, ECBQ, PAI의 네 개 도구를 활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K-BSID II는 검사자 훈련을 거친 전문조사원들이 상주하는 권역별 지정 검사 장소로 아동과 주양육자(어머니)가 방문하여 검사실에서 실시하였다. 권역별 심층조사 대상 배정 시 그 수가 너무 적었던 강원권의 세 가구는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의 검사 장소 중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구방문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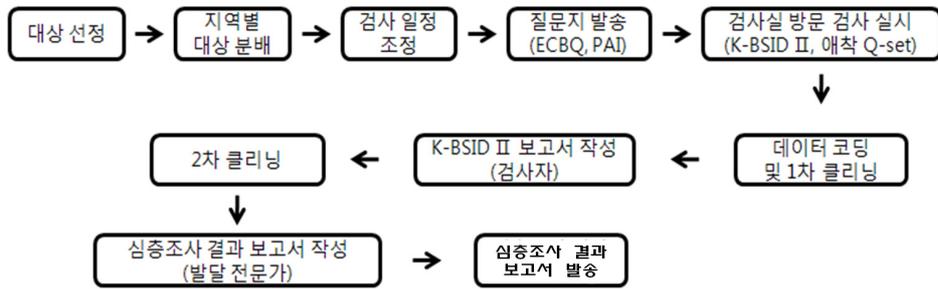
〈표 1-2-4〉 제1차 심층조사 도구 및 자료수집 방법

변인	도구	자료수집 방법	비고
발달 전반	K-BSID II	아동 검사	검사실에서 실시
애착	애착 Q-set	어머니 면접	검사실에서 실시
기질	ECBQ	자기보고식 설문	유치조사로 실시
어머니 성격특성	PAI	자기보고식 설문	유치조사로 실시

주: 애착과 기질에서 각 1명이 아버지에 의해 조사됨.

애착 Q-Set는 K-BSID II 검사 전후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CBQ와 PAI는 사전에 질문지를 각 심층조사 대상 가구에 발송한 후 검사 당일에 수거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심층조사 진행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I-2-1>과 같다.



[그림 I-2-1] 심층조사 진행사항

3. 제1차 심층조사 현황

가. 심층조사 대상 모집 결과

심층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한으로 인해 전체 패널의 10%만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검사 환경의 제약으로 조사 대상자가 검사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에 심층조사를 원하는 패널을 우선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신청자가 220명을 초과할 경우¹⁾ 지역별 표본에 기초하여 검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09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214명의 패널이 심층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220명에 미달하여 지역별 표본에 미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6명을 추가 모집하였다(표 I-3-1 참조).

이에 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신청자가 집중되어 기 선정한 대학에서 조사

1) 당초 계획되었던 조사대상의 10%(200명)에 조사 진행 중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을 산정함.

기간 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부설센터를 조사기관으로 추가하였다.

〈표 1-3-1〉 제1차 심층조사 지역별 배정 현황

단위: 명

권역	지역	대학	최종 패널 수	선별 패널 수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총신대	27	4
		이화여대	60	9
		덕성여대	26	9
		인하대	20	4
		전남대 부설 센터(일산)	12	2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한남대	7	1
		호서대	7	1
경북권	대구, 경북	경북대	17	2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부산대	12	2
		울산대	12	0
전라권	광주, 전남 전북	전남대	14	1
		전북대	6	1
계			220	36

주: 선별된 패널은 1차년도에 시행한 K-ASQ와 덴버 II 검사에서 발달위험군으로 판별된 아동을 의미함.

한편 심층조사 대상에는 1차년도에 시행한 K-ASQ와 덴버 II 검사에서 발달위험군으로 판별된 아동 36명 포함되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표 1-3-1>과 같다.

나. 심층조사 진행

2009년 10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206건의 심층조사를 진행하여 전체 대상자 대비 93.6%를 완료하였다. 당초 탈락률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초과 선정하였으므로 목표(200건)를 달성하였다.

유치조사용 질문지 발송(ECBQ, PAI)과 검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심층조사원이 담당 패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질문지 발송을 위해 주소를 확인하였고 검사를 위한 방문 날짜를 약속하였다.

유치조사용 질문지 외에도 심층조사 시 유의사항에 관한 부모 안내문(부록2 참조)과 검사장소 방문을 위한 약도 및 검사자 연락처 등을 동봉하였다. 심층조사 참여

2) 대상자 일부는 신중플루를 우려한 조사 거절과 모의 둘째 출산 등으로 심층조사에 미참여함.

어머니는 우편으로 받은 질문지를 가정에서 작성한 후에 검사 당일 검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검사 장소에서 수행하는 조사는 애착 Q-set와 K-BSID II이며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동의 컨디션과 검사 당시 상황에 따라 검사 순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데이터 코딩 및 데이터 클리닝

각 학교 검사자는 4종의 조사를 마친 후 미리 정해진 코딩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매주 목요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단, PAI는 분석용 데이터 코딩 외에 T점수 산정 및 결과해석을 위한 채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PAI 채점은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http://www.kops.co.kr>; PAI 개발 연구소) 심리검사 채점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데이터 에디팅은 데이터를 송부 받는 즉시 확인하여 각 검사자와 연구진 간의 중복 확인을 거쳐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2) 각 권역별 심층조사 월별 실시 현황

각 권역별 심층조사 월별 실시 진행 현황은 아래의 <표 I-3-2>와 같다.

<표 I-3-2> 제1차 심층조사 월별 진행 현황

단위: 명, %

구분	서울·경인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전체	월별 누적진행률
10월	54	13	7	17	6	97	44.1
11월	71	0	9	4	8	92	85.9
12월	10	1	1	0	5	17	93.6
계	135	14	17	21	19	206	-
표본수	145	14	17	24	20	220	-
성공률	93.1	100.0	100.0	87.5	95.0	9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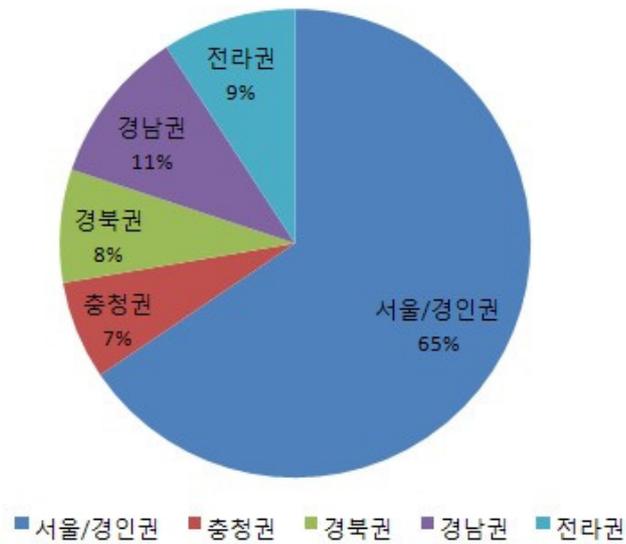
주: 심층조사 수행 장소 기준이며, 실제 패널 거주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최종 완료된 심층조사 대상의 지역별 분포는 아래의 <표 I-3-3> 및 <그림 I-2-3>과 같다.

〈표 1-3-3〉 제1차 심층조사 대상 권역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서울/ 경인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계
빈도(비율)	135(65.5)	14(6.8)	16(7.8)	22(10.7)	19(9.2)	206(100.0)



[그림 1-2-3] 제1차 심층조사 대상 권역별 분포

다. 부모 대상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심층조사에 참여한 패널 아동의 부모에게 심층조사의 결과를 알려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모 대상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는 연구진이 작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K-BSID II는 검사과정 동안의 아동의 태도를 측정하는 행동평정척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 해석에 있어 객관적인 검사 결과 외에도 검사 수행에 대한 질적 평가, 행동관찰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박혜원·조복희, 2006) 검사의 특성상, 검사를 수행한 검사자가 직접 결과를 해석하여 검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검사결과 보고서는 각 검사자가 송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

의 자문을 통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진들의 협의를 거쳐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체적인 보고서 양식(부록 3 참조)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양식을 중심으로 임상 및 발달전문가들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들이 심층조사 대상 아동들에 대한 개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임상 및 발달전문가들이 작성한 개별 검사결과 보고서의 경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들의 검토과정을 다시 한 번 거쳤다. 작성된 부모 대상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는 각 가정으로 우편을 통해 배송하였다.

4. 보고서 구성

한국아동패널 1차 심층조사의 보고서인 본서는 다음과 같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심층조사의 실시 방법과 현황을 기술하였고, 한국아동패널의 일반 조사 대상의 특성과 심층 조사대상의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심층조사에서 수집한 변인 - 아동의 발달, 애착, 기질, 어머니의 성격 등 - 의 자료와 한국아동패널연구 1차에서 수집된 자료를 연동하여 작성된 소논문 6편을 수록하였다.

3부 부록에서는 1, 2부에서 언급된 자료들 - 심층조사 대상자 신청화면, 부모안내문,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 - 을 제시하였다.

II. 기초분석

1. 표본 특성

본 보고서의 기초분석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이므로 실제 가중치를 부여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1차 심층 조사 시점의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려고 일부 분석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가 수집된 2차년도 일반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 일반 조사의 조사 자료를 함께 기재하였다.

2차년도 일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의 주요 사항은 <표 II-1-1>, <표 II-1-2>와 같다.

<표 II-1-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동성별	남자	962	50.5	107	51.9
	여자	942	49.5	99	48.1
	계	1904	100.0	206	100.0
2차 조사 시 아동 월령	11개월	3	0.2	-	-
	12개월	121	6.4	16	7.8
	13개월	447	23.5	59	28.6
	14개월	701	36.8	78	37.9
	15개월	471	24.7	44	21.4
	16개월	133	7.0	8	3.9
	17개월	24	1.3	1	0.5
	18개월	4	0.2	-	-
	계	1904	100.0	206	100.0
가구형태	부부+자녀	1678	88.1	182	88.3
	조부모+부부+자녀	152	8.0	17	8.3
	부부+자녀+친척	25	1.3	4	1.9
	조부모+부부+자녀+친척	45	2.4	3	1.5
	기타	4	0.2	-	-
	계	1904	100.0	206	100.0

〈표 II-1-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가구소득	일반조사	1893	416.98	624.91	300	50	9000	
	심층조사	204	464.02	656.23	350	60	6000	
가구지출	일반조사	1883	277.27	288.53	200	44	4200	
	심층조사	203	285.70	279.10	250	50	3500	
자산	금융자산	일반조사	1772	3363.08	14898.73	1000	0	550000
		심층조사	186	3779.44	5433.51	2000	0	38000
	부동산	일반조사	1839	22831.19	62091.54	9000	0	800000
		심층조사	199	26583.93	72168.00	11000	0	800000
부채	총액	일반조사	1836	3868.13	12944.34	500	0	250000
		심층조사	199	5011.31	18660.33	1000	0	250000
	월상환금	일반조사	1847	24.53	66.16	24.53	0	2000
		심층조사	202	24.15	38.95	4.00	0	200

2. 일반적 특성

가. 아동 특성

여기에서는 성별, 나이 등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기술할 것이다.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결과는 2부의 제1차 심층조사 연구논문의 각 논문에서 다루었다.

1) 아동의 성별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아동의 성별 분포는 일반 조사대상의 경우 남아가 50.5%, 여아가 49.5%를 차지했다.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에도 남아가 51.9%, 여아가 48.1%로 분포되어 일반 및 심층 조사대상은 남아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었다.

〈표 11-2-1〉 아동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자	962	50.5	107	51.9
여자	942	49.5	99	48.1
계	1904	100.0	206	100.0

2) 아동의 월령

심층조사 대상 아동의 월령은 베일리 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은 평균 17.19개월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5개월의 경우 2.4%, 16개월 20.4%, 17개월 40.3%, 18개월 30.6%, 19개월 5.3%, 20개월 1.0%로 분포되었다.

〈표 11-2-2〉 아동의 월령

단위: %, 명, 개월

구분	만 연령				조산교정 만 연령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14개월	-	-			1	0.5		
15개월	5	2.4			7	3.4		
16개월	42	20.4			45	21.8		
17개월	83	40.3	17.19	0.94	80	38.8	16.44	1.11
18개월	63	30.6			60	29.1		
19개월	11	5.3			11	5.3		
20개월	2	1.0			2	1.0		
계	206	100.0			206	100.0		

베일리 발달 검사의 경우 아동의 조사 연령을 조산일을 고려하여 조산교정 만 연령으로 조사한다. 이에 심층 조사대상 조산 여부를 고려한 결과 34명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적으로 조사에 사용된 아동의 조산교정 만 연령은 평균 16.44개월로 나타났다. 14개월의 경우 0.5%, 15개월 3.4%, 16개월 21.8%, 17개월 38.8%, 18개월 29.1%, 19개월 5.3%, 20개월 1.0%로 대다수의 조사 대상자는 만 16~18개월 사이에 조사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아동의 출생순위

심층조사 대상 아동의 경우 외동은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56.2%, 첫째 11.3%, 둘째 25.6%, 셋째 6.4%, 넷째 0.5%로 대다수가 외동이거나 첫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아동의 출생순위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외동	114	56.2
첫째	23	11.3
둘째	52	25.6
셋째	13	6.4
넷째	1	0.5
계	203	100.0

4) 아동의 건강특성

가) 체중, 신장, 두위

일반 조사대상 아동의 기본적인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체중은 5.7kg에서 15.0kg까지로 평균 10.13kg이었으며, 남아 평균 체중은 10.45kg, 여아는 9.80kg이었다. 신장은 최소 60cm에서 100cm까지, 평균 77.31cm이었으며, 남아의 평균 신장은 77.91cm, 여아의 평균 신장은 76.71cm이었다. 두위는 평균 46.00cm로 최소 42.00cm에서 최대 50.00cm까지의 특성을 보였고, 남아의 평균 머리둘레는 46.60cm, 여아의 평균 머리둘레는 45.39cm이었다.

〈표 II-2-4〉 아동의 신체적 특성

단위: kg, cm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체중	평균	10.13	10.45	9.80	10.15	10.51	9.74
	표준편차	1.11	1.09	1.03	1.08	1.08	0.93
	최소값	5.70	5.70	7.00	7.00	8.00	7.00
	최대값	15.00	15.00	13.00	13.50	13.50	13.00
신장	평균	77.31	77.91	76.71	77.38	77.93	76.68
	표준편차	4.08	4.09	3.98	3.84	3.91	3.68
	최소값	60.00	60.00	60.00	67.00	67.00	70.00
	최대값	100.00	96.00	100.0	90.00	90.00	90.00
두위	평균	46.00	46.60	45.39	46.14	46.78	45.23
	표준편차	1.70	4.67	4.50	1.74	4.65	1.45
	최소값	42.00	42.00	42.00	42.30	43.00	42.30
	최대값	50.00	50.00	50.00	50.00	50.00	48.00

심층 조사대상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체중은 평균 10.15kg으로 최소 7.0kg에서 최대 13.5kg으로 분포되었고, 남아의 평균 체중은 10.51kg, 여아의 평균 체중은 9.74kg이었다. 심층 조사대상의 신장은 최소 67cm에서 90cm의 분포로 평균 77.38cm이었으며 남아의 평균 신장은 77.93cm, 여아의 평균 신장은 76.68cm이었다. 두위는 최소 42.30cm에서 50.00cm로 평균 46.14cm의 분포를 보였고, 남아의 평균 머리둘레는 46.78cm, 여아의 평균 머리둘레는 45.23cm이었다.

일반적인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 조사대상 아동과 심층 조사대상 아동의 분포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조사대상자와 심층 조사대상자의 평균 월령이 각각 14.07개월, 13.86개월인 것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의 표준 성장도표(2007)'의 소아 발육 표준치 12~15개월의 남아와 여아의 체중, 신장, 머리둘레를 비교해보았다.

12~15개월 남아의 소아 발육 표준치는 체중 10.41kg, 신장 78.22cm, 머리둘레 46.53cm, 여아의 경우 체중 9.84kg, 신장 76.96cm, 머리둘레 45.54cm이다. 이는 일반 및 심층 조사대상의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로, 본 한국아동패널조사의 표본이 아동의 신체적 특성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국가필수예방접종 횟수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2개월을 기준으로 결핵(BCG) 1회, B형 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소아마비(폴리오)는 각 3회를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의 일반 조사대상은 결핵 82.2%, B형 간염 78.5%,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76.1%, 소아마비 77.2%만이 권장하는 바와 같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 결핵 73.8%, B형 간염 70.9%,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69.4%, 소아마비 97.0%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접종하였다.

〈표 II-2-5〉 예방접종 횟수(12개월 기준)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결핵(BCG)			B형 간염(HepB)		
접종 안함	0.4	0.5	접종 안함	0.4	0.5
1회	82.2	73.8	1회	0.9	1.0
모름	17.4	25.7	2회	2.0	1.5
-	-	-	3회	78.0	70.4
-	-	-	4회	0.5	0.5
-	-	-	모름	18.2	26.2
계	100.0	100.0	계	100.0	10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폴리오)		
접종안함	0.6	0.5	접종안함	0.4	0.5
1회	1.7	1.5	1회	1.6	1.0
2회	1.7	1.5	2회	1.7	1.5
3회	75.7	69.4	3회	77.0	68.9
4회	0.4	-	4회	0.2	28.1
모름	19.9	27.1	모름	19.1	-
계	100.0	100.0	계	100.0	100.0

다) 조사 시 건강상태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의 건강상태를 2차년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

일반 조사대상의 사고 및 중독에 의한 치료 발생여부를 살펴본 결과, 발생했던 경우가 15.8%,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가 84.2%였고, 입원치료의 경우 21.3%가 입원치료의 경험이 있으며, 78.7%가 입원치료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통원치

료 경험 유무의 경우, 과반수이상인 58.6%가 통원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통원 치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1.4%였다.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 사고 및 중독에 의한 치료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0.2%,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9.8%로 일반 조사대상보다 치료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입원치료 경험유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이 20.8%, 입원 치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이 79.8%였으며, 통원치료를에 대한 응답은 치료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8%,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7.2%였다.

일반과 심층 조사대상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표 II-2-6〉 입원/치료 경험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사고/중독에 의한 치료	있다	15.8	20.2
	없다	84.2	79.8
	계	100.0	100.0
입원 치료	있다	21.3	20.2
	없다	78.7	79.8
	계	100.0	100.0
통원 치료	있다	58.6	52.8
	없다	41.4	47.2
	계	100.0	100.0

나. 부모특성

1)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가) 부모 연령

일반 조사대상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 만 32.8세, 아버지 만 35.3세이며, 어머니의 최저 연령은 만 21세, 아버지의 최저 연령은 만 20세로, 최고령자의 나이는 어머니 만 48세, 아버지 만 52세였다.

심층 조사대상 부모의 평균연령은 어머니 만 33.0세, 아버지 만 32.2세로, 최저 연령은 어머니 만 23세, 아버지 만 26세이며, 최고령자는 어머니 만 43세, 아버지 만

50세로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 부모의 대부분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7〉 부모 만 연령

단위: 세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32.8	35.3	33.0	35.2
표준편차	3.67	3.99	3.57	3.92
최소값	21	20	23	26
최대값	48	52	43	50

나) 어머니 결혼 특성

(1) 어머니 결혼 상태

어머니의 결혼 상태의 경우, 한국아동패널의 참여 어머니 98.8%가 초혼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으며, 재혼 0.9%, 별거 0.1%, 이혼 0.2%, 미혼이 0.1%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자의 경우 초혼 99.5%, 재혼 0.5%로 분포 되어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 대상자 모두 유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II-2-8〉 어머니 결혼 상태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유배우(초혼)	98.8	99.5
유배우(재혼)	0.9	0.5
별거	0.1	-
이혼	0.2	-
미혼	0.1	-
계	100.0	100.0

(2) 어머니 결혼기간

어머니의 결혼기간은 일반 조사대상의 경우 평균 4.9년이며, 2개월부터 최장 22년까지 분포되어 있고,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 평균 어머니의 결혼기간은 4.5년이며, 2개월부터 16.8년까지로 나타났다.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 어머니의 결혼기간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II-2-9〉 어머니 결혼기간

단위: 월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평균	59.27	53.81
표준편차	38.08	35.39
최소값	2	2
최대값	268	202

주: 초혼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의 결혼을 기준으로 함.

다) 부모 국적 및 귀화 여부

일반 조사대상 어머니의 99.6%, 아버지의 99.7%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이 중 어머니의 2.4%, 아버지의 1.9%는 외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였다. 또한, 일반 조사대상 중 어머니의 0.4%, 아버지의 0.3%는 외국국적 소지자였다.

심층 조사대상 부모의 국적 및 귀화여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99.5%, 아버지 100.0%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조사대상 어머니의 2.9%, 아버지의 3.7%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어머니가 외국 국적을 소유한 응답자는 0.5%로 나타났다.

〈표 II-2-10〉 부모 국적 및 귀화 여부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99.6	99.7	99.5	100.0
외국 국적 소지자	0.4	0.3	0.5	-
계	100.0	100.0	100.0	100.0
귀화여부				
귀화함	2.4	1.9	2.9	3.7
귀화하지 않음	97.6	98.1	97.1	96.3
계	100.0	100.0	100.0	100.0

라) 부모의 학력

일반 조사대상 부모의 학력을 살펴본 결과, 최종 학력이 4년제 대졸인 어머니가 39.5%, 아버지가 43.3%로 가장 많으며, 초대졸 이상인 어머니가 69.4%, 아버지가 72.9%로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가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또한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는 어머니 30.0%, 아버지 26.5%이며, 고졸 미만의 학력은 부모 모두 1% 안팎의 소수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 부모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졸인 어머니가 44.9%, 아버지가 47.0%로 가장 많으며, 초대졸 이상인 자가 어머니 84.9%, 아버지 80.2%로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가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며, 일반 조사대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는 어머니 15.1%, 아버지 19.3%이며,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없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0.5%에 불과했다.

〈표 II-2-11〉 부모의 학력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무학	0.1	-	-	-
초등학교 졸업	0.1	-	-	-
중학교 졸업	0.4	0.6	-	0.5
고등학교 졸업	30.0	26.5	15.1	19.3
대학(2·3년제) 졸업	24.9	19.5	29.3	17.3
대학교 졸업	39.5	43.3	44.9	47.0
대학원 졸업(석사)	4.7	8.9	10.2	13.9
대학원 졸업(박사)	0.3	1.2	0.5	2.0
계	100.0	100.0	100.0	100.0

마) 부모 종교 유무 및 종교

부모의 종교 유무를 살펴보면 일반 조사대상 어머니 52.7%, 아버지 43.2%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분포되었으며, 어머니가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아버지보다 약 10% 가량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50.2%, 아버지의 42.8%가 종교를 가진 것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 일반 조사대상 부모는 개신교(어머니 49.9%, 아버지 41.6%)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불교(어머니 29.5%, 아버지 34.2%), 천주교(어머니

19.0%, 아버지 22.3%)의 순으로 나타났고, 유교, 원불교 등 기타 종교 소지자는 일반 조사의 2% 정도를 차지하였다.

심층 조사대상 부모의 경우 개신교(어머니 56.1%, 아버지 48.8%)가 가장 많았으나, 일반 조사대상의 순위와는 달리 천주교(어머니 26.5%, 아버지 36.9%), 불교(어머니 17.3%, 아버지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12〉 부모 종교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종교 유무				
있음	52.7	43.2	50.2	42.6
없음	47.3	56.8	49.8	57.4
계	100.0	100.0	100.0	100.0
종교				
불교	29.5	34.2	17.3	14.3
개신교	49.9	41.6	56.1	48.8
천주교	19.0	22.3	26.5	36.9
기타	1.6	1.9	-	-
계	100.0	100.0	100.0	100.0

바) 부모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

한국아동패널 일반 조사 시점에서 어머니의 2.6%, 아버지의 4.4%가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 조사시점에서 어머니의 4.9%, 아버지의 6.4%가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3〉 부모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동거	97.4	95.6	95.1	93.6
비동거	2.6	4.4	4.9	6.4
계	100.0	100.0	100.0	100.0

2) 부모의 건강특성

가) 장애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여부

일반 조사대상 부모의 장애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여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0.2%, 아버지의 0.6%가 장애가 있으며, 아버지의 0.1%는 희귀난치성 유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조사대상 부모의 건강 특성의 경우, 아버지의 1.0%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4〉 부모의 장애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여부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장애 유무	있음	0.2	0.6	-	1.0
	없음	99.8	99.4	100.0	99.0
	계	100.0	100.0	100.0	100.0
희귀난치성 유전병 유무	있음	-	0.1	-	-
	없음	100.0	99.9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나) 음주습관

(1) 부모의 음주 여부

부모를 대상으로 평상시 음주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 조사대상 어머니의 42.1%가 비음주자이고 23.1%는 평소에 술을 마시나 임신과 모유수유 등의 이유로 현재 마시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4.8%는 마시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아버지는 78.9%가 평상시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여 어머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자의 경우, 어머니의 35.0%가 비음주자이고 28.6%가 평소에 술을 마시나 임신과 모유수유 등의 이유로 현재 마시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36.5%는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75.7%가 평상시에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조사대상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어머니보다 평상시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5〉 부모의 음주 여부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마심	34.8	78.9	36.5	75.1
마시지 않음	42.1	21.1	35.0	24.9
평소에 마시나 임신과 모유수유로 마시지 못함	23.1	na	28.6	na
계	100.0	100.0	100.0	100.0

주: na는 해당 없음을 의미함.

(2) 부모의 음주 빈도

일반 조사대상 중 평소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음주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2~4회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어머니 55.6%, 아버지 51.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어머니는 월 1회 이하 마신다는 응답이 34.8%로 다음 순으로 응답된 반면, 아버지는 주 2~4회 마신다는 응답이 31.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 중 평소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음주 빈도를 조사한 결과 월 2~4회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게서 51.4%, 57.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일반 조사대상의 결과와 동일하게 2순위의 응답은 어머니 43.2%가 월 1회 이하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고, 아버지의 29.1%가 주 2~4회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일반 조사대상의 아버지 중 5.2%, 심층 조사대상의 아버지 중 3.3%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응답해 일부의 아버지에게서 음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2-16〉 부모의 음주 빈도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월 1회 이하	34.8	11.9	43.2	10.6
월 2~4회	55.6	51.2	51.4	57.0
주 2~4회	9.5	31.7	5.4	29.1
거의 매일	0.2	5.2	-	3.3
계	100.0	100.0	100.0	100.0

(3) 부모의 음주 시 주량

음주 시 보통 마시게 되는 주량에 대해서 어머니는 1~2잔, 3~4잔이 각각 47.0%, 29.8%로 적은 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경우 10잔 이상을 마신다는 응답 비율이 26.6%로 가장 많았고, 7~9잔 마신다는 응답은 약 25.7%로 일반 조사대상 아버지 중 음주를 하는 아버지의 주량은 과반수 이상이 7잔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자의 경우에서도 어머니는 1~2잔이 55.4%, 3~4잔이 29.7%로 4잔 이하가 약 85%이상인데 비해, 아버지의 경우 5~6잔이 29.1%, 7~9잔이 24.5%, 10잔 이상이 21.9%로, 심층 조사대상자 아버지 중 음주를 하는 아버지의 76%정도가 5잔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조사대상의 아버지의 음주 시 주량의 구분 순위와 심층 조사대상의 아버지 음주 시 주량의 구분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2-17〉 부모의 음주 시 주량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1~2잔	47.0	6.2	55.4	11.3
3~4잔	29.8	17.9	29.7	13.2
5~6잔	15.4	23.6	12.2	29.1
7~9잔	5.5	25.7	1.4	24.5
10잔 또는 그 이상	2.3	26.6	1.4	21.9
계	100.0	100.0	100.0	100.0

다) 흡연습관

(1) 부모의 흡연 여부

일반 조사대상 부모의 흡연 여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1.3%를 제외하고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약 52.5%가 흡연자로 응답하였다. 심층 조사대상 부모의 흡연여부는 어머니의 1.0%만 흡연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아버지의 경우 44.8%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2-18〉 부모의 흡연 여부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피움	1.3	52.5	1.0	44.8
피우지 않음	98.7	47.5	99.0	55.2
평소에 피우나 임신과 모유수유로 피우지 못함	-	na	-	na
계	100.0	100.0	100.0	100.0

주: na는 해당 없음을 의미함.

(2) 부모의 니코틴 중독 정도

일반 조사대상 부모의 니코틴 중독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흡연 어머니의 36.0%는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가 28.0%, 매우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가 24.0%,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가 각각 8.0%, 4.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흡연 아버지의 13.8%만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가 31.1%, 매우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가 28.4%, 중간수준의 니코틴 중독이 10.2%, 높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가 14.2%, 매우 높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9〉 부모의 니코틴 중독 정도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중독 아님(0점)	36.0	13.8	100.0	16.7
매우 낮은 수준(1~2점)	24.0	28.4	-	34.4
낮은 수준(3~4점)	28.0	31.1	-	27.8
중간 수준(5점)	8.0	10.2	-	8.9
높은 수준(6~7점)	4.0	14.2	-	11.1
매우 높은 수준(8~10점)	-	2.3	-	1.1
계	100.0	100.0	100.0	100.0

한편, 심층 조사대상 부모 중 흡연 어머니 전원은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았으나, 흡연 아버지의 경우에는 16.7%만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의 흡연 아버지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가 34.4%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가 27.8%, 높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는 11.1%로 나타났으며, 8.9%가 중간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 1.1%가 매우 높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로 나타났다.

3) 부모의 근로특성

가) 부모의 취업상태

일반 조사대상 부모의 취업상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68.2%가 전업주부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중인 어머니가 31.4%, 학업 중인 어머니가 0.4%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일반 조사의 97.7%가 일을 하고 있으며 무직은 1.9%, 학생은 0.4%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 어머니의 경우 65.5%가 전업주부로 가장 많았고,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는 34.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98.5%가 일을 하고 있으며 1.0%가 무직이었고, 0.5%의 경우는 학업중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결과에서 동일하게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대부분이고, 아버지는 대부분이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20〉 부모 취업상태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취업 중	31.4	97.7	34.5	98.5
학업 중(휴학생 포함)	0.4	0.4	-	0.5
미취업/미취학	68.2	1.9	65.5	1.0
계	100.0	100.0	100.0	100.0

나) 부모의 직업분류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자 중 부모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직업은 통계청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제6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일반 조사대상에서 취업중인 어머니의 경우 41.4%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가

장 많았고, 이어서 29.3%가 사무종사자였다. 아버지의 경우 26.3%가 사무종사자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3.8%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다수의 부모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직군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층 조사대상에서 취업중인 어머니의 경우 50.0%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군에 가장 많이 종사하였으며, 이어서 33.3%가 사무종사자, 16.7%가 판매종사자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32.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이어서 30.0%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표 II-2-21〉 부모 직업(대분류 기준)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관리자(1)	-	6.4	-	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41.4	23.8	50.0	30.0
사무종사자(3)	29.3	26.3	33.3	32.5
서비스종사자(4)	6.9	4.9	-	2.0
판매종사자(5)	20.7	7.9	16.7	5.5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6)	-	1.0	-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	15.0	-	10.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	-	10.9	-	10.0
단순노무 종사자(9)	1.7	2.2	-	1.0
군인(A)	-	1.6	-	2.5
계	100.0	100.0	100.0	100.0

다) 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

(1) 부모의 종사상 지위

일반 조사대상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정규직/상용직이 각각 79.9%, 80.0%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 임시직 또는 일용직도 어머니 10.7%, 아버지 5.9%로 일부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일반 조사대상 중 고용주/자영업의 어머니는 6.6%, 무급가족 종사자 어머니가 2.5%,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가 0.3%였다. 아버지의 경우 9.1%가 고용주/자영업자였고, 2.1%가 무급가족 종사자, 3.0%가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포되었다.

심층 조사대상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87.1%, 아버지의 87.8%가 정규직/상용직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 임시직 또는

일용직도 어머니의 10.0%, 아버지의 4.0%로 분포되었다. 심층 조사대상 어머니의 경우 2.9%, 아버지의 8.1%가 고용주/자영업자에 해당하였다.

〈표 II-2-22〉 부모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정규직/상용직	79.9	80.0	87.1	87.8
비정규 임시직	8.3	3.3	10.0	3.0
비정규 일용직	2.4	2.6	-	1.0
고용주/자영업자	6.6	9.1	2.9	8.1
무급가족 종사자	2.5	2.1	-	-
기타	0.3	3.0	-	-
계	100.0	100.0	100.0	100.0

(2) 부모의 주당 총 근로시간

부모의 주당 총 근로시간을 살펴본 결과, 일반 조사대상 어머니가 41.93시간, 아버지가 51.52시간, 심층 조사대상자의 어머니가 41.18시간, 아버지가 50.25시간으로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근로시간이 약 1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3〉 부모 주당 총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41.93	51.52	41.18	50.25
표준편차	12.30	11.93	8.01	11.15
최소값	3	5	15	25
최대값	96	120	60	90

4) 어머니 취업상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조사와 심층 조사대상 모두에서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71.3%, 77.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경우가 일

반 조사대상은 16.7%, 심층 조사대상에서는 8.6%이고, 휴직중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일반 조사대상이 12.0%, 심층 조사대상자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4〉 어머니 취업 상태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휴직 중	12.0	14.3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71.3	77.1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	16.7	8.6
계	100.0	100.0

다. 가구 및 가구원 특성

1) 가구특성

가) 가구 구성원 수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포함 및 생계, 교육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와 따로 사는 아동의 생부와 생모를 모두 포함한다.

〈표 II-2-25〉 가구 구성원 수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2명	0.3	0.5
3명	41.7	52.9
4명	39.7	31.6
5명	13.0	10.2
6명	3.7	3.9
7명	1.2	1.0
8명 이상	0.5	-
계	100.0	100.0

일반 조사대상의 가구 구성원 수는 3명이 41.7%, 4명이 39.7%였으며, 5명이 13.0%, 6명 이상이 5.4%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도 가구 구성원 수가 3명인 경우가 52.9%, 4명인 경우가 31.6%였으며, 5명인 경우가 10.2%, 6명 이상인 경우

가 4.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아동패널의 가구원 구성이 대부분 부부와 자녀 1~2명으로 구성된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나) 가구원 구성

일반 조사대상의 가구원 구성으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이 8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조부모와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8.0%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조사대상의 가구원 구성도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이 88.3%로 대부분이었으며, 조부모와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6〉 가구 구성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부부+자녀	88.1	88.3
조부모+부부+자녀	8.0	8.3
부부+자녀+친척	1.3	1.9
조부모+부부+자녀+친척	2.4	1.5
기타	0.2	-
계	100.0	100.0

주: 기타의 경우는 가구원 중 아기와와의 관계 무응답자 가정임.

2) 위탁가구 특성

가) 자녀 위탁여부

부모의 취업, 건강 등의 이유로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가구와 같은 다른 집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 조사대상의 2.7%, 심층 조사대상의 5.8%가 자녀를 다른 가구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7〉 자녀 위탁여부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위탁	2.7	5.8
비위탁	97.3	94.2
계	100.0	100.0

나) 자녀 위탁 기간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일반 조사대상의 경우가 7.72개월로 조사 시점에 위탁을 시작한 가구에서부터 최대 14개월까지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가 8.25개월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자녀를 다른 가구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8〉 위탁기간

단위: 월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평균	7.72	8.25
표준편차	4.13	3.25
최소값	0	2
최대값	14	12

3) 경제적 특성

가) 소득

일반 조사대상의 가구 월 소득은 201만원~300만원이 3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만원~200만원이 23.5%, 301만원~400만원이 18.0%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소득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일반 조사대상의 취업모 가구의 경우, 301만원~400만원이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만원~300만원 23.3%, 401만원~500만원이 22.7%이었던 반면,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201만원~300만원이 3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만원~200만원 30.3%, 301만원~400만원이 15.2%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 가구 월 소득의 경우도 201만원~300만원이 26.5%로 가장 많았으나, 2순위의 경우 301만원~400만원이 22.5%, 3순위는 101만원~200만원이 17.6%로 일반 조사대상의 순위와는 다소 다르게 응답되었다.

심층 조사대상 중 취업모 가구의 월 소득의 경우, 401만원~500만원이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1만원~400만원이 27.5%, 501만원~700만원이 18.8%를 차지했다.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201만원~300만원이 3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만원~200만원이 26.5%, 301만원~400만원이 20.5%로 응답되었다.

전반적으로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 가구에서 맞벌이를 하는 취업모 가구가 비취업모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2-29〉 가구 소득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100만원 이하	2.7	0.8	3.4	2.0	-	3.0
101만원~200만원	23.5	9.4	30.3	17.6	1.4	26.5
201만원~300만원	33.2	23.3	37.9	26.5	11.6	34.8
301만원~400만원	18.0	24.2	15.2	22.5	27.5	20.5
401만원~500만원	11.7	22.7	6.6	15.2	29.0	8.3
501만원~700만원	6.0	13.1	2.5	9.8	18.8	3.8
701만원~800만원	1.0	2.2	0.4	1.5	4.3	-
801만원~900만원	-	-	-	-	-	-
901만원~1000만원	0.8	1.7	0.4	1.5	2.9	-
1000만원 이상	3.0	2.7	3.3	3.4	4.3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지출

가구의 월 지출 규모로는 일반 조사대상의 36.5%가 101만원~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300만원이 35.2%, 301만원~400만원이 13.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조사대상 중 취업모 가구의 지출규모는 201만원~300만원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만원~200만원 22.7%, 301만원~400만원이 20.2%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101만원~200만원이 4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만원~300만원이 34.1%, 301만원~400만원이 10.5%를 차지했다.

심층 조사대상 가구의 월 지출규모의 경우, 201만원~300만원이 39.9%로 가장 많았고, 101만원~200만원이 31.5%, 301만원~400만원이 14.8%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의 취업모 가구의 월 지출규모는 39.1%가 201만원~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1만원~400만원 21.7%, 101만원~200만원 17.4%로 응답되었다.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 101만원~200만원, 201만원~300만원이 각각 39.7%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 가구의 월 지출규모는 대체로 취업모 가구가 비취업모 가구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표 II-2-30〉 가구 지출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100만원 이하	5.7	2.9	6.9	4.4	-	6.9
101만원~200만원	36.5	22.7	43.0	31.5	17.4	39.7
201만원~300만원	35.2	37.5	34.1	39.9	39.1	39.7
301만원~400만원	13.6	20.2	10.5	14.8	21.7	10.7
401만원~500만원	4.7	9.9	2.2	5.9	15.9	0.8
501만원~700만원	2.7	4.5	1.8	2.0	1.4	2.3
701만원~800만원	0.2	0.2	0.2	-	-	-
801만원~900만원	0.1	0.2	-	-	-	-
901만원~1000만원	0.2	0.5	-	0.5	1.4	-
1000만원 이상	1.3	1.5	1.2	1.0	2.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자산

(1) 부동산 자산

일반 조사대상 가구의 부동산 총액으로는 1억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가 2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7001만원~1억원으로, 대부분 2억원 이하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조사대상 중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 가구의 부동산 총액은 1억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가 각각 25.3%, 2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7001만원~1억원이 각각 15.8%, 15.7%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구의 경우 5001만원~3억원 이하의 구간에 부동산 자산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취업모 가구는 3001만원~2억원 이하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심층 조사대상 가구의 부동산 총액은 1억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가 2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01만원~1억이 14.6%, 3001만원~5000만원이 12.6%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 가구 중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 가구의 부동산 총액은 1억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가 각각 27.5%, 20.5%로 나타났으나, 2순위의 경우 취업모는 7001만원~1억원, 3억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가 15.9%였고,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3001만원~5000만원인 경우가 14.2%였다. 부동산 자산의 주요 분포를 살펴보면, 심층 조사대상 가구 중 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7001만원~5억원 이하의 구간에 부동산 자산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취업모 가구는 3001만원~2억원 이하의 구간에 집

증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 조사대상 가구와 심층 조사대상 가구의 부동산 총액에 대한 비율을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 가구대상 모두 취업모 가구의 부동산 총액이 비취업모 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2-31〉 부동산 총액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1000만원 이하	10.1	7.9	11.0	6.0	1.4	8.7
1001만원~3000만원	9.4	7.9	9.9	7.0	4.3	8.7
3001만원~5000만원	10.8	8.4	12.1	12.6	10.1	14.2
5001만원~7000만원	10.8	10.7	10.9	9.5	7.2	11.0
7001만원~1억원	15.8	15.8	15.7	14.6	15.9	13.4
1억1만원~2억	21.8	25.3	20.2	22.6	27.5	20.5
2억1만원~3억	8.0	10.0	7.0	10.6	13.0	8.7
3억1만원~5억	7.4	7.4	7.3	11.1	15.9	7.9
5억1만원~10억	3.4	4.3	3.0	3.5	4.3	3.1
10억 이상	2.7	2.4	2.8	2.5	-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금융자산

일반 조사대상 가구의 금융자산으로는 1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001만원~3000만원이 25.2%, 3001만원~5000만원이 11.8% 순이었다.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의 가구의 금융자산도 1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각각 45.1%, 5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01만원~3000만원이 각각 26.4%, 25.0%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조사대상 가구의 금융자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3.6%로 나타났고, 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4.1%, 비취업모 가구는 3.3%로 금융자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업모의 경우가 더 많았다.

심층 조사대상 가구의 금융자산은 1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1001만원~3000만원이 25.3%, 3001만원~5000만원이 20.4%의 순이었다. 심층 조사대상 중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 가구의 금융자산도 1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각각 31.3%, 43.3%로 가장 많았으나, 취업모의 경우 1000만원 이하~5000만원의 금융자산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포되어 있었다. 심층 조사대상 가구의 금융자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4.5%로 나타났고, 취업모 가구의 경우 3.2%, 비취업모 가구는 5.0%로 비취업모 가구의 1억원 초과 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조사대상 가구와 심층 조사대상 가구의 금융자산의 분포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심층 조사대상 가구의 총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2〉 금융자산 총액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1000만원 이하	51.4	45.1	54.2	38.7	31.3	43.3
1001만원~3000만원	25.2	26.4	25.0	25.3	28.1	24.2
3001만원~5000만원	11.8	14.7	10.3	20.4	28.1	15.8
5001만원~7000만원	2.7	3.6	2.3	4.8	6.3	4.2
7001만원~1억원	5.2	6.1	4.8	5.9	3.1	7.5
1억1만원~2억	2.4	3.1	2.0	2.7	1.6	3.3
2억1만원~3억	0.5	0.5	0.4	1.6	-	1.7
3억1만원~5억	0.3	0.5	0.3	0.5	1.6	-
5억1만원~10억	0.3	-	0.4	-	-	-
10억 이상	0.1	-	0.2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부채

일반 조사대상 가구의 부채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16.9%였다. 일반 조사대상의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구의 부채 또한 전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4.2%, 4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각각 18.2%, 16.4%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부채 규모가 1억원 초과인 가구는 일반 조사대상의 7.0%였으며, 1억원 초과 부채규모를 가진 취업모 가구는 8.9%, 비취업모 가구는 6.0%로 취업모 가구의 부채 규모가 비취업모 가구의 부채규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 부채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17.6%였다. 심층 조사대상의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구의 부채도 전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0.0%, 4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각각 18.6%, 16.7%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 가구의 부채 규모가 1억원 초과인 경우는 일반 조사대상의 10.5%로 나타

났고, 1억원 초과 부채규모를 가진 취업모 가구는 15.7%, 비취업모 가구는 8.0%로 취업모 가구의 경우의 부채규모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2-33〉 부채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취업모	비취업모
전혀 없음	47.9	44.2	49.5	43.7	40.0	46.0
1000만원 이하	8.5	5.8	9.7	9.0	4.3	11.9
1001만원~3000만원	16.9	18.2	16.4	17.6	18.6	16.7
3001만원~5000만원	9.7	10.7	9.4	7.0	10.0	5.6
5001만원~7000만원	3.6	4.6	3.0	3.5	4.3	3.2
7001만원~1억원	6.5	7.6	6.0	8.5	7.1	8.7
1억1만원~2억	4.4	5.7	3.9	7.0	10.0	5.6
2억1만원~3억	1.1	1.9	0.7	1.5	4.3	-
3억1만원~5억	0.7	0.5	0.7	1.5	-	2.4
5억1만원~10억	0.4	0.3	0.4	-	-	-
10억 이상	0.4	0.5	0.3	0.5	1.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마) 기초생활수급

일반 조사대상가구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일반 조사대상 가구의 1.2%, 차상위계층 해당 가구는 일반 조사대상의 4.1%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해당 가구는 없었으며, 차상위계층 해당 가구는 2.9%로 나타났다.

〈표 II-2-34〉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	-
차상위계층	4.1	2.9
해당없음	94.7	97.1
계	100.0	100.0

4) 주거특성

가) 주택유형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일반 조사대상의 72.6%가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연립주택(빌라포함)이 10.8%, 단독주택이 8.0%의 순이었다.

심층 조사대상가구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76.2%의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연립주택(빌라포함)이 12.1%, 다세대주택(다가구 주택)이 6.8%의 순이었다.

〈표 II-2-35〉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단독주택	8.0	4.4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72.6	76.2
연립주택(빌라 포함)	10.8	12.1
다세대주택(다가구 주택)	6.4	6.8
비주거용 건물내의 주택(상가 또는 사무실 안쪽)	1.6	0.5
오피스텔	0.5	-
임시막사	0.1	-
계	100.0	100.0

나) 주택 소유

(1) 주택 소유 형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 형태로는 자가인 경우가 일반 조사대상 가구의 42.5%, 전세인 경우가 40.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 가구의 경우도 자가 41.3%, 전세 47.6%로 나타나,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가구의 거주 중인 주택 대부분이 자가와 전세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반 조사대상의 경우는 자가인 경우가 다소 높았고,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 전세의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2-36〉 주택 소유 형태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자가	42.5	41.3
전세	40.0	47.6
전·월세(보증부 월세)	8.2	3.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0.6	0.5
무상	7.6	5.3
기타	1.1	1.9
계	100.0	100.0

(2) 거주 주택 외 주택 소유 여부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 조사대상의 18.0% 이었고,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82.0%였다. 심층 조사대상 결과의 경우, 거주 중 주택 외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20.4%, 소유하지 않은 경우는 79.6%로 나타났다.

〈표 II-2-37〉 거주 주택 외 주택 소유 여부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있다	18.0	20.4
없다	82.0	79.6
계	100.0	100.0

다) 거주 지역 유형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일반 조사대상의 경우 일반 아파트지역이 6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주택지역이 24.3%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대상의 경우 일반아파트지역이 70.0%로 가장 많았고, 일반주택지역이 24.1%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자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8〉 거주 지역 유형

단위: %

구분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일반주택지역	24.3	24.1
일반아파트지역	67.9	70.0
상가/회사지역	2.9	1.0
공장(단)지역	1.0	1.5
농·어가지역	3.4	2.5
학교지역	0.4	1.0
계	100.0	100.0

이상에서 한국아동패널의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 간의 특성을 표본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과 가구 및 가구원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대상 간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부모의 학력(표 II-2-11 참조), 월평균 가구 소득의 순위(표 II-2-29 참조), 월평균 지출 규모의 순위(표 II-2-30 참조) 및 금융자산총액(표 II-2-32)이었으며, 그 밖의 다른 특성들에서는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다.

참 고 문 헌

- 김민화·곽금주·성현란·심희옥·장유경(2003). 영아기 정서단어의 습득에서 기질과 양육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39-55.
- 김영환·김지혜·오상우·임영란·홍상황(2001). **성격평가 질문지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박혜원·신민선(2006).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수행의 안정성: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2), 103-112.
- 박혜원·조복희(2006).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II 해석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키즈팝.
- 박혜원·조복희·최호정(2003).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 표준화 연구: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2-134.
- 이영·박경자·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영·신은주·나종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I). **아동학회지**, 15(2), 37-54.
- 이정희(1993).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옥분·정순화·황현주(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조복희·박혜원(2004).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K-BSID-II) 표준화연구(1): 지역, 성별 및 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행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91-206.
- 황윤세(2009). 18-36개월 영아용 기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0(4), 191-204.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ederson, D. R., & Moran, G. (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relation to Q-sort measures of infant-mother interaction.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Serial No. 244), 111-132.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 386-401.
- Rothbart, M. (2006). *Mary Rothbart's temperament questionnaires*. <http://www.bowdoin.edu/~sputnam/rothbart-temperament-questionnaires/>에서 2009년 6월 18일에 인출.
- Snow, C., & McGaha, C.(3rd. Ed.) (2003). *Infant development*. New York: Prentice Hall.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 (version 3.0)*. Unpublished man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41-65.

2부

제1차 심층조사 연구논문

논문제목	저자명
I.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의 인지발달 간 구조모형 분석	이 숙·이정림
II. 애착유형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	박혜원·김진경
III.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영아의 애착안정성	나중혜·이정원
IV. 한국과 미국 영아의 기질 구조 비교 : ECBQ 타당화를 중심으로	이정림·송신영
V. 영아의 기질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김진경·이예진
VI. 인생초기 경험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임신기 및 출산 시 변인을 중심으로	이정원·왕영희

I.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의 인지발달 간 구조모형 분석

이 숙·이정립

(전남대학교 교수·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서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구된 심리사회적 가정환경변인들은 원만한 부부관계(이영미·민하영·이윤주, 2005; 정은희·이미숙, 2004)나 어머니의 양육행동(문미영, 2001) 및 심리적 특성(김혜연, 1999; 한영옥·김문혜, 2003),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신소영, 2008)나 우울(김윤심, 1995; 남소현·김영희, 2000; 한태숙, 2008; Deklyen, 1992)과 불안(곽소현·김순옥, 2006) 같은 심리적 상태가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자신의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최정신, 2009)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부부갈등을 겪는 사람들의 절반정도가 우울을 호소한다든가(Beach, Sandeen, & O'Leary, 1990), 결혼만족도가 낮은 여성의 경우 우울증상이 더 나타나는(장문선, 2003) 등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어머니가 높은 부부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발달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영아기에 자녀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그 결과 자녀가 까다로운 행동을 많이 나타낼 수 있고(한태숙, 2008), 유아의 정서조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현정, 2009).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영아의 기질과 같은 특성변인보다는 결혼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문인숙, 1984)나, 우울증 어머니가 3세 유아의 언어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보고한 연구(김윤심, 1995)도 이와 관련된 결과이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특히 여아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는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고

거부적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의향, 2010). 이렇듯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문제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불안과 우울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은 아직 섬세한 돌봄이 필요하고 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많이 요구되는 영아기 자녀와의 관계에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utter(1990)는 우울한 기분이 아동의 단서와 욕구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훈육기능을 손상시킨다고 하였으며, 가족 내 갈등의 증가가 우울과 상관이 깊다고 하였다. 영아기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1차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로서 어머니가 영아에게 심리적 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심리적으로 안정된 경우, 영아는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활발하게 탐색할 수 있고 이런 영아의 행동이 영아가 지닌 잠재능력을 활성화하여 인지발달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에 불안해하거나 우울한 어머니는 영아를 돌보는 일에 의욕이 없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껴서 유아는 관심을 받고 소중하게 다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지발달이 억제될 수 있다. 김수원(2005)은 어머니의 우울이 영유아의 울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Field(1990)의 연구에서도 우울증 어머니는 긍정적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정서행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여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Deklyen(1992)은 어머니의 우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손상된 사고를 반영하기에 아동발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행동문제(이유진·박경, 2005; 한영옥·김문혜, 2003), 사회적 유능감(최재형, 2005), 정서조절(김현정, 2009), 적응행동(남서현·김영희, 2000; 정미경, 2003)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생의 초기인 영아기에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나 우울과 불안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것이 별로 없으며, 기질이나 애착, 문제행동 등과 같은 사회정서적 발달이나 적응에 관해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인지 발달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인지 발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영아의 인지발달에 관한 경로모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경로모형을 구성해 보았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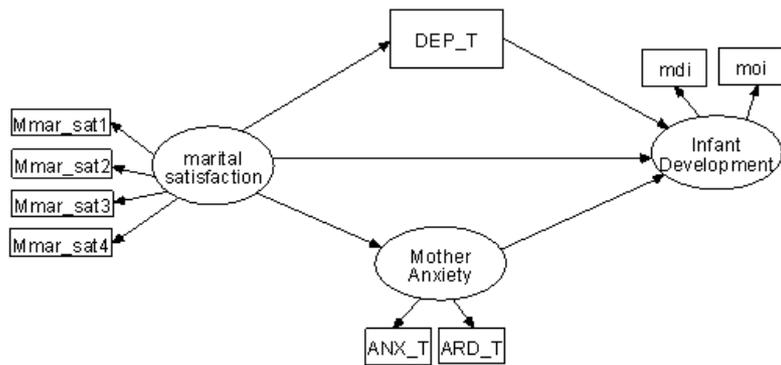
가설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어머니의 우울은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불안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4: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어머니의 불안은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1-1] 영아발달에 대한 이론 모형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 4~8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했던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일반조사에 참여했던 2,078명의 아동과 어머니 중에서 2009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실시되었던 제1차 심층조사에 참여했던 205명의 아동과 어머니이다. 2009년에 실시되었던 심층조사에 참여하였던 아동은 총 206이었으

나, 이중 한명은 1차년도 일반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2차년도 일반조사와 심층조사에
만 참여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심층조사 시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15
개월에서 20개월 사이였으며 아동의 평균 연령은 17.19개월이었다. 심층조사 당시
어머니의 연령은 만 23~43세로 평균연령은 32.68세였다.

나. 측정 변인과 도구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Chung(2004)이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Schumm,
Nicols, Schectman, & Grigsby, 1983)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중에서 평정하도록 한 Likert 척도이다.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20
점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RKMSS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 중에서 평정하는 7점 척도였으나,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질문지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결혼
만족도 척도는 2008년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일반조사에서 어머니대상 질문지에 포
함되어 측정되었다.

2) 어머니 우울 및 불안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를 사용하였다. PAI는 Morey(1991)가 제작한 객관형 성격검사로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총 34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에서는 김영환·김지혜·오
상우·홍상환(2001)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PAI는 4개의 타당성척도,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 2개의 대인관계
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I-2-1> 과 같다. PAI의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부터 '약간 그렇다(1점)', '중간이다(2점)', '매우
그렇다(3점)' 라는 응답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척도 문항들이다.

PAI 구성 척도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이라고 판단되는 임상척도 중 우울과 불안 척도(불안 및 불안관련장애 척도)만
을 사용하였다. 어머니 불안 및 우울척도는 2009년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에
포함되어 측정되었다.

〈표 1-2-1〉 PAI 하위 척도 구성

척도	하위척도
타당도 척도	비일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임상척도	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관련 장애, 우울, 조증, 망상, 정신분열병,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음주문제, 약물사용
치료고려척도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
대인관계척도	지배성, 온정성

3) 베일리 발달 검사

영아의 인지발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 검사 제2판(Korean-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K-BSID II)의 두 가지 척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K-BSID II는 다수의 발달검사 중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검사로서, 한국형으로도 최근 표준화되어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공하는 도구이다. 특히 K-BSID II의 경우 잠재적인 위험군 집단을 발견해주는 선별적인 기능 이외에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평가 도구이다. 즉, 검사결과 상 발달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베일리 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지척도, 동작척도, 행동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K-BSID I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지발달지수, 동작발달지수를 활용하였다. 영아의 인지발달지수와 동작발달지수는 2009년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 시 포함되어 측정되었다.

다. 연구 절차와 분석

한국아동패널 표집 틀을 이용하여 선정된 전국의 연간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산부인과에서 2008년 4~8월에 출생한 아동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병원에서 간단한 병원용 질문지를 응답한 후 4개월 후의 가정방문 조사를 허락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이 출생 후 4개월이 지난 뒤 가정방문에서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실시하기 2주전에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발송하여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한 후 CAPI를 실시하기 위해 방문하는 날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수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어머니대상 질문지 내용의 응답을 통해 얻어졌다.

2009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제1차 심층조사가 실시되었다. 심층조사에서 아동의 발달검사인 K-BSID II는 검사자 훈련을 거친 전문조사원들이 상주하는 권역별 지정 검사 장소로 아동과 주양육자(어머니)가 방문하여 검사실에서 실시하였고, 어머니 성격검사인 PAI는 사전에 질문지를 각 심층조사 대상 가구에 발송한 후 검사 당일에 수거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 및 불안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AMOS 5.0을 통해 설정된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1-3-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1. 인지발달지수(mdi)	94.69	14.62	50~150
2. 동작발달지수(moi)	93.71	12.65	50~150
3. 어머니 우울(DEP_T)	47.52	11.19	0~100
4. 어머니 불안(ANX_T)	48.66	11.84	0~100
5. 어머니 불안관련장애(ARD_T)	50.59	11.63	0~100
6. 결혼만족도 문항1(Mmar_sat1)	4.11	.72	1~5
7. 결혼만족도 문항2(Mmar_sat2)	4.01	.68	1~5
8. 결혼만족도 문항3(Mmar_sat3)	4.03	.73	1~5
9. 결혼만족도 문항4(Mmar_sat4)	3.98	.87	1~5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의 인지발달지수와 동작발달지수의 경우는 평균을 100으로 하고 3.3표준편차 점수까지를 포함하여 점수의 범위가 50~150의 분포가 되는 표준점수 방식을 채택하여 발달지수를 산출하도록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지발달지수와 동작발달지수는 각각 94.68과 93.71로 평균점수 100에 가까운 점수로서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발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의 경우는 평균점수 50점을 기준으로 2표준편차(1SD=10)점수 이상인 70점 이상이 되는 경우는 뚜렷한 불쾌감이 나타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 대상의 경우 47.52로 평균점수 50점에 가까운 점수로 우울의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불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0점 이상일 경우 상당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 대상의 경우에는 불안점수가 48.66이고 불안관련점수가 50.59로 평균점수에 가까워서 불안의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불안관련 장애의 경우 강박장애, 공포장애, 외상적 스트레스 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강박적 사고와 행동, 공포증,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경험 및 특정 대상이나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포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이 척도도 우울과 불안 척도와 마찬가지로 70점 이상이면 주변상황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의 경우에는 50.59로 평균점수에 가까워서 다양한 상황에서 거의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의 경우는 매우불만족(1점)부터 매우만족(5점)의 척도에서 결혼만족도 4개 문항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4점에 가까운 점수이어서 심층조사 대상 아동의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변인들이 영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아의 성을 통제한 측정 변인들의 부분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3-2>와 같다.

모든 측정변인들 간에는 대체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단지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의 인지발달 지수와 결혼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동작발달지수와 결혼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에서 아동의 인지발달을 평가하는 지수로서 인지발달지수와 동작발

달지수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지발달지수와 결혼만족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통계적인 의미보다는 이론적인 의미가 더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의 인지발달지수와 동작발달지수를 모두 사용하였다.

〈표 1-3-2〉 영아의 성을 통제한 측정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관계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 인지발달지수(mdi)	1								
2. 동작발달지수(moi)	.50***	1							
3. 어머니 우울(DEP_T)	-.08	-.07	1						
4. 어머니 불안(ANX_T)	-.19**	-.14	.71***	1					
5. 어머니 불안관련장애(ARD_T)	-.18*	-.15*	.58***	.80***	1				
6. 결혼만족도 문항1(Mmar_sat1)	.03	.09	-.31***	-.27***	-.33***	1			
7. 결혼만족도 문항2(Mmar_sat2)	.09	.16*	-.37***	-.31***	.73***	-.30***	1		
8. 결혼만족도 문항3(Mmar_sat3)	.09	.15*	-.38***	-.30***	.72***	.83***	-.30***	1	
9. 결혼만족도 문항4(Mmar_sat4)	.05	.03	-.25**	-.23**	.60***	.53***	.56***	-.22**	1

* $p < .05$. ** $p < .01$. *** $p < .001$.

나. 영아 인지발달에 대한 이론 모형의 검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 및 불안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3-1]과 같은 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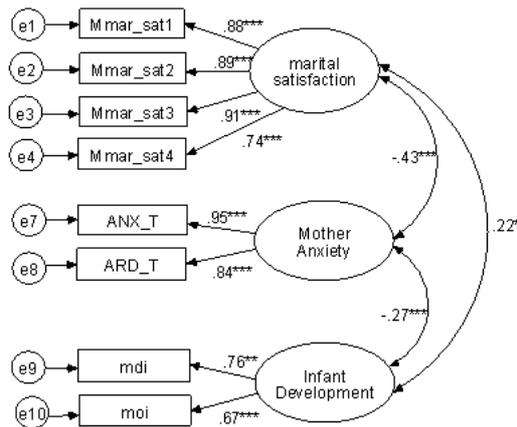
1) 측정 모형 검증

먼저, 잠재변인과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론 모형의 검토를 위해 선정된 이론변인 중 어머니 우울은 측정변인이 곧 이론변인으로 이용되어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변인인 어머니 결혼만족도, 어머니 불안, 아동 인지발달에 관하

여, 어머니 결혼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개의 측정변인과 어머니 불안과 아동 인지발달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측정변인들이 그 잠재변인들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NFI, TLI, CFI는 1에 가깝고 RMSEA는 .02로서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모든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세 개의 이론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표 1-3-3>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NFI	TLI	CFI	RMSEA
25.27	17	.996	.997	.999	.015



[그림 1-3-1] 측정 모형의 검증

2) 어머니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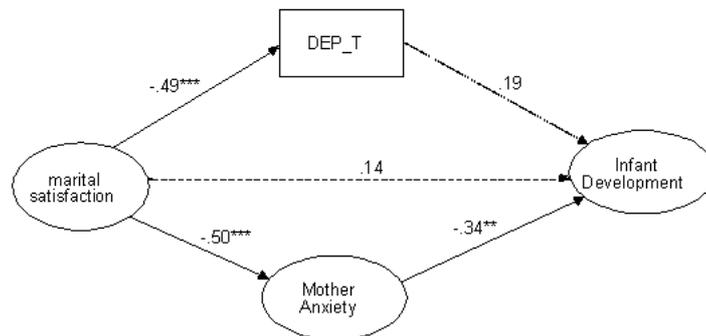
서론에서 제시했던 이론적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검토된 이론 모형에 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NFI, TLI, CFI는 <표 1-3-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95이상이었으며, RMSEA는 .51로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1-3-4〉 영아 인지발달에 대한 이론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NFI	TLI	CFI	RMSEA
148.80	23	.975	.959	.979	.051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나타난 변인 간의 경로를 [그림 1-3-2]에서 살펴보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불안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낮은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불안수준을 높게 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2] 영아 인지발달에 대한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5~20개월 사이의 영아와 그 어머니 205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아

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2008)와 1차 심층조사 자료(2009)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어린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양육스트레스 등으로 일시적인 심리적 불안정상태에 놓일 수 있는데, 어머니가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불안은 영아의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의 불안한 심리 상태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성취동기를 약화시켜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영아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거나(한태숙, 2008), 영아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김현정, 2009) 영아의 인지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은 영아의 인지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우울과 불안은 매우 밀접한 상관을 갖는 심리적 특성으로 이 연구에서도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불안이 영아의 인지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우울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어머니들이 심층조사에 기꺼이 참여한 집단적 특성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수준이 일반 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불안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18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걸음마기 영아의 어머니의 통제적, 거부적 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한 연구결과(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와 연관 지어 설명해볼 수 있는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심리적으로 불안수준이 상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민감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보다는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영아의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측면인 우울과 불안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예비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겠다.

둘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불안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영아기 부모교육에서도 훈육의 기법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는 심층조사 참여집단 어머니들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의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수원(2005).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및 영유아의 울음과 기질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환·김지혜·오상우·임영란·홍상황(2001). **성격평가 질문지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김윤심(1995). 어머니의 우울성향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진, 박성연, 임희수(2009).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 김의향(2010).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정(2009).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우울 및 유아의 정서조절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욱(2001).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연(1999). 아동기 정신병리와 어머니 특성에 관한 연구: 성인애착표상유형, 성격,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소현·김순옥(2006). 어머니의 아동기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

- 로모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남소현·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내면적·외면적 적응행동.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총**, 3, 17-28.
- 노은여(1997). 결혼생활만족도와 자이존중감의 변동성이 기혼남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인숙(1984).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인성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원·조복희(2006). **한국 Balyley 영유아발달검사 II 해석지침서**. 서울: 키즈팜.
- 신소영(2008).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혜영(2000).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선경·이재연(1997).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가족 과정 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유진·박경(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 5(2), 39-57.
- 이영미·민하영·이윤주(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장문선(2003). 기혼여성의 우울증상과 결혼만족도. **상담학연구**, 4(3).
- 정미경(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희·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5-126.
- 최정신(2009).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36개월미만의 첫째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3-24.

- 최재형(2005).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영옥·김문혜(2003).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횡문화적 고찰. *아동학회지*, 24(1), 47-59.
- 한태숙(2008).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정서성, 부부갈등 및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현주·정옥분(2006).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관련변인. *인간발달연구*, 13(4), 95-115.
- Beach, S. I., Sandeen, E. E., & O' Leary, K. D. (1990) *Depression in marriage*. New York: Guilford Press.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Deklyen, O. M. (1992) Childhood psychopathology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the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 comparison of normal and clinic-referred disruptive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utter, M.(1990). Commentary: Some focus and process considerations regarding effects of parental depression o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0-67.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 Weissman, M. M.(1987). Advances in psychiatry epidemiology: Rates and risks in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7, 445-451.

II. 애착유형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

박혜원·김진경

(울산대학교 교수·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서론

영아기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여러 영역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어느 시기보다도 영아기에 어떠한 환경을 경험하는 지는 이후 발달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Thompson, 2000). 특히, 영아가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양육자가 제공하는 양육환경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영아에게 있어 부모는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로서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아는 부모로부터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지식을 획득한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의 특성을 잘 이해하며 내면화 학습과정에서도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른 어떤 성인들보다 아동에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격려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친숙함을 지닌 존재이다(Coleman et al., Trent, Bryan, King, Rogers & Nazir, 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은 Baldwin(1949), Symonds(1949) 등에 의해 주장되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초기의 연구들은 양육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었는데, 어머니가 민주적인 양육을 할 경우 자녀들은 또래 간 사회성이 높았으며, 친절하고 감정표현을 잘 하는 반면,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을 할 경우 자녀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다고 하였다(Brenner & Fox, 1998; O'Learly, Smith Slep, & Reid, 1999). 국내에서도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 간의 관계는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왔으나, 주로 영아기 이후 아동들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윤경, 1998; 김정아, 1990; 도현심, 1995). 부모로부터 애정을 많이 받은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하고 협동적, 우호적이며, 정직하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으며, 쾌활한 인성을 나타내는 반

면 어머니가 권위지향적이며 거부적이면 유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초조하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였고 또래 수용도가 낮았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사회성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 및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Chan, 1981; Frankel & Bates, 1990; Rosengren, Behrend & Perlmutter, 1993; Valdez-Menchaca & Whitehurst, 1992). 예로 3세 이전에 어머니들이 모성어(motherese)를 사용하여 영아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을 많이 할 때 이후 언어수준의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Valdez-Menchaca & Whitehurst, 1992). Bryant(1995)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비계(scaffolding) 제공, 즉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인지적 자극 행동이 유아들의 기초산수 계산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가 민감하고 반응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인지발달 및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였다(Frankel & Bates, 1990; Rosengren, Behrend, & Perlmutter, 1993). Coleman와 Karraker의 연구(2003)에서는 어머니의 지지적, 격려적인 행동이 많을수록 영아의 Bayley 검사수행에서 인지발달 점수가 높았다.

특히, 영아 때의 애착이 유아 또는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몇 편의 연구들이 이뤄졌다. 고경애(1984)의 연구결과, 안정된 애착아가 성취동기 및 지적 호기심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과제해결에도 더 열중한 반면 과제에 대한 회피행동 및 파괴적인 행동을 적게 함으로써 인지능력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rend, Gove와 Sroufe(1979)의 종단연구에서는 아동의 호기심, 충동규제, 만족감의 연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난감을 주고 관찰한 결과, 안정애착아는 자기신뢰 및 호기심에 높은 점수를 보여서 영아기 애착의 질이 4~5세 때의 문제해결 효율성 및 유치원 시절의 인지능력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3세 때의 모자간 애착의 질을 3년 뒤 종단적인 연구를 하여 아동의 인지발달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조사한 결과(Travecchio & Ijzendoorn, 1987), 어머니는 아동의 문제해결 시 분위기를 조정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 분위기가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낮은 상황에서도 안정애착아의 어머니는 아동에게 충분한 반응성을 보임으로써 아동이 문제해결과제를 안정된 상태에서 몰두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Wartner, Grossmann, Fremmer-Bombik와 Suess(1994)의 연구도 1세 때 안정애착아로 분류된 아동이 불안정애착아에 비해 놀이의 질과 갈등해결에서 더 능력을 보였고,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 따라서 1세 때 애착유형이 비교적 안정되게(82%의 일치도) 6세까지 지속되며,

애착이 인지적 문제해결에 긍정적 영향으로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이후의 아동의 인지발달에 지속적이며 누적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영아기 때 애착이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애착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생후 2년간 영아의 인지발달이 급속도로 이뤄짐을 고려해볼 때(박성연·도현심, 2005), 영아기의 애착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아 대상의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적 측면의 어려움 때문에 연구수행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며, 언어발달에 국한되어 있으며 영아의 인지발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한국아동학회에서 조사한 최근의 연구동향에 의하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아동발달 연구 중 영아기의 인지발달에 관한 연구는 전체 연구의 4%에 불과하였다. 아동의 인지발달 중 언어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읽기와 쓰기발달을 포함한 문해발달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영아기의 중요한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이 고려되지 않은 채 아동의 언어발달 자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것이 제한점으로 나타났다(한국아동학회, 2004). 영아기 때 양육자에게 편안하고 안정됨을 느끼는 안정애착아는 문제해결을 더 잘하고 놀이의 질도 높았고 갈등해결 시 더 능력을 보이며, 낯선 환경에서도 탐구능력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영아가 어머니와 형성된 애착관계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심층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생후 초기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영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환경 변인이 매우 중요한데, 가정환경 변인 중 가정의 수입이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고소득 가정에 비해 IQ 및 언어능력, 성취검사 점수가 낮다는 연구결과들(이지연·곽금주, 2008; Smith, Brooks-Gunn, & Klebanor, 1997; Walkers, Greenwood, Hart, & Carta, 1994)은 가족 수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경제적 빈곤과 유아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는 가정의 소득수준이 5세 유아의 인지적인 능력을 가장 잘 예언함을 밝혔다(Duncan & Brooks-Gunn, 2000; Duncan, Brooks-Gunn, & Klebanor, 1994).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의 자료에 기초한 연구(Mayer, 1997)도 영아의 인지적 능력에 있어서 소득수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즉, 높은 가계소득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한다. 가정의 수입은 영아 발달, 특히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득 수준을 통제된 후에도 애착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전국(서울·경인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에 있는 아동과 부모 204쌍이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2-1>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아가 52.5%이고 여아가 47.5%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다. 아동의 만 연령은 15-20개월 사이(평균 17.19개월)로 17개월이 39.7%, 18개월이 3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자가 32.0%, 고등학교 졸업자는 15.8%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4.7%로 월등히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자가 19.6%, 고등학교 졸업자가 18.1%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49.97만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355.2만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
아동 성별	남	107	52.5
	여	97	47.5
	계	204	100.0
아동 연령 (m=17.19)	15개월	5	2.5
	16개월	42	20.6
	17개월	81	39.7
	18개월	63	30.9
	19개월	11	5.4
	20개월	2	1.0
	계	204	100.0

변인	구분	빈도*	%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미만	32	15.8
	전문대(기능대학)	65	32.0
	대학교	82	40.4
	대학원 석사이상	24	11.8
	계	203	100.0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40	20.1
	전문대(기능대학)	39	19.6
	대학교	89	44.7
	대학원 석사이상	31	15.6
	계	19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m=349.97)	200만원 미만	19	10.0
	200-300만원	59	31.1
	300-400만원	38	20.0
	400-500만원	34	17.9
	500만원 이상	40	21.1
계	190	100.0	
검사 권역	서울, 경인권	134	65.7
	충청권	13	6.4
	경북권	16	7.8
	경남권	22	10.8
	전라권	19	9.3
계	204	100.0	

* missing value에 의해 차이가 남.

나. 연구 도구

1) 발달검사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Ⅱ(K-BSID Ⅱ)는 영유아의 발달을 평가하는 개인검사로, 이 검사의 목적은 발달수준을 진단하는 것이다. K-BSID Ⅱ는 인지척도(Mental Scale), 동작척도(Motor Scale), 행동평정척도(BRS: Behavior Rating Scale)의 세 가지 척도로 인지척도는 179문항, 동작척도는 114문항, 행동평정척도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척도와 동작척도는 영아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개인-사회성 발달, 대·소근육 운동발달 수준을 평가하며, 행동평정척도는 검사과정 동안 영유아의 행동을 평가하여 인지척도와 동작척도의 해석을 용이하게 한다(박혜원·조복희, 2006). 표준화연구에서 인지척도의 채점자간 일치도는 $r=.91$, 동작척도의 일치도는 $r=.99$ 에 해당되었다(조복희·박혜원, 2004).

2) 애착

영아의 애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ers(1987)에 의해 개정된 Q-set을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이영 외(1997)에 의해 평정된 한국형 애착 Q-set 사용하였다. Q-set¹⁾은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9점까지 분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각 항목은 특정 영역의 성격, 태도,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한 행동이나 특정 맥락에서의 행동들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점수와의 상관을 통해 측정되는 애착 점수와 더불어 가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애착 관련 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Pederson과 Moran(1995)에 의해 추출된 하위척도 분류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개념별 척도의 세부 구성은 아래의 <표 II-2-2>와 같다.

<표 II-2-2> 애착 Q-set 하위영역별 구성영역 정의 및 문항 수

하위영역	구성영역 정의	문항 수
순응성(compliance)	양육자의 요구나 명령에 순종하는 정도	6
안전기지(secure base)	양육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14
까다로움/예민함 (fussy/difficult)	아동의 행동이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	14
신체접촉의 즐거움 (enjoys physical contact)	양육자가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5
감정 공유 (affective sharing)	양육자와 자신의 느낌과 행동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정도	3

출처: Pederson과 Moran(1995)

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종단연구를 위해 전국의 패널 연구에 참여한 1000명의 아동 중 무선적으로 선택된 20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때 어머니에게 애착유형 검사를 배부하고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패널연구에 참여하였던 아동전체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2차 검사에 대한 홍보 후 검사희망 점수를 받았다. 모든 대상 아동에게 1회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특히 만 1세 이

1) Q-set에 대한 자세한 도구 설명은 심층조사보고서의 도구설명 부분(5~8쪽)을 참조할 것.

하의 참여아동에게는 추가로 1회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독려했다. 희망자에 한해 실제 검사장소 및 시간을 정하기 위해 전화로 다시 한 번 접촉하였다. 참여한 검사자는 총 23명이며 아동학 석사과정중의 학생으로 훈련을 거쳐 검사에 대한 이론적 지식, 실시방법 및 채점방법에 있어서 숙련된 검사자이다. 검사 기간은 2008년 3월~2009년 2월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II-3-1>과 같다. 남아가 전체의 52.5%인 107명이고 여아는 97명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17.2(SD=8.2)개월로 대부분(91.2%) 16-18개월 사이였으며, 각 월령별 평균소득은 349.9만원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고(44.7%), 전체의 60.3%가 대졸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어머니의 경우도 대졸이상이 52.2%로 한국 평균이상임을 알 수 있다. 월 평균소득은 약 350만원으로 200-300만원사이가 31.1%, 500만원 이상이 21.1%, 300-400만원사이가 20.0%였다.

<표 II-3-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발달지수의 차이(K-BSID-II)

구분		인지발달 지수		동작발달 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성별	남	91.66	13.94	91.77	11.85
	여	97.88	14.72	95.62	13.11
	<i>t</i>	-3.10**		-2.21*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 이하	94.60	15.39	94.60	13.23
	대졸 이상	94.64	13.95	92.69	11.95
	<i>t</i>	-.02		1.08	
아버지 학력	전문대졸 이하	94.32	16.87	92.77	14.62
	대졸 이상	94.79	13.20	93.90	11.16
	<i>t</i>	-.21		-.5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91.18	13.42	92.17	12.08
	300만원 이상	96.66	15.33	94.26	12.91
	<i>t</i>	-2.55**		-1.13	
검사 권역	서울, 경인권	93.92	15.54	93.13	12.20
	기타	95.96	12.68	94.50	13.32
	<i>t</i>	-.95		-.74	

p*<.05, *p*<.0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아동의 발달을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인지 발달 지수는 아동의 성별($t=3.10$, $p<.01$)과 월평균 가구소득($t=2.5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성별에서 여아($M=97.88$)가 남아($M=91.66$)보다 인지발달 지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300만원 이상($M=96.66$)인 집단이 300만원 미만($M=91.18$)인 집단보다 인지발달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동작발달 지수는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2.21$, $p<.05$), 인지발달 지수와 마찬가지로 여아($M=95.62$)가 남아($M=91.77$)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애착유형은 안정애착이 68.4%이며 불안정애착은 31.6%였다. 이는 선행연구들(Shaffer, 2002)에서 안정애착이 40%정도인 것을 참고할 때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작 발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인지발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정애착유형의 영아의 K-BSID 2의 인지발달 지수는 96.4($SD=13.7$)이었으나 불안정 애착유형의 영아의 K-BSID 2의 인지발달 지수는 90.1($SD=15.3$)이었다. 더 나아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을 통제 한 후에도 애착유형의 효과는 유의하여 안정애착을 지닌 유아의 인지 지수가 불안정애착의 유아의 수행보다 높았다.

〈표 II-3-2〉 애착의 유형에 따른 인지발달 지수의 차이(소득 통제 후)

구분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인지발달 지수	130	96.41	(13.68)	60	90.08	(16.25)	6.67**

** $p<.01$.

4. 논의 및 결론

세계 초유의 출산율 감소로 OECD국가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은 소수인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부터 인지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영아기 부모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아에 대한 연구 결과 영유아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발달시키

는 중요한 시기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우선 KBSID-II로 측정한 아동의 발달수준에는 성별차이가 유의하였다. 동작과 인지발달 지수모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는데, 박혜원·조복희(2006)의 동 검사의 표준화연구에서 남녀차이가 보고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BSID-II(1993)의 경우도 유의한 성차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차에 결과는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영아의 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한 결과 부모의 가계소득과 인지발달 지수 간에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20개월 미만에 이미 가정의 소득 수준이 발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공통적인 형식적인 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생의 초기에 환경의 차이가 더 크고 유의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Shaffer, 2002).

어머니와의 애착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애착에 따라 영아의 인지발달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작척도에서는 애착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가 일관성 있게 영아를 돌보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영아들은 안정애착을 형성한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를 안전기지 삼아 낯선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지닌 영아들이 다양한 인지적 상황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착이 영아 인지발달을 도모하리라 생각된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유형이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Baumwell, Tamis-LeMonda, & Bornstein, 1997; Bornstein, 1985; Poulin-Dibpos, Graja, & Sippola, 1995). 어머니가 온화하며 수용적인 양육유형은 이후 아동의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인지발달에 관련 있다는 연구와도 같은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행동적, 발달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Bayley 발달평가 점수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Coleman & Karraker, 2003; Coleman et al., 2002; Seo, 2006).

또한,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아발달을 긍정적으로 도모한다는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형민, 2006; Kivijavi, 2001; Riordan, 1996; NICHD ECCRN, 2000, 2002).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를 신속히 읽어내고 적절히 반응하여 영아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을 때,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및 인지적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 영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발달 시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

머니와 보내며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더욱이 어머니가 영아에게 애정적인 신체 접촉을 자주 보이고, 온화한 정서를 나타낼 때, 이는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외에도 인지발달이나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머니의 민감성이 다른 발달단계보다도 영아기에 더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을 통제한 경우에도 애착에 따라 영아의 인지발달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관계없이 영아의 인지발달은 어머니와 영아간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정의 수입은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변수이다. 가정의 수입이 아동의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이세희, 2003; 한찬희 2006; Duncan & Brooks-Gunn, 2000; DeBaryshe, 1995;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수입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애착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수입이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정의 소득이 부모나 환경 변인(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정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사회화 관점에서 가정의 수입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 과정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김정미·곽금주, 2007; Conger, Wallace, Sun, Simons, McLoyd, & Brody, 2002).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많은 경우,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아동발달지식이 높으며(조복희·정민자·김양은, 2006),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송미혜·송연숙·김영주, 2007; 편은숙, 2004). 즉, 이는 양육자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어머니와의 안정 애착이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4명의 비교적 큰 표집을 통해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KBSID-II와 같은 개인발달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이러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과 어머니 양육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Shaffer, 200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머니와의 안정된 정서적 유대감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환경의 영향은 누적적으로 비교적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예

상할 수 있다(Duncan, & Brooks-Gunn, 1997; Klineberg, 1963). Duncan과 Brooks-Gunn(1997)은 장기적인 가난 속에 생활한 아동의 지능이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누적적 결함가설(cumulative deficit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세 미만의 어린 영유아의 인지 능력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이미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에서 인지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초기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심층조사 대상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인지적 수행과 기타 사회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초기 경험의 중요성과 안정적 애착 등을 위한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영유아의 부모, 더 나아가 예비 부모들을 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경(1998). 인기, 무시, 배척 집단의 사회 기술 및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미·곽금주(2007). 취학 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 탐색. **한국아동학회지**, 28(4), 305-317.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현심(1995). 6학년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5), 1-11.
- 박성연·도현심(2005). **아동발달**. 서울: 동문사.
- 송미혜·송연숙·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이세희(2008). 저소득층 가정환경과 영아의 언어발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박경자·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8(2), 131-148.

이지연·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이형민(2006).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복희·박혜원(2004).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K-BSID-II) 표준화연구(1): 지역, 성별 및 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행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91-206.

조복희·박혜원(2006).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II 해석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키즈팝.

조복희·정민자·김양은(200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 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89-109.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인식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아동학회(2004). **한국아동학의 연구: 동향과 전망**. 서울: 학지사.

한찬희(2006). 만2세 영아의 문해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가정문해환경.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rend, R., Gove, F. L., & Sroufe, L. A. (1979). Continuity of individual adaptation from infancy to kindergarten: A predictive study of ego-resiliency and curiosity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0, 950-959.

Baumwell. L.,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7). Maternal verbal sensitivity and child language comprehen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0, 247-258.

Bornstein, M. H. (1985). How infant and mother jointly contribute to developing cognitive competence in chil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U.S.A.)*. 82, 7470-7473.

Brenner, V., & Fox, R. A. (1998). Parental discipline and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 251-256.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V.,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179-193.
- Debaryshe, B. D. (1995). Maternal belief systems: Linchpin in the home reading proc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20.
- Debaryshe, B. D. (1995). Maternal belief systems: Linchpin in the home reading proc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20.
- Duncan, G. J., Brooks-Gunn, J., & Klebanov, P. K.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9.
- Duncan, G. J., Brooks-Gunn, J. (1997). *Growing up poor: Consequences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Duncan, G. J.,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Frankel, K. A., & Bates, J. E. (1990). Mother-toddler problem-solving: Antecedents in attachment, home behavior, an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1, 810-819.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1), 70-95.
- Kivijarvi, M., Boeten, J. M., Raiha, H., Kaljonen, A., Tamminen, T., & Piha, J. (2001). Maternal sensitivity behavior and infant behavior in early interac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6), 627-640.

- Klineberg, O.(1963). Negro-white differences in intelligence test performance: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American Psychologist*, 18, 198-203.
- Mayer, S.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O'Learly, S. G., Slep, A. M. S., & Reid, M. J.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overreactive discipline and toddlers'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331-341.
- Poulin-Dubois, D., Graham, S., Sippola, L. (1995). Early lexical development: the contribution of parental labelling and infants' categorization abilities. *Journal of Child Language*, 22(2), 325-343.
- Rosengren, K. S., Behrend, D., & Perlmutter, M. (1993). Par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cognition. In R. Pasnak & M. Howe (Eds.), *Emerging themes in cognitive development*. Springer-Verlag.
- Seo, S. (2006). A study of Korean working mothers with infant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social poli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6(5), 479-492.
- Shaffer, D. (2002). *Developmental psychology*. Belmont, CA: Wadsworth.
- Smith, J. R. Brooks-Gunn, J., & Klebanov, P. K. (1997). The consequence of living in poverty for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verbal abilit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In G. J. Duncan, & J. B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pp.132-189). NY: Russell Sage Foundation.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The relation of child care to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4), 960-980.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 *Child care and child development: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NY: The Guilford Press.
- Thompson, R. A. (2000). Early experience and socialization. In A. Kazdin (Eds.), *Encyclopedia of psychology*. Washington, DC. & New York: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Oxford University Press.

- Valdez-Menchaca, M. C., & Whitehurst, G. J. (1992).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A systematic extension to Mexican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106-1114.
- Walkers, D., Greenwood, C., Hart, B., & Carta, J. (1994). Prediction of school outcomes based on early language production and socioeconomic factors. *Child Development, 65*, 606-621.
- Wartner, U. G., Grossmann, K., Fremmer-Bombik, E., & Suess, G. (1994). Attachment patterns at age six in south Germany: Predictability from infancy and implications for pre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1014-1027.

Ⅲ.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영아의 애착안정성

나종혜·이정원

(한남대학교 교수·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서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 시부터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까지 모든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돌보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영아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주양육자, 주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고 관계를 맺게 된다. 유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이 같은 관계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갖는 사회적 관계이며 동시에 가장 밀접한 관계로 정신건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Bowlby, 1982), 아동의 지적발달(Bus & Van Ijzendoorn, 1988) 및 사회성 발달(Park & Waters, 1989)에 많은 영향을 준다.

Freud를 위시한 정신분석학자들은 유아의 초기경험이 인간의 성격 형성의 기본이 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동물 행동학자 Bowlby(1958)는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하여 애착(attachment)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은 가까운 사람과 정서적으로 결속을 갖도록 종 특유의 특정한 체계 모델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후기 발달까지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발달은 초기 영아와 양육자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영아는 어머니에게 긍정적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영아기 초기 반복되는 긍정적 경험 속에서 영아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영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이후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기초가 될 뿐 아니라(Bretherton, 1985), 초기 양육자와 형성한 영아의 애착 유형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이후 부모로서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친다(Main

& Cassidy, 1988; Kobak & Sceery, 1988; Fonagy, Steele, & Steele, 1991). 또한 영아기 형성된 애착 안정성을 기반으로 유아는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게 되는데,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어머니를 안전기지(security base)로 삼아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유능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Bowlby, 1982; Matas, Arend, & Sroufe, 1978).

영아기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영아와 관련된 변인과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영아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영아의 성이나 기질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을 들 수 있고(Valenzuela, 1990; Mrazek, Casey & Anderson, 1987)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영아를 양육하는 행동과 관련된 변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의 특성은 질적, 양적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육의 양적 수준이란 영아와 양육자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며 연구결과 양육 시간은 유아의 애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ry와 Bussey(1984)는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은 영아와 가정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어릴 때부터 탁아소에서 컸던 영아나 주말에만 어머니를 만나는 영아도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양육된 영아와 비슷하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양육의 질적 수준은 음식과 위안의 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 충족과 영아와 양육자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유아의 반응에 양육자가 얼마나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정을 표현하는가를 뜻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 수준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즉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영아의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Ainsworth(1979)는 양육자가 유아를 어떻게 보살피는가에 따라 애착의 안정성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영아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보다 영아의 행동에 보다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관성 있게 애정표현을 하며, 신체적으로 세심하게 보살피는 행동 양상을 보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자녀에게 긍정적 정서 표현을 하고 온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중 특히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tevenson-Hinde & Shouldice, 1995). 여기서 언급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특성은 어머니가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된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elsky, Rosenberg, & Crnic, 1995). Vaughn, Egeland, Sroufe와 Waters(1979)는 가정 내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였던 유아도 불안정 애착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고 Shaw, Winslow, Owens와 Hood(1998)도 영아의 애착 안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체계를 고려한 부모의 스트레스를 살펴볼 것을 주장하였다.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궁극적인 원인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지적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부모 자신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Patterson과 Gopaldi (1991)는 어머니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동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Deater-Deckard와 Scarr(1996)는 1~5세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측정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으나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부모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린 영아의 부모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혹은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애착 간의 관계를 임상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애착이 생후 첫 1년 동안 어머니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 있을 뿐, 영아기 애착 형성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애착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후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 지식, 양육 스타일 및 양육스트레스가 17개월 전후하여 형성되는 영아와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고,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 즉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정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영아기 어머니가 느끼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생후 4개월 된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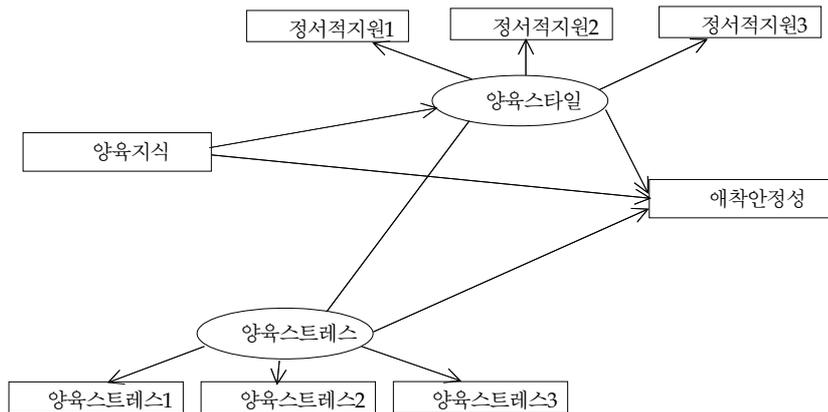
연구문제2. 생후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는 17개월 때 영아-어머니 간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가설1: 어머니의 양육 지식은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은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3.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가?

- 가설4: 어머니의 양육지식정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중심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III-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III-1-1]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대한 가설적 경로모형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2차년도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한 패널가구에서 제1차 심층조사에 응한 가구 206사례 중 아버지가 심층조사에 응한 2사례를 제외한 204사례이다. 제 1차 심층조사는 2009년도 10월~12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년도 본 조사는 패널인 아동이 생후 약 4개월이 되는 시점인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 2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에 1차 심층조사 응답자의 데이터와 이들의 1차년도 본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이번 연구는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의 조사 시기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아동의 생애 초기와 관련된 어머니의 특성이 약 1년 이후의 애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단기 종단연구'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심층조사 대상 아동과 어머니 204쌍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I-2-1>과 같다.

먼저,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인 심층조사 대상 아동 204사례 중 남자는 52.5%, 여아가 47.5%로 남아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출생순위는 첫째(58.8%), 둘째(33.8%)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평균 1.5째의 출생순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출생 시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나 출생 직후 입원실 치료나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전체의 13.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성이 있었던 신생아집중치료실이나 인큐베이터 등을 이용한 경우는 4.4%로 그리 높지 않았고 대부분 설사나 황달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신생아 질병을 보였던 경우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는 평균 31.2세로 젊은 편이고 30대 초반(30~34세)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52.9%). 특히 35세 이상의 어머니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처럼 어머니의 연령이 젊은 점이 아동의 출생순위가 대부분 첫째나 둘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학력은 84.2%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어머니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수준의 평균은 3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아동패널 1차 본조사 대상자였던 2078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¹⁾ 심층조사대상자들

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아동패널 전체 대상자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은 집단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2-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 (명)	평균
아동의 특성	성별	남 여	52.5(107) 47.5(97)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58.8(120) 33.8(69) 6.4(13) 1.0(2)
	출생 시 건강상태 (신생아 입원실, 집중치료실 치료여부)	치료받은 적 없음 입원실 치료(황달, 설사 등) 신생아집중치료실 치료	86.3(176) 9.3(19) 4.4(9)
어머니의 특성	연령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32.4(66) 52.9(108) 12.7(26) 2.0(4)
	최종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학교졸 대학원 이상	15.8(32) 32.0(65) 40.4(82) 11.8(24)
	취업/학업상태	취업중 학업중 미취업/미취학	35.3(72) 0.5(1) 64.2(131)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이하 200~300만원 이하 300~400만원 이하 400~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22.1(42) 29.5(56) 21.6(41) 15.8(30) 11.1(21)

마지막으로 아동의 출생 4개월 시점, 다시 말하면 아동을 출산한지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등을 포함해 취업중인 경우가 35.3%, 휴학을 포함해 학업중인 경우가 0.5%, 미취업/미취학 상태인 경우가 나머지 64.2%로 미취업/미취학 상태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1) 한국아동패널 1차 본조사 대상자인 2078명의 어머니 중에서는 대졸이상인 69.9%였으며, 가구소득은 평균 321.1만원이었음(한국아동패널 2009, 조복희 외).

나. 측정 변인과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패널인 아동을 출산 후 4개월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지식정도',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약 1년 이후 아동이 어머니에게 보이는 '애착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애착 안정성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선정된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심층조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심층조사에서는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Waters와 Deane(1985)에 의해 개발되었고 Waters(1987)에 의해 개정된 Q-set를 이영·박경자·나유미(1997)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번안한 한국판 애착 Q-set를 사용하였다.²⁾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애착의 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했으므로, Q-set의 하위영역별 점수가 아닌 도구의 준거점수와 연구 대상 영아가 얻은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종속변수인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각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도구의 준거점수와 연구 대상 영아가 얻은 점수 간의 상관계수로 점수가 높으면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관계가 더욱 안정적인 것, 즉 애착 안정성이 높은 것을 뜻한다.

2) 어머니의 양육지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양육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아동패널 본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패널 본 조사에서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도구는 MacPhee(2002)의 'KIDI: 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이며, 원도구의 58문항 중 '발달원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만을 도구로 이용하였다.³⁾ 또한 아동패널에서는 이들 '발달원리'의 15문항 중에서도 2가지 문항을 제외하여 총 13문

2) Q-set에 대한 자세한 도구 설명은 심층조사보고서의 도구설명 부분(5~8쪽)을 참조할 것.

3) KIDI 원도구에서는 '양육행동' 8문항, '발달원리' 15문항, '건강과 안전' 9문항, '발달규준 및 지표' 26문항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부록 참조).

항으로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고 있다.

〈표 III-2-2〉 양육지식 문항 구성

척도	하위문항
양육지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2.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3.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칭얼댄다면 이는 대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아기가 자라온 양육 방식은 그 아기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에 아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6. 동생이 태어나면 어린 아이들은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빨게 되기도 한다. 7.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결국에는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다. 8. 건강한 아기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식을 주면 익숙해 질 때까지 그 음식을 대부분 뱉어낼 수 있다. 9.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 10. 부모가 아기에게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반응하는 방식은 이후 아기가 행복하고 잘 적응된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11. 아기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 함으로써 모든 언어를 배운다. 12. 소음이 심하거나 볼 것이 너무 많으면 아기는 자기 주변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13. 정상적인 아이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 양육지식의 점수는 하위문항의 정답을 맞힌 점수 총점임.

본 연구에서는 이들 13개 문항에 대해 정답을 맞힌 수를 점수화하여 어머니의 양육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하였고, 따라서 점수는 양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전혀 없는 0점부터 13개의 문항을 모두 맞춘 13점까지의 범위에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확한 양육지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수 ‘양육스타일’은 아동패널의 본 조사에서 측정되었다. 아동패널의 본 조사에서 ‘양육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도구는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PSQ: Bornstein et al.,1996)를 구성하는 17개 문항 중 신생아

부모에게 해당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4)

본 연구에서는 6개 문항 중에서도 아동패널 예비조사 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두 가지 요인 중 ‘정서적 지원’에 해당하는 세 문항만을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양육실제)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5) ‘정서적 지원’에 해당하는 문항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을 측정하기로 한 이유는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이 출생 후 4개월째에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측정되었고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생후 17개월을 전후한 시점에 측정되어 영아기에 해당되는데, 영아기에는 영아의 행동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민감한 반응, 일관적인 애정표현 등 정서적인 행동이 이후의 애착안정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Ainsworth, 1979). 양육스타일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적 양육스타일을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심층조사대상자 204 사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는 Cronbach의 α 가 0.70로 나타났다.

〈표 III-2-3〉 양육스타일 척도 구성

측정지표	관련문항	Cronbach α
정서적 지원 1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70
정서적 지원 2	나는 내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정서적 지원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는 본 조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아동패널 본 조사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

- 4) PSQ는 20개월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도구로 총 17문항으로 ‘사회적 양육유형’ 9문항, ‘한계설정 양육유형’ 3문항, ‘가르치는 양육유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아동패널 조사는 출생후 4개월 시점에서 조사되었으므로 이중 신생아 부모에게 해당하는 ‘사회적 양육유형’만을 발췌하였고, 그중에서도 신생아 부모에게 적절하지 않은 3문항은 제외하였다(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부록 참조).
- 5) 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 6개 문항 중 정서적 지원 요인으로 묶인 문항은 4),5),6)항이었음(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부록 참조).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패널 본 조사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의 12문항만을 발췌하였으며, 12문항 중에서도 2007년 사전조사를 통해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된 1개 문항과 신생아를 둔 어머니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된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답하게 되어 있는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III-2-4〉 양육 스트레스 척도 구성

측정지표	관련문항	Cronbach α
양육스트레스 1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75
양육스트레스 2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7)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양육스트레스 3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주: 관련문항의 평균점수로 점수화함.

그런데, 양육스트레스라는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기에 10문항은 다소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10문항이 소수의 공통요인으로 묶여질 수 있는지를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해보았는데, 요인분석 결과 세 개의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요인으로 묶여질 수 있는 문항에 대한 점수의 평균을 내어 ‘양육스트레스 1’, ‘양육스트레스 2’, ‘양육스트레스 3’이라는 관측변수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⁶⁾ 본 연구의 대상인 심층조사대상자 204 사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는

6) 아동패널 본조사의 질문지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묻는 문항 1),2),3),5) 점수의 평균값을 ‘양육스트레스1’, 문항 4),7),10) 점수의 평균값은 ‘양육스트레스2’, 문항 6),8),9) 점수의 평균값은 ‘양육스트레스3’의 세 변수로 구성하였음.

Cronbach의 α 가 0.75로 나타났는데, 이는 Nunally(1978)가 제시한 기준 값 0.7을(이 균회, 2004) 상회하므로 양육스트레스의 척도로서의 신뢰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연구 절차와 분석

한국아동패널 표집 틀을 이용하여 선정된 전국의 연간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산부인과에서 2008년 4~8월에 출생한 아동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병원에서 간단한 병원용 질문에 응답하게 하고 4개월 후 가정방문 조사를 허락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이 출생 후 4개월이 지난 뒤 가정방문에서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실시하기 2주전에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발송하여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한 후 CAPI를 실시하기 위해 방문하는 날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수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타일에 대한 정보는 본조사의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통해 수합되었다.

이후 2009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제1차 심층조사가 실시되었다. 심층조사에서 아동의 애착 안정성 측정을 위해 Q-set에 대한 검사자 훈련을 거친 전문조사원들이 상주하는 권역별 지정 검사 장소로 아동과 주양육자(어머니)가 방문하여 검사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패키지 AMOS 5.0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은 가설적인 개념들인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모형'과 잠재 변수들 간의 인과적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모형'으로 구성되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은 각각 이론적 근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드러내는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을 때 적합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이용된 변수들은 여러 개의 측정지표를 통해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통해 비로소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한 변수들 간의 가설적인 인과경로가 포함되므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3. 연구결과

가.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는 <표 II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3-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1. Q-set 상관계수	.41	.21	-.65~.76
2. 양육스트레스1	2.5	.76	1~5
3. 양육스트레스2	2.5	.79	1~5
4. 양육스트레스3	3.4	.78	1~5
5. 양육지식	9.0	.26	0~13
6. 정서적 지원1	4.4	.62	1~5
7. 정서적 지원2	4.0	.68	1~5
8. 정서적 지원3	3.8	.66	1~5

먼저, Q-set 상관계수의 평균은 .41로 국내 안정성 준거점수를 이용하여 살펴본 우리나라 유아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평균 .36(SD=.20)보다(이영 외, 1997; 조복희 외, 2009에서 재인용)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 양육스트레스 1, 양육스트레스2, 양육스트레스3은 각각 평균이 2.5, 2.5, 3.4로 가능한 점수범위인 1~5 안에서 스트레스가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이거나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양육지식은 13점 만점에 평균 9점으로 비교적 양육에 대한 지식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양육스타일을 측정하는 지표인 정서적 지원 1, 정서적 지원 2, 정서적 지원 3의 평균은 5점 만점 중 4.4, 4.0, 3.8로서 심층조사에 응한 어머니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정서적 양육스타일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II-3-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측정변인들 간에는 대체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단지 '양육지식'은 본 구조모형을 구성하는 잠재변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스타일(정서적 지원)'의 측정지표들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서 '양육지식'은 '양육스타일'과 인과경로가 설정되어 있는데, 비록 양육지식과 양육스타일을 구성하는 측정지표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행동, 즉 양육스타일을 통해 드러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본 구조모형분석에 두 변수 간 가설적인 인과경로를 검증해보도록 한다.

<표 III-3-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1. Q-set 상관계수	1							
2. 양육스트레스1	-.15*	1						
3. 양육스트레스2	-.25**	.55**	1					
4. 양육스트레스3	-.31**	.52**	.43**	1				
5. 양육지식	.17*	-.05	-.01	-.10	1			
6. 정서적 지원1	.18*	-.41**	-.39**	-.25**	.12	1		
7. 정서적 지원2	.14	-.29**	-.30**	-.20**	.05	.45**	1	
8. 정서적 지원3	.12	-.39**	-.28**	-.32**	.12	.38**	.49**	1

* $p < .05$. ** $p < .01$.

나.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대한 이론 모형의 검증

1)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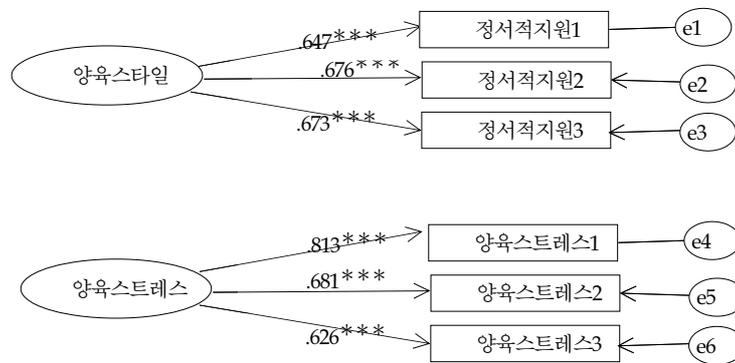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김교연, 2006).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중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스타일'이 잠재변수이며 이를 측정변수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변수가 측정변수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III-3-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4.780(df=8)$, $p=.000$ 으로 카이제곱통계량이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절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나,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200이상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므로(Schmacker & Lomax; 조현철, 2003에서 재인용)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 카이제곱통계량 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적합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표본크기가 상당히 큰 모형을 기각시키는 χ^2 통계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도 지수인 RMSEA 값과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 NFI 등을 함께 살펴본 바, 일반적으로 .08 이하의 값이면 적합도가 높다고 간주되는(노형진, 2001; 배병렬, 2006) RMSEA는 .065로 이에 부합하며, 0.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는 NFI, TLI, CFI 모두 .90 이상으로 이에 부합하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III-3-1>에 제시된 관측변수들의 경로계수(요인적재량)가 모두 Hair et al.(2005)에서 제시한 기준인 .50이상이고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므로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I-3-1]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추정치로 모두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표시는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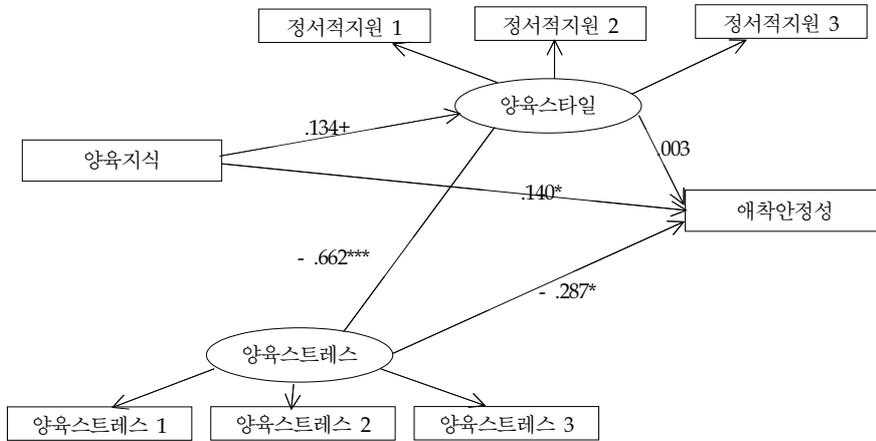
*** $p < .001$.

$\chi^2=14.78(df=8)$, NFI=.953, IFI=.978, CFI=.977, RMSEA=.065

2) 구조모형 분석

가) 모형의 적합도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으므로, 측정모형을 포함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III-3-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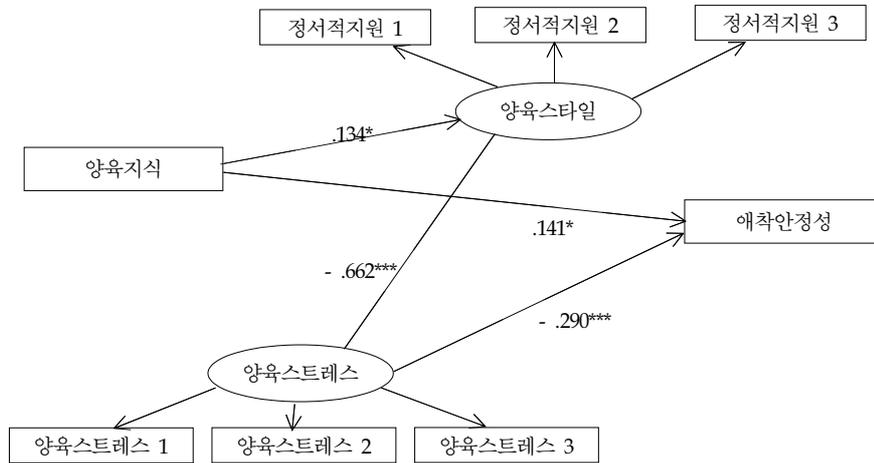
[그림 III-3-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적합도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추정치임. 외생변수 간 상관관계표시는 생략함.
 + $p < .1$. * $p < .05$. *** $p < .001$.
 $\chi^2 = 30.04(df=16)$, NFI=.914, IFI=.958, CFI=.955, RMSEA=.066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chi^2=30.04(df=16)$ 이며, NFI=.914, IFI=.958, CFI=.955, RMSEA=.066으로 카이제곱값 외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비교적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초에 설정한 모형의 경로 중 출생 후 4개월 시점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정서적 지원)이 아동의 애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수준을 .10 수준으로 확장하여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위계적으로 제거해 가는 모형 수정의 과정 '모형다듬기'가 필요하므로, 이 경로를 제거한 구조모형의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최초의 구조모형에 비해 모형의 적합

도가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수정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경쟁모형을 최초의 모형과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통계량(χ^2) 차이검정을 실시하는데, 카이제곱통계량의 차이가 경쟁모형(수정모형)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면 경로의 제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배병렬, 2006; 이정원, 2007에서 재인용). 또한 초기제안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후에도 카이제곱통계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 모형들 중에서 가장 경로가 적은 모형을 채택한다면, 적합상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간명성을 확보한 최종모형을 얻을 수 있다(김지혜, 2005; 이정원, 2007에서 재인용). 이에 최초 모형에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의 구조모형분석 결과는 <그림 III-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III-3-3] 수정모형의 경로계수와 적합도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추정치임.
⁺ $p < .1$. * $p < .05$. *** $p < .001$.
 $\chi^2 = 30.04(df=17)$, NFI=.914, IFI=.961, CFI=.958, RMSEA=.061

분석결과, 최초 설정한 구조모형의 수정 모형은 $\chi^2 = 30.04(df=17)$ 이며, NFI=.914, IFI=.961, CFI=.958, RMSEA=.061로 자유도가 1 증가하였음에도 카이제곱통계량은 변화가 없으며, 이외 다른 적합도 지수는 미미하지만 적합도가 향상되고 있다. 이에 최초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 애착안정성’의 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가) 경로분석

이하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수정모형을 대상으로,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조모형에서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로와 경로계수는 <표 III-3-3>에 제시하였다.

<표 III-3-3>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경로계수(표준화추정치)
양육지식 → 양육스타일	.13 [†]
양육스트레스 → 양육스타일	-.66 ^{***}
양육지식 → 애착안정성	.14 [†]
양육스트레스 → 애착안정성	-.29 ^{***}

[†] $p < .1$. ^{*} $p < .05$. ^{***} $p < .001$.

먼저, 양육스타일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양육지식'은 양육스타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면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어머니가 양육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스타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정서적 양육스타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구조모형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표 III-2-1>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영아와의 애착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아와의 애착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통해서도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중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와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양육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과 양육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곧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요인이며, 영아와의 애착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도 어떠한 양육스타일을 나타내게 되는지가 결정되므로,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에 대한 정확한 양육정보의 제공이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영아기에 주양육자와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고려할 때 어머니나 주양육자가 정확한 양육지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와 양육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이냐는 영아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 및 이를 통한 건강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정확한 양육지식을 보급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관심도 무엇보다 긴급히 요구되는 점이라 하겠다.

또 하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양육스타일과 같은 직접적인 행동을 매개하여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한편으로는 양육스타일(행동)이 아닌 다른 간접적인 매개요인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스타일 측정도구가 출생 후 4개월 시기의 아동에 대한 양육스타일을 측정하기에 다소 부적절했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서 얻어진 결과는 무엇보다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아동의 초기 애착형성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며, 양육스타일과 애착형성에 관한 연구는 향후 지속될 아동패널 본조사와 심층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반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 이해를 꾀하기 위하여 자녀가 생후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 지식, 양육 스타일(정서적 지원) 및 양육스트레스가 만 1세를 전후하여 형성되는 영아와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에 응한 204가구의 어머니와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가 생후 4개월이 되는 시점에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생후 17개월 전후에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생후 4개월 된 영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 지식, 양육 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양육지식의 경우 어머니들은 총 13개의 문항 중 평균 9개를 맞추어 비교적 영아 발달 규준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타일 중 정서적 지원 관련 문항에 대한 대답으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평균 4.4),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평균 4.0),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평균 3.8) 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세 가지 문항 중 아이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는 문항의 평균이 아이의 생각을 읽는 문항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으로 4개월 영아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감지하는 민감성 부분에서는 비교적 자신 없어하는 경향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생후 4개월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보면 3가지 유형의 양육스트레스 모두 어머니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지는 않았으나 흥미롭게도 좋은 부모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양육스트레스 1: 평균 2.5), 나의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양육스트레스 2: 평균 2.5)에 비하여 다양한 육아정보 중 선택을 해야 함, 양육비용, 아이의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 등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부모역할을 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양육스트레스 3: 평균 3.4)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최근 부모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연구모형 검증결과 생후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17개월 때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의 발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면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참조할 수 있고 자녀의 발달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기대로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Sommer와 동료들(1993)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영아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도록 영아기 초기 영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 교육의 유용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정서적 지원)과도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양육지식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잘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두 번째 생후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이 만 1세 때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형 검증 결과 기각되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은 예상과는 달리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는 한계 때문에 양육스타일 중 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문항 3개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결과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생후 4개월 때는 아직 자녀가 너무 어리기 때문

에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이후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반적인 경향에서도 읽을 수 있었듯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온정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어머니들의 점수가 높았으나 자녀가 원하는 바와 느끼는 바를 파악하는 민감성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들이 이후 점점 자녀의 행동을 파악함에 어려움을 느끼고 애착 안정성에 필요한 민감한 반응을 해 주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였고 또한 양육 스타일도 더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Teti, Nakagawa, Das와 Wirth(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애착 안정성 점수는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융통성 있는 어머니 역할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유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가 더 낮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

본 논문은 이미 수집된 패널 자료를 사용한 연구였기 때문에 연구도와 문항 수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자료 수집 시기가 생후 4개월이었다는 점에서 영아 변인보다 어머니 변인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국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영아의 변인을 포함하여 17개월 이후의 양육스트레스 양상을 알아보아 애착 안정성이 형성된 이후의 양육스트레스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결론으로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에 대하여 잘 알고 양육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만1세 때 영아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첫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들이 영아의 발달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적절한 양육행동을 하도록 도와야 하며 또한 이 시기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하여 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본 논문의 결론을 토대로 초기 영아기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교연(2006). 정신지체어머니의 양육 상 어려움에 대한 대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노형진(2002). **SPSS. Amos에 의한 사회조사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 배병렬(2006).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서울: 청람.
- 이근희(2004). **사회과학연구방법론[수정판]**. 서울: 법문사.
- 이영·박경자·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정원(2007). 유아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합리적·가치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육아정책연구소.
- 조현철(2003).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석정.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insworth, M. D. S.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932-93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elsky, J., Rosenberger, K., & Crnic, K. (1995). The origins of attachment security: "Classic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In S. Goldberg(Ed.), *Attachment theory*(pp. 153-183). London: Analytic Press.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Y: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3-38.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Bus, A. G., & Van Ijzendoorn, M. H. (1988). Mother-child interactions, attachment, and emergent literacy: A cross sec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9, 1262-1272.
- Deater-Decard, K. & Scarr, S. (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5-59.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Hair, J. F. 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5).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Y: Prentice-Hall International.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6: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Matas, L., Aredn,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razek, D. A., Casey, B., & Anderson, I. (1987). Insecure attachment in severely

- asthmatic preschool children: Is it a risk factor?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516-520.
- Park, K. A., & Waters, E. (1989). Security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0, 1076-1081.
- Patterson, G. R., & Gapaldi, D. M. (1991). Antisocial parents: Unskilled and vulnerable. In P. A. Cowan & M. Hetherington (Eds.), *Family Transitions*, pp. 195-21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erry, D. G. & Bussey, K. (1989). **인간의 사회적 발달**. 최상진, 최순영 (역). 서울: 성원사. (원본발간일, 1984).
- Shaw, D. S., Winslow, E. B., Owens, E. B., & Hood, N. (1998).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chronic family adversity: A longitudinal study of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545-553.
- Sommer, K., Whitman, T., Borokowski, J., Schellenbach, C., Maxwell, S., & Keogh, D. (1993). Cognitive readiness and adolescent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389-398.
- Stevenson-Hinde, J., & Shouldice, A. (1995). Maternal interactions and self-reports related in attachment classifications at 4.5 years. *Child Development*, 66, 583-596.
- Teti, D. M., Nakagawa, M., Das, R., & Wirth, O. (1991). Security of attachment between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Relations among social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sorts of the attachment Q-set.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0-447.
- Valenzuela, M. (1990). Attachment in chronically underweight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984-1996.
- Vaughn, B. E., Egeland, B., Sroufe, L. A., & Waters, E. (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12 and 18 months: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1-975.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41-6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Version 3.0)*. Unpublished man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IV. 한국과 미국 영아의 기질 구조 비교 : ECBQ 타당화를 중심으로

이정림·송신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연구원)

1. 서론

기질은 출생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전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응성과 자기조절에서의 개인차이다(Rothbart & Derryberry, 1981).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특성으로, 이후 성격의 기초가 되는 개인차(Buss & Plomin, 1984; 1986) 혹은 기본 정서나 각성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Goldsmith, 1988)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렇듯 기질이 이후 성격발달 등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기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질 측정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경옥, 2004).

그동안 국내외 기질 연구에서 Thomas와 Chess(1997)의 기질개념을 기초로 영아의 기질을 순한 영아, 까다로운 영아, 반응이 느린 영아, 세 가지 유형으로 기질을 유형화하는 측정도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기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기질의 하위특성들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추세이다(위영희, 1994; Putnam, Garstein, & Rothbart, 2006).

최근 기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Rothbart는 새로운 기질 척도를 고안하였는데, 발달 단계별로 영아기(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 유아기(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 아동기(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 CBQ), 성인기(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 ATQ)에 걸친 기질 도구를 개발하였다.

상기의 기질 척도 중 IBQ 또는 IBQ-R은 3개월~12개월 대상 영아에게 사용가능한 것으로 제작되었고, ECBQ의 경우는 18~36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이에 Rothbart(2006)는 두 가지 도구의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13~18개월 영아의 경우는 ECBQ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 4월~7월에 출생한 아동으로 심층조사가 2009년 10월~12월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영아의 연령은 최소한 12개월이 지난, 15개월~20개월(평균 17.19개월)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ECBQ를 사용하였다.

ECBQ는 Putnam, Garstein 및 Rothbart(2006)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질 도구로서 18개의 척도로 구성된 20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8개의 척도는 활동수준, 주의집중, 주의전환, 밀착성, 불편감, 두려움, 분노 좌절, 강한 기쁨, 충동성, 억제 통제력, 낮은 기쁨, 활동성, 지각 민감성, 접근 기대, 슬픔, 부끄러움, 사회성, 반응진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Rothbart 계열의 기질 척도 타당화 연구로는 위영희(1994)의 IBQ 타당화 연구와 이경옥(2004)의 CBQ 타당화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영아를 대상으로 ECBQ 기질 척도에 관한 타당화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졌다. 황윤세(2009)의 연구에서 18~36개월 대상 영아를 대상으로 ECBQ 기질 척도 타당화 연구가 시행되었고, 본 연구에서 17개월경의 영아를 대상으로 ECBQ 기질 척도 타당화 기초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동안 12~18개월 대상 영아를 중심으로 ECBQ 기질 척도 타당화를 시도했던 국내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다른 기질 도구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기질 척도로서, 전 생애에 걸쳐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한국아동패널과 같은 종단적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점이 있다. Rothbart 계열 기질 척도인 IBQ와 CBQ, ECBQ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각 기질도구에 대하여 1개 정도만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연구 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가 가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많은 타당화 연구가 수행되어도 좋을 것이다. 특히 이 도구가 미국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척도이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아동에게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Rothbart 계열의 기질 도구에 대한 국내의 타당화 연구를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위영희(1994)는 서울과 청주시에 거주하는 3개월에서 18개월 영아를 453명(232명의 남아, 221명의 여아)을 대상으로 IBQ 기질 척도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Rothbart와의 논의를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번역된 84문항에서 예비조사를 거쳐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항들을 제외하여 총 56문항을 확정지었다. 그 56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9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분석과 적교회전

(Varimax)한 결과, Rothbart(1981)가 제시한 것과 동일한 6개의 요인구조(긍정적 정서, 주의 지속성, 접근-철회, 부정적 정서, 주의 전환성, 활동성)가 적합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 결과는 IBQ를 요인분석한 선행연구자인 Goldsmith와 Campos(1990)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음을 논의하였다. 상술하면, Goldsmith와 Campos(1990)의 경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단일차원의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위영희(1994)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는 구별되는 별개의 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이경옥(2004)은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의 3~7세 유아 341명(178명의 남아, 163명의 여아)의 CBQ 기질 척도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15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18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CBQ 기질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47~.79로 다소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각 하위영역의 내적 일치도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부적절한 문항 19개를 제거한 후 168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다시 시도하였다. 168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60~.84로 적절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을 통해 살펴본 결과, Rothbart 등(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기질 요인 구조와 비슷한 3요인 구조(외향성, 부정적 정서 및 주의 통제)로 밝혀졌으나, 요인부하량의 크기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경옥(2004)은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이외에도 기질척도의 측정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2001)의 결과와 유사하게 기질의 하위 영역은 3요인 구조(외향성, 부정적 정서 및 주의 통제)로 구성되는 단순 측정구조를 가지기 보다는, 이들 하위영역들이 다소 복잡한 요인구조를 형성하는 복합 측정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경옥(2004)은 이러한 복합 측정구조는 기질의 이론적인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기질척도 측정구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최근 황윤세(2009)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18~36개월 영아 338명(172명의 남아, 166명의 여아)을 대상으로 ECBQ 기질 척도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18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20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ECBQ 기질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6~.81로 높은 값으로 보고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수를

제한하지 않고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후 요인수를 3개, 4개, 5개로 지정하여 여러 차례의 반복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황윤세(2009)는 이론적 근거와 요인의 설명량을 고려하여 3개의 요인구조(외향성, 부정적 정서 및 주의 통제)가 적절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황윤세(2009)는 요인계수가 .40 이상이고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계수는 .40 미만인 기준을 유효문항으로 설정하여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한 후 요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12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접촉이라는 1개의 하위영역이 삭제되었다. 총 12개의 문항이 삭제된 1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ECBQ 척도에 대한 탐색적요인 분석 결과, 3개의 요인(활동성과 비활동성, 외향성과 주의성, 부정성과 전환성)을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Putnam, Garstein과 Rothbart(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신체접촉이라는 하위영역이 삭제되어서 Putnam et al.(2006)의 연구에서 명명되었던 외향성, 부정적 정서 및 주의 통제 요인 대신 활동성과 비활동성, 외향성과 주의성, 부정성과 전환성이라는 다른 요인명이 부여되었다.

이상에서 검토해 보았던 Rothbart 계열의 기질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Rothbart 계열의 기질 척도들을 한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하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기질척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고 있는 Rothbart 계열의 기질도구의 타당화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더 광범위한 지역에 속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질 도구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수행될 때, 기질의 측정 구조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보편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들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ECBQ 기질 척도의 신뢰도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ECBQ 기질 척도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ECBQ 기질 척도의 하위 영역은 성차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9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되었던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에 참여했던 206명의 아동과 어머니이다. 심층조사 시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였으며 아동의 평균 연령은 17.19개월이었다. 연구 대상 영아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연구 대상 영아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변인	N(%)
성별	
남자	107(51.9)
여자	99(48.1)
계	206(100.0)
연령	
15개월	5(2.4)
16개월	42(20.4)
17개월	83(40.3)
18개월	63(30.6)
19개월	11(5.3)
20개월	2(1.0)
계	206(100.0)
검사 권역	
서울, 경인권	135(65.5)
충청권	14(6.8)
경북권	16(7.8)
경남권	22(10.7)
전라권	19(9.2)
계	206(100.0)

나. 측정 변인과 도구

1) 기질(ECBQ)

ECBQ는 18개의 척도로 구성된 20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Putnam, Garstein 및 Rothbart(2006)에 의해 타당화되었다. 김영아·박진아·박규리(2009)가 번

안한 문항들이 심층조사에서 사용되었다.

〈표 IV-2-2〉 ECBQ의 18개 하위 척도

영역	정의
활동수준(Activity Level/Energy)	운동속도 및 운동 강도를 포함한 대근육 활동 수준
주의집중(Attentional Focusing)	과제를 수행할 때 주의집중을 유지하는 능력
주의전환(Attentional Shifting)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능력
밀착성(Cuddliness)	양육자에게 안길 때 기분 좋음을 표현하거나 꼭 안겨 있으며 밀착함
불편감(Discomfort)	빛, 소리, 촉감 등의 감각적 자극에 예민하게 부정적 정서를 나타냄
두려움(Fear)	예측된 고통이나 고난,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불평함/걱정/긴장과 같은 부정적 정서
분노 좌절(Frustration)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방해나 목표가 차단되었을 때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
강한 기쁨(High-intensity Pleasure)	강한 자극(강렬하고, 빠르고, 복잡하고 새롭고 부적절) 상황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
충동성(Impulsivity)	반응이 나타나는 속도(Speed of Response Initiation)가 빠른 정도
억제 통제력(Inhibitory Control)	지시에 따라 행동을 멈추고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
낮은 기쁨(Low-intensity Pleasure)	낮은 자극(약하고 느리고 단순) 상황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
활동성(Motor Activation)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림; 안절부절함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외부에서 발생하는 작고 미세한 자극의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
접근 기대(Positive Anticipation)	즐거운 활동을 기다리면서 보이는 기대감
슬픔(Sadness)	고통을 겪거나, 실망하거나, 가까운 누군가를 잃었을 때, 승인받지 못했을 때, 혹은 다른 이가 고통 받는 것을 보았을 때 나타내는 고통이나 실망감
부끄러움(Shyness)	새롭고 불확실한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을 억제함
사회성(Sociability)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김
반응진정성(Soothability)	울음이나, 흥분상태로부터 평소의 기분 상태로 쉽게 회복되는 정도

ECBQ 문항은 어머니의 직접 관찰을 바탕으로 지난 2주 동안 아동이 이러한 행동을 얼마나 자주 보였는지를 판단하게 한 후, '전혀 그렇지 않음(1점)'에서 '항상(7점)'에 걸친 7점 척도의 응답 값에 대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 외에 "해당되지 않음(NA)"이 있는데, 이는 지난 2주 동안 묘사된 상황을 어머니가 관찰한 적이 없는 경우에 응답하도록 하며 점수계산에서 제외된다.

다. 연구 절차와 분석

2009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제1차 심층조사가 실시되었다. 심층조사에서 아동의 발달검사인 K-BSID II와 애착 Q-set 검사는 검사자 훈련을 거친 전문조사원들이 상주하는 권역별 지정 검사 장소로 아동과 주양육자(어머니)가 방문하여 검사실에서 실시하였고, 어머니 성격검사인 PAI와 아동 기질검사(ECBQ)는 사전에 질문지를 각 심층조사 대상 가구에 발송한 후, 검사 당일에 수거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ECBQ 기질 도구는 발달과 애착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검사실로 오기 전에 질문지가 발송되어 가정에서 질문지를 작성한 후 검사 당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ECBQ 기질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SPSS에서 Cronbach α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되었다. 구성타당도는 SPSS의 요인분석(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을 이용해서 분석되었다.

3. 연구결과

가. ECBQ 척도의 신뢰도 검증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에서 수집된 ECBQ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 α 신뢰도 검증 결과, 충동성과 주의 전환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63~.84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즉, 충동성과 주의 전환을 제외한 ECBQ의 다른 영역들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CBQ 제작자들에 의해 밝혀진 신뢰도 검토 결과, 충동성 신뢰도 점수($\alpha=.5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의 전환 신뢰도 점수($\alpha=.62$)가 낮았다. 한국

아동패널 심층조사의 결과에서도 ECBQ의 하위 영역 중 충동성 신뢰도 점수($\alpha=.31$)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주의전환 점수 신뢰도 점수($\alpha=.46$)가 낮은 것으로 ECBQ 원 제작자들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단지, 가장 낮은 신뢰도 점수를 보인 두 영역에 있어서는 동일한 양상이긴 하지만,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신뢰도 점수가 더 낮았다.

〈표 IV-3-1〉 ECBQ 하위영역 신뢰도

하위영역	항목수	Putnam et al. (2006) (N=104, 18개월)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 (N=206, 17.19개월)
두려움(Fear)	11	.72	.66
불편감(Discomfort)	10	.76	.63
활동성(Motor Activation)	11	.75	.64
슬픔(Sadness)	12	.79	.70
분노 좌절(Frustration Shifting)	12	.76	.66
부끄러움(Shyness)	12	.78	.77
반응 진정성(Soothability)	9	.77	.79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12	.90	.78
억제 통제력(Inhibitory Control)	12	.86	.77
주의 전환(Attention Shifting)	12	.62	.46
밀착성(Cuddliness)	12	.85	.81
낮은 기쁨(Low-Intensity Pleasure)	11	.76	.71
주의 집중(Attention focusing)	12	.86	.76
접근 기대(Positive Anticipation)	11	.85	.71
활동 수준(Activity level)	12	.66	.66
충동성(Impulsivity)	10	.57	.31
사회성(Sociability)	8	.88	.84
강한 기쁨(High-Intensity Pleasure)	12	.82	.75

나. 요인 구조

ECBQ에 대하여 주성분분석의 직교회전 방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5가지 요인이 발견되었다. 5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전체 변량은 61%를 차지하였다. ECBQ 원제작자(Putnam, Garstein, & Rothbart, 2006)들은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 외향성(Surgency-Extraversion), 주의통제(Effortable Control)이라는 3요인 구조를 제안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를 ECBQ 제작자들의 요인분석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불편감, 활동성,

주의집중 영역이 그들의 제안과는 다른 별개의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표 IV-3-2〉 ECBQ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206)

하위영역	Putnam et al. (2006) (N=317)			요인분석 1 (N=206)					요인분석 2 (3요인분석 지정) (N=206)		
	부정적 정서	외향성	주의 통제	부정적 정서	외향성	주의 통제	요인4	요인5	부정적 정서	외향성	주의 통제
두려움	.68			.58					.76		
불편감	.70			(.46)			.62		.71		
활동성	.40			(.12)			.74		.48		
슬픔	.57			.80					.72		
분노 좌절	.58			.72					.69		
부끄러움	.47			.60					.59		
반응 진정성	-.42			-.61					-.55		
지각 민감성	.38					.58					.65
억제 통제력			.66			.66					.68
주의 전환			.70			.60					.64
밀착성			.51			.68					.49
낮은 기쁨			.64			.72					.74
주의 집중			.51					-.78			.48
접근 기대	.51			.56					.47		
활동 수준	.64			.64					.75		
충동성	.52			.70					.65		
사회성	.49			.62					.52		
강한 기쁨	.57			.71					.7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각민감성 척도는 원저자들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 요인에 속하였던 반면,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서는 주의통제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감과 활동성 척도는 원저자들의 경우, 부정적 정서 요인에 속하였던 반면,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서는 그들이 나누었던 3가지 범주를 넘어서 제4의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의집중 척도의 경우 Putnam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주의통제 요인에 속했던 반면,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서는 그들이 제안했던 3가지

요인에 속하지 않는 단독으로 별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미 ECBQ를 포함한 ECBQ 제작자 중의 한 명인 Rothbart가 관여한 다른 기질 도구, IBQ-R, CBQ 등에서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3요인으로 밝혀진 내용을 감안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3요인을 지정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는 지각 민감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들이 Putnam et al.(2006)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3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전체 변량은 49%이었다. 지각 민감성의 경우, Putnam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요인에 속하였던 반면, 한국아동패널 1차 심층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서는 주의 통제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성차

한국아동패널의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다른 기질 연구들(Garstein & Rothbart, 2003; Maller, Nekagawa, Slobodskaya, Ogura, Park, Dragan, & Lecannelier, 2009; Putnam et al., 2006)과 마찬가지로 ECBQ 하위 영역에 따른 성차가 나타났다. 하지만 성차를 나타내는 척도는 연구마다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모든 하위 척도들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불편감($t = -2.33, p < .05$), 분노 좌절($t = -2.52, p < .01$), 억제 통제력($t = -2.99, p < .05$) 척도에서의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불편감, 분노 좌절, 억제 통제력 척도에서 어머니들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점수로 평정하였다. 어머니들은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서 빛, 소리, 촉감 등의 감각적 자극에 예민하게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내고, 지시에 따라 행동을 멈추고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작고 미세한 자극의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 Gartstein와 Rothbart(2006)는 주양육자들에게 18개월부터 36개월에 해당하는 317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ECBQ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아의 경우에는 남아에 비해서 두려움 척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고, 강한 기쁨에는 낮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 외에 대다수의 경우 아버지에 해당하는 이차양육자의 경우, 성별에 따른 ECBQ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억제통제력요인에 해당하는 여러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IV-3-3〉 성별에 따른 ECBQ 하위척도 평균점수 차이 *t* 검증

하위척도	평균		표준편차		<i>t</i>
	남아 (n=107)	여아 (n=99)	남아 (n=107)	여아 (n=99)	
두려움(Fear)	2.44	2.63	0.64	0.79	-1.93
불편감(Discomfort)	2.20	2.46	0.76	0.80	-2.33*
활동성(Motor Activation)	2.14	2.25	0.63	0.62	-1.23
슬픔(Sadness)	2.65	2.83	0.72	0.71	-1.84
분노 좌절(Frustration)	3.05	3.29	0.65	0.73	-2.52*
부끄러움(Shyness)	3.06	3.20	0.87	0.92	-1.18
반응 진정성(Soothability)	5.43	5.48	0.77	0.80	-0.44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4.01	4.14	1.13	1.09	-0.87
억제 통제력(Inhibitory Control)	3.53	3.88	0.80	0.86	-2.99**
주의 전환(Attention Shifting)	4.45	4.59	0.60	0.61	-1.71
밀착성(Cuddliness)	5.15	5.07	0.71	0.76	0.80
낮은 기쁨(Low-Intensity Pleasure)	4.82	4.91	0.71	0.70	-0.90
주의 집중(Attention focusing)	4.37	4.35	0.88	0.79	0.23
접근 기대(Positive Anticipation)	4.07	4.31	1.00	1.08	-1.63
활동 수준(Activity level)	4.90	4.86	0.70	0.72	0.37
충동성(Impulsivity)	4.82	4.84	0.68	0.68	-0.15
사회성(Sociability)	4.53	4.37	1.32	1.55	0.78
강한 기쁨(High-Intensity Pleasure)	4.34	4.19	0.85	0.92	1.24

p*<.05. *p*<.01.

4. 논의 및 결론

한국아동패널 1차 심층조사 대상이었던 평균 17.19개월 영아의 기질 자료(ECBQ)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8개의 하위 영역 중에서 충동성과 주의 전환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63~.84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1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ECBQ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충동성 경우에는 미국의 연구(Putnam et al., 2006)의 연구에서도 .60 이하($\alpha=.57$)로 나타났고, 주의전환의 경우도 .62로 다음으로 낮은 신뢰도를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 한국아동패널 1차 심층조사 대상이었던 17.19개월 영아 자료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18~36개월(평균 월령 30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ECBQ 기질 척도를 타당화 하였던 황윤세(2009)의 연구에서는 18개의 하위 영역별 내적 일치도 분석 결과는 Cronbach α 값은 .76~.81로 좋은 내적 일치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했던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대상 영아의 자료를 분석한 신뢰도 점수보다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 연구(Putnam et al., 2006)의 경우에서도 104명의 영아를 18, 24, 30, 36개월 때까지 종단적으로 추적한 ECBQ 자료 분석 결과, 개월 수의 증가에 따라서 내적 일치도 값에 해당하는 신뢰도 값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개월의 경우, 충동성에서는 .57, 주의 전환, .62로 나타났고, 24개월에서는 활동수준에서만 .60으로 나타났으며, 30개월에서는 18개의 모든 영역에서 .70 이상으로 .71~.90으로 나타났고, 36개월에서도 마찬가지로 .70~.89로 나타남으로써 대체적으로 영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ECBQ의 내적 일치도는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 대상보다 높은 연령인 만3세~7세를 대상으로 한 CBQ(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의 국내 타당화 연구를 한 이경옥(2004)의 연구에서도 신뢰도는 .60~.84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록 연구 대상 연령이 다르기는 하지만 Rothbart 계열의 기질 도구들이라는 유사성 측면에서, 특히 3가지 요인구조(부정적 정서, 외향성, 주의통제)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이경옥(2004) 연구 결과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대상 영아들은 평균적으로 아직 18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연령으로 여겨지는 18개월에 해당하는 ECBQ의 자료 분석과 비교한다면, 신뢰도 점수가 미국의 연구보다 조금씩 낮은 점수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었고, 점수가 조금 더 낮은 것은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대상의 영아 연령이 좀 더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대상 영아의 ECBQ 자료 요인분석 결과, 요인을 지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활동성, 불편감, 주의집중 척도가 Putnam et al.(2006)의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3가지 척도에 속하지 않는 제4, 5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utnam et al.(2006)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활동성과 불편감 척도는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제안하였던 3가지 요인에 속하지 않고 제4의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의집중 척도의 경우에는 Putnam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주의 통제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경우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단독 요인으로 나

타났다. 한편, 지각 민감성 척도의 경우 Putnam et al.(2006)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의 통제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BQ의 타당화 연구들(황운세, 2009; Putnam et al., 2006)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두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이론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대상 영아 기질 자료를 3가지 요인으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던 결과에서는, 지각 민감성 척도를 제외한 다른 척도들은 모두 Putnam et al.(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지각 민감성 척도의 경우, Putnam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요인에 속하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주의 통제 요인에 속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 민감성 척도의 경우, 요인을 지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했을 때와 요인 수를 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했던 결과 모두에서 주의 통제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지각 민감성 척도가 비록 부정적 정서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인 부하량은 .38로서 가장 낮은 요인 부하량으로 그 요인에 속하였기 때문에 다른 척도에 비해 그 요인에 속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대상 영아들의 경우, 지각 민감성이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기 보다는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과 더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에서 ECBQ 하위 척도들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불편감, 분노 좌절, 억제 통제력 척도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경우 불편감, 분노 좌절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억제 통제력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불편감이나 분노 좌절 같은 부정적 정서의 표출이 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빛, 소리, 촉감 등의 감각적 자극에 예민하게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방해나 목표가 차단되었을 때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가 여아의 경우가 더 적절하게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시에 따라 행동을 멈추고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여아가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질 척도 연구들에서 일부 척도들에서의 성차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를 나타내는 하위척도에 있어서는 연구들마다 다소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상 아동이 속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어동패널 1차 심층조사 대상이었던 17개월경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ECBQ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미국의 연구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신뢰도 점수가 낮은 분포를 보이긴 하였지만 적절한 신뢰도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충동성과 주의 전환 영역, 두 개의 척도만이 적절하지 않은 신뢰도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 경우, 신뢰도 점수가 본 연구 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지만, 가장 신뢰도 점수가 낮은 두 영역이라는 면에서는 유사하였다.

둘째, 요인수를 지정한 후와 지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두 가지 경우 모두를 감안하여 볼 때, 미국의 연구처럼 3가지 요인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가지 요인에 속하는 하위 척도들이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국어동패널 심층조사 대상 영아의 경우, 지각 민감성 척도가 미국의 연구에서처럼 부정적 정서 요인에 속하는 대신 자기통제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의 연구에서도 지각 민감성 척도는 부정적 정서 요인에서 가장 낮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셋째, ECBQ 기질 척도는 나라마다 성차를 나타내는 일부 척도들이 있었는데, 그 척도는 나라마다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각기 다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에 근거한 것들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기질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양옥승(2006). 3-6세 유아의 자지조절력 측정척도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61-187.
- 위영희(1994). 영유아 기질측정 척도(IBQ)의 타당화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1), 109-125.
- 이경옥(2004). 유아 기질 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 황윤세(2009). 18-36개월 영아용 기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0(4), 191-204.
- Buss, A. H., & Plomin, R. A.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Buss, A. H., & Plomin, R. A. (1986). The EAS approach to temperament. In R.

- Plomin & J. Dunn (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pp67-7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arstein, M. A., & Rothbart, M. K. (2003). Studying infant temperament via the revised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6*, 64-86.
- Goldsmith, H. H. (1988).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Oregon Center for the Study of Emotion Technical Report, 88*. University of Oregon.
- Goldsmith, H. H., & Campos, J. J. (1982). Toward a theory of infant temperament. In R. N. Emde & R. J. Harmon (Eds.),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affiliative systems*(pp. 161-193). New York: Plenum.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 386-401.
- Rothbart, M. K. (1989). Temperament in childhood: A framework, In G. A. Kohnstamm, J. E. Bate,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New York: Wiley.
- Rothbart, M. (2006). *Mary Rothbart's temperament questionnaires*. <http://www.bowdoin.edu/~sputnam/rothbart-temperament-questionnaires/>에서 2009년 6월 18일에 인출.
-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L., & Fisher, P. (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three to seven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 1394-1408.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wo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Vol. 1, pp. 37-86). Hillsdale, NJ: Erlbaum.
- Thomas, M. K.,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er/Mazel.

V. 영아의 기질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김진경·이예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위촉연구원)

1. 서론

생의 가장 초기에 맺게 되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서 영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애착이란 어떤 특정 대상들 간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로, 영아는 양육자인 어머니와 감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애착은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애착관계의 질은 영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근거한다(Stifer, Coulhan, & Fish, 1993). 영아와 어머니간 상호작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변인으로 생득적 특성인 기질을 들 수 있다. 기질은 아동의 행동발달과 성격에 기본이 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개인차의 근원이다(Belsky, Rovine, & Taylor, 1984; Crockenberg & Smith, 1982). 즉, 영아 자신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어머니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기 때문에 영아의 기질은 애착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자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임을 밝히는 연구들(천희영, 1992; 최영희, 1991)을 통해 모성행동과 영아의 기질 간에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의 기질과 모성행동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시되어 왔으며, 이 두 변인 사이의 관련성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이 영아의 욕구에 민감하지 않은 어머니의 특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ederson et al., 1990), 한편으로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들이 오히려 어머니의 몰입된 접촉을 더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보고들도 있다(유명희, 1990; 최영희, 1991; Bates, Olson, Pettit, & Bayles, 1982; Crockenberg & Smith, 1982). 즉, 영아의 기질과 모성행동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녀의 기질 특성이 모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애착 유형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

다.

기질과 애착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기질과 애착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기질이 애착유형을 밝히리라는 입장(이정희, 1994; 홍계옥, 1994; Lewis & Feiring, 1989; Vaughn et al., 1992)이다. 기질이 어머니의 민감성만큼 애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Goldsmith & Alansky, 1987), 애착을 더 잘 예측하는 것은 어머니의 행동보다는 영아 자신의 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Lewis & Feiring, 1989). Pederson, Moran, Sitko, Campbell, Ghesquire, & Acton(1990)은 까다로운 유아의 어머니가 유아에게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으며, Mangeldorf, Gunnar, Kestenbaum, Lang, & Andreas(1990)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질이 애착 유형에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나타났는데,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 안정성은 영아의 기질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활동수준, 반응강도, 지구성, 기분 등과 같은 기질의 영역들과 애착안정성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이정희, 1994; 홍계옥, 1994). 특히, 영아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 애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김승경, 1998; 박응임, 1995).

반면, 영아의 기질이 모자간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주어 애착 체계의 기능의 모델 내에 이미 고려되었기 때문에 기질로서 애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Bates, Maslin, & Frankel, 1985; Vaughn, Hinde, Waters, Dotsaftis, Lefever, Shouldice, Trudel, & Belsky, 1992). Bates 등(1985)은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고 낯선 상황에서 애착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기질의 애착유형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를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신생아 행동 측정 척도와 17개월의 낯선 상황 실험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가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갖지 못했을 경우만 신생아의 특성과 저항 애착간의 관계가 있었다(Crockenberg & Smith, 1982). 영아의 기질이 17개월의 애착 유형은 변별하지 못하지만 2~3세에 측정된 애착 유형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Sroufe, 1985)에서는 영아의 기질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유형에 매개되어 애착유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적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영아의 기질적 까다로움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연구(이영환, 1993)에서 애착집단에 따른 영아의 기질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타인 양육 경험에 따른 애착 연구(양연숙, 2000)에서는 격리 및 타인양육특성이 영아의 기질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아의 특성인 기질과 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질의 영향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영·유아의 기질은 애착의 질적 특성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각각의 어머니와 영·유아가 형성할 양상(style)과 관련된다고 한다.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구분해서 기질이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 기질적 측면이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애착형성에 기여하는지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질 중 어떤 요인이 애착의 어떤 하위영역에 영향을 주는지 모색해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영아 때의 기질 중 어떤 요인이 애착의 어떤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기질 하위영역 및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애착 Q-set이용해서 영아의 애착을 조사하였으며, 기질 또한 하위영역과 세부요인으로 구분된 ECBQ를 사용한 심층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1. 기질 하위영역은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기질 하위영역(외향성, 부정적 정서, 주의통제)은 애착(순응성, 안전기지, 까다로움/예민함, 신체접촉의 즐거움, 감정공유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2. 기질의 세부요인은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기질 세부요인(활동수준, 강한기쁨, 충동성, 운동활성화, 접근기대, 안김, 수줍음, 사회성, 불안, 두려움, 슬픔, 반응진정성, 분노/좌절, 주의집중, 주의전환, 억제 통제력)은 애착(순응성, 안전기지, 까다로움/예민함, 신체접촉의 즐거움, 감정공유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일반 조사 대상 가구 중 2차년도(2009년)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한 패널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선발된 206가구의 심층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와 주요 연구 변수인 애착관계 응답에 있어 아버지 응답으로 조사된 2가구를 제외한 총 204가구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V-2-1>, 대상 아동의 부모 특성은 <표 V-2-2>와 같다.

남아 107명, 여아 97명 총 204명이 참여하였고 첫째아인 경우가 외동아를 포함하여 139명으로 전체의 68.1%에 해당한다. 둘째아는 25%이며 셋째아 6.4%, 넷째 이상인 경우도 일부 포함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월령은 17개월이 39.7%로 가장 많고 18개월 30.9%, 16개월 20.6%로 16~18개월인 아동이 대다수이다.

〈표 V-2-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아동성별	남자	107	52.5
	여자	97	47.5
	계	204	100.0
아동출생순위	외동	114	55.9
	첫째	25	12.2
	둘째	51	25.0
	셋째	13	6.4
	넷째	1	0.5
	계	204	100.0
월령	15개월	5	2.4
	16개월	42	20.6
	17개월	81	39.7
	18개월	63	30.9
	19개월	11	5.4
	20개월	2	1.0
	계	204	100.0

조사 참여자의 부모 특성을 보면, 우선 연령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30대가 80% 안팎으로 대다수이다. 학력은 부모 모두 4년제 대졸 학력자가 가장 많으며 초대졸 이상 학력자가 아버지 82.7%, 84.3%로 대부분이다. 직업은 아버지는 회사원이 54.9%로 가장 많고 전문직 15.7%, 자영업 7.7%, 기술직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는 무직(가정주부)인 경우가 61.3%로 가장 많고 근로자의 경우 회사원 15.7%, 교직원 8.8%, 전문직 7.3%의 순이다. 조사 참여자의 거주 지역은 경기/인천 39.7%, 서울 23.5%로 수도권 지역이 63.2%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1.3%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고 광주/전남/전북 9.8%, 대전/충청 지역과 대구/경북 거주자는 각각 6.4%이다. 적지만 강원권 거주자도 2.9%로 일부 포함되었다.

〈표 V-2-2〉 표본의 부모 특성

구분		빈도*	%
부의 연령	20대	25	12.4
	30대	161	80.1
	40대	15	7.5
	계*	201	100.0
모의 연령	20대	37	18.1
	30대	157	77.0
	40대	10	4.9
	계	204	100.0
부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34	17.3
	전문대 졸업	31	15.7
	대학교 졸업	102	51.8
	대학원(석사) 졸업	27	13.7
	대학원(박사) 졸업	3	1.5
	계	197	100.0
모의 학력	중학교 졸업	1	0.5
	고등학교 졸업	31	15.2
	전문대 졸업	50	24.5
	대학교 졸업	98	48.0
	대학원(석사) 졸업	23	11.3
	대학원(박사) 졸업	1	0.5
	계	204	100.0

구분		빈도*	%
부의 직업	무직	1	0.5
	자영업	15	7.7
	전문직	31	15.7
	회사원	107	54.9
	서비스직	5	2.6
	생산직	4	2.1
	교직원	5	2.6
	기술직	13	6.7
	군인	5	2.6
	기타(공무원, 성직자 등)	9	4.6
	계	195	100.0
모의 직업	무직(전업주부)	125	61.3
	전문직	15	7.3
	회사원	32	15.7
	서비스직	7	3.4
	생산직	1	0.5
	교직원	18	8.8
	기술직	4	2.0
	기타(공무원, 강사 등)	2	1.0
	계	204	100.0
거주 지역	서울	48	23.5
	경기/인천	81	39.7
	대전/충남/충북	13	6.4
	광주/전남/전북	20	9.8
	대구/경북	13	6.4
	부산/울산/경남	23	11.3
	강원	6	2.9
	계	204	100.0

* 빈도: missing value에 의해 차이가 남

나. 측정 변인과 도구

1) 애착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ers(1987)에 의해 개정된 Q-set 을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이영 외(1997)에 의해 평정된 한국형 애착 Q-set 사용

하였다. Q-set¹⁾은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9점까지 분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각 항목은 특정 영역의 성격, 태도,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한 행동이나 특정 맥락에서의 행동들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점수와의 상관을 통해 측정되는 애착 점수와 더불어 가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애착 관련 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Pederson과 Moran(1996)에 의해 추출된 하위척도 분류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개념별 척도의 세부 구성은 아래의 <표 II-2-1>과 같다.

<표 V-2-3> 애착 Q-set 하위영역

하위영역	구성영역 정의	문항 수	평균	표준 편차
순응성	양육자의 요구나 명령에 순종하는 정도	6	5.43	0.92
안전기지	양육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14	4.93	0.55
까다로움 / 예민함	아동의 행동이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	14	4.05	0.74
신체접촉의 즐거움	양육자가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5	6.30	1.44
감정 공유	양육자와 자신의 느낌과 행동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정도	3	6.59	1.35

2) 영아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가 2006년 개발한 기질척도 중 18~36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작된 ECBQ(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양육자에 의해 평정되는 ECBQ는 Putnam, Garstein 및 Rothbart(2006)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질 도구로서 3가지 기질 개념을 토대로 구성된 18개의 척도의 20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부터 7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일 주어진 문항에 대해 영아의 행동이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해당 없음(NA)'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점수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각 개념별 척도의 세부 구성은 아래의 <표 II-2-2>와 같다.

1) Q-set에 대한 자세한 도구 설명은 심층조사보고서의 도구설명 부분(5~8쪽)을 참조할 것.

〈표 V-2-4〉 기질(ECBQ) 하위영역 및 세부요인

하위영역	세부요인	구성영역 정의	문항 수	평균	표준 편차
외향성 (Extraversion Surgency)	활동수준 (Activity level)	운동 속도 및 강도를 포함한 대근육 활동의 수준	12	49.97	10.26
	강한 기쁨 (High-intensity Pleasure)	강렬하게 자극이 되는 놀이나 활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정도	12	50.02	9.92
	충동성 (Impulsivity)	행동을 개시하는 시작 속도의 정도	10	50.18	9.92
	운동 활성화 (Motor Activation)	일상생활에서의 반복적인 작은 활동 움직임	11	50.12	10.00
	접근기대 (Positive Anticipation)	즐거운 활동을 기다리면서 보이는 흥분과 기대감의 정도	11	50.06	9.98
	안김 (Cuddliness)	양육자에게 포근하게 안겨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12	50.04	10.04
	수줍음 (Shyness)	새롭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동을 억제하는 정도	12	50.00	10.05
	사회성 (Sociability)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타인과 관계 맺기를 하고자 하는 동기 수준	8	49.96	10.02
부정적 정서 (Negative Affect)	불안 (Discomfort)	빛, 움직임, 소리, 촉감 등의 정도, 비율, 복잡성 등과 같은 자극의 감각적 특성에 관한 부정적 반응의 정도	10	49.98	10.04
	두려움 (Fear)	예측된 고통이나 고난, 잠재적으로 위험적인 상황과 관련된 불편함, 걱정과 긴장을 보이는 정도	11	49.95	10.04
	슬픔 (Sadness)	고통, 실망, 손실에 노출되었을 때 기분이 나빠지거나 가라앉는 정도	12	50.05	10.04
	반응진정성 (Soothability)	극도의 고통, 흥분시로부터 평소의 기본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	9	50.03	10.04
	분노/좌절 (Frustration)	진행 중인 과제에 방해나 차단을 당했을 때 보이는 부정적 반응	12	49.99	10.03
주의통제 (Effortful Control)	주의집중 (Attentional Focusing)	과제를 할 때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	12	50.09	10.02
	주의전환 (Attentional Shifting)	과제를 할 때 주의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	12	49.99	10.01
	억제 통제력 (Inhibitory Control)	지시에 따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	12	49.95	10.03
	낮은 기쁨 (Low-intensity Pleasure)	강렬한 자극보다는 약하고 낮은 강도를 가진 자극 혹은 활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정도	11	49.99	10.02
	지각민감성 (Perceptual Sensitivity)	촉감, 청각, 시각 등과 같은 외부자극의 작은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하는 정도	12	49.95	10.01

다. 연구 절차와 분석

1) 대상 선정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일반 조사 대상 가구 중 1차년도(2008년) 조사 참여와 상관없이 2차년도(2009년)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한 패널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중도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22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조사 완료 대상은 206가구이다.

<표 V-2-5> 제1차 심층조사 표본 배분 및 실제 표집 수

단위: 명

권역	지역	1차년도 최종표본	제1차 심층조사 표본	선별 표본 수	최종 추출 표본 수 ²⁾	실제 표집 수
수도권	서울	993	95	142	28	134
	경기					
	인천					
충청/강원권	충남	271	26	14	2	14
	충북					
	대전					
경북권	강원	240	23	17	2	16
	경북					
경남권	대구	348	34	24	2	22
	경남					
	부산					
전라권	울산	226	22	20	2	19
	전남					
	전북					
광주						
계		2,078	200	220	36	205

참여 대상은 2009년 9월 중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icce.re.kr/panel>)를 통해 심층조사 신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이에 앞서 신청 대상자들에게 홈페이지 공지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신청 접수 일정을 공지하였다.

1차년도에 시행한 K-ASQ와 Denver I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위험군으로 선별된 아동은 심층조사에 우선 참여시키고자, 해당 가구에 심층조

2) 선별된 패널은 1차년도 K-ASQ와 Denver II 검사에서 발달위험군으로 판별된 아동을 의미함.

사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심층조사의 원활한 조사 계획을 위하여 목표 수 200가구를 권역별로 배정하는 심층조사 대상 표본의 수는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홈페이지에 각 권역별 조사장소를 공지한 후, 원하는 장소를 1, 2지망으로 나누어 신청하도록 하였다. 제1차 심층조사 수행을 위한 지역별 표본 배분은 다음 <표 III-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본 아동패널연구 심층조사는 15개시도(제주도 제외) 중 심층조사 대상 수 대비 협력연구진에 해당하는 거점 대학 수를 확정된 후 해당 권역 내전문가를 확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심층조사 검사자 훈련

심층조사는 거점 대학을 기준으로 검사 도구에 대한 세미나를 수료한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학 전공 대학원생에 의해 진행되었다.³⁾ 각 검사 실시 방법, 검사 보고서 작성 및 전반적인 심층조사 운영 방식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검사자 간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4) 심층조사 방법

제1차 심층조사에서는 K-BSID II, 애착 Q-set, ECBQ, PAI의 네 개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K-BSID II는 검사자 훈련을 거친 전문조사원들이 상주하는 권역별 지정 검사 장소로 신생아와 주 양육자가 방문하여 검사실에서 실시하였다. 단, 권역별 심층조사 대상 배정 시 그 수가 너무 적었던 강원권의 세 가구는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의 검사 장소 중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구방문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 중 애착 Q-Set의 경우 K-BSID II 실시 전후에 주 양육자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ECBQ와 PAI는 사전에 질문지를 각 심층조사 대상 가구에 발송하여 검사 당일에 수거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3) 심층 조사 검사 도구 중 K-BSID II는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심층조사 검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함.

라. 자료 분석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기질 요인들의 공차를 살펴보면, .816에서 1.000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된다.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가정 중의 하나인 잔차의 독립성 가정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산출된 Durbin-Watson 지수의 경우, 1.881에서 2.151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다.

3. 연구결과

가. 기질의 하위영역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에 의해 인식된 '순응성', '안전기지', '까다로움/예민함', '신체접촉의 즐거움', '감정 공유'와 같은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관계의 하위영역에 대한 영아의 기질적 특성인 '외향성', '부정적 정서', '주의통제'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V-3-1>과 같다.

<표 V-3-1> 영아의 외향성, 부정적정서, 주의통제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tolerance	Adj R ²
순응성	1) 외향성	-.049	-.256	-3.59***	.898	.071
	2) 주의통제	.032	.227	3.18**	.898	
까다로움/ 예민함	1) 주의통제	-.025	-.224	-3.27**	1.000	.045
	신체접촉 의 즐거움	.074	.249	3.65***	1.000	.057

** $p < .01$. *** $p < .001$.

먼저, 애착의 하위 영역 중 순응성은 영아의 외향성이 적을수록($t = -3.59, p < .001$) 주의통제력이 강할수록($t = 3.18, p < .01$) 어머니가 인식하는 순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아의 기질 하위영역 중, 외향성과 주의통제는 어머니에 의해 지

각된 영아와의 애착관계 중 순응성 영역에 7.1%의 영향력을 미쳤다.

애착의 하위 영역 중 까다로움/예민함은 영아의 주의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t=-3.27, p<.01$) 어머니가 영아를 까다롭거나 예민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주의통제력은 애착 하위영역 중, 까다로움/예민함을 4.5%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애착의 하위 영역 중에서 신체접촉의 즐거움은 영아의 외향성이 강할수록($t=3.65, p<.01$)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영아의 애착 하위 영역 중 신체접촉의 즐거움에 5.7%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관계 하위영역 중 '안전기지', '감정공유'에서는 영아의 기질 하위영역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나. 기질 세부요인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기질의 하위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애착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질 세부요인이 애착의 하위영역 중 '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기질 세부요인 중 억제 통제력이 높을수록($t=5.30, p<.001$), 접근 기대가 약할수록($t=-2.24, p<.05$), 사회성이 낮을수록($t=-2.04, p<.05$) 어머니가 인식하는 영아의 순응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녀의 억제 통제력, 접근 기대, 사회성과 같은 기질의 3가지 세부요인은 애착관계의 하위 영역 중 순응성에 14.2%의 영향력을 갖는다.

〈표 V-3-2〉 기질 세부요인이 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B	β	t	tolerance	Adj R ²
1) 억제 통제력	.032	.351	5.30***	.965	
2) 접근 기대	-.015	-.158	-2.24*	.848	
3) 사회성	-.013	-.145	-2.04*	.834	
					.142

* $p<.05$. *** $p<.001$.

2) 기질 세부요인이 애착의 하위영역 중 ‘안전기지’에 미치는 영향

〈표 V-3-3〉 기질 세부요인이 안전기지에 미치는 영향

	B	β	t	tolerance	Adj R ²
1) 주의 전환	.008	.141	2.02*	1.000	
					.015

* $p<.05$.

영아의 보이는 주의전환 능력이 강할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애착의 안전기지 영역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t=2.02, p<.05$). 이와 같은 영아의 기질 세부요인 중 주의전환 능력은 어머니와 영아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위한 안전기지를 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질 세부요인이 애착의 하위영역 중 ‘까다로움/예민함’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기질 세부요인 중 억제통제력이 낮을수록($t=-2.49, p<.05$), 낮은 강도의 기쁨을 즐기지 않을수록($t=-2.58, p<.05$), 분노/좌절감에 대한 표현이 강할수록($t=2.06, p<.05$) 어머니가 인식하는 까다로움/예민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가지 기질의 세부요인은 까다로움/예민함에 대해 9.1%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V-3-4〉 기질 세부요인이 까다로움/예민함에 미치는 영향

	B	β	t	tolerance	Adj R ²
1) 억제통제력	-.013	-.176	-2.49*	.896	
2) 낮은 기쁨	-.013	-.181	-2.58*	.908	
3) 분노/좌절	.010	.140	2.06*	.971	
					.091

* $p<.05$.

4) 기질 세부요인이 애착의 하위영역 중 ‘신체접촉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기질 세부요인 중 안감을 즐길수록($t=5.54, p<.001$), 수줍음을 보일수록($t=2.778, p<.01$), 억제 통제력이 낮을수록($t=-2.99, p<.01$), 낮은 강도의 기쁨을 즐길수록 어머니는 자녀가 애착을 위한 신체접촉의 즐거움을 표현한다고 인식하였다. 4가

지 기질의 세부요인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영아와의 애착 관계의 하위영역 중 신체 접촉의 즐거움에 20.9%의 설명력을 가졌다.

〈표 V-3-5〉 기질 세부요인이 신체접촉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B	β	t	tolerance	Adj R ²
1) 안김	.054	.379	5.54***	.832	.209
2) 수줍음	.025	.176	2.78**	.978	
3) 억제 통제력	-.028	-.198	-2.99**	.888	
4) 낮은 기쁨	.024	.164	2.37*	.816	

* $p<.05$. ** $p<.01$. *** $p<.001$.

5) 기질 세부요인이 애착의 하위영역 중 '감정공유'에 미치는 영향

〈표 V-3-6〉 기질 세부요인이 감정공유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B	β	t	tolerance	Adj R ²
1) 수줍음	.024	.181	2.64**	.993	.047
2) 지각 민감성	.023	.168	2.45*	.993	

* $p<.05$. ** $p<.01$.

마지막으로 애착의 하위영역 중 감정공유 즐거움은 자녀가 수줍음을 보일수록 ($t=2.64$, $p<.001$), 지각 민감성이 예민할수록($t=2.45$, $p<.05$) 높았다. 기질의 2가지 세부요인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영아와의 애착 관계의 하위영역 중 신체접촉의 즐거움에 4.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생득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기질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아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아의 고유 기질 특성들이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형성에 있어 세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기질 하위영역과 세부요인에 따라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 있어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애착관련 행동 특성의 차이를 나타냈다.

첫째, 기질의 하위영역이 애착유형을 형성하는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순응성에는 외향성은 부적방향으로, 주의 통제는 정적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목욕을 하는 동안 물을 튀기며 노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성이 큰 움직임이 적고, 어머니의 지시나 말을 잘 따르는 것과 같이 주의통제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느끼는 영아의 순응성이 높았다.

이는 영아들이 생리적으로 규칙적이고, 반응표현이 격렬하지 않으며, 긍정적 기분을 많이 지니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길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성이 높을수록 교사들과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반응표현의 강도가 격렬하지 않고 부정적 기분을 적게 가지는 것이 애착안정성 점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김선정, 1998; 박수윤, 2004; 박지희, 1996; 이상은·신건호, 2003; 조영아·김수영, 2009; 홍계옥, 2006; Lewis & Feiring, 1989; Vaughn et al., 1992).

또한, 까다로움/예민함에 대해 영아의 주의통제력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영아가 놀이에 집중력을 보이거나 방해받더라도 쉽게 진행하던 활동으로 돌아오는 등 주의통제력이 높은 경우에 어머니는 영아를 까다롭거나 예민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적었다.

이는 보육시설에서 유아의 짧은 집중시간은 교사에게 지도상의 어려움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교사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고된 조영아·김수영(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유아의 지나친 활동성이 교사 또는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부적상관을 보인 것(김선정, 1998; 홍계옥, 2006; Pederson et al., 1990)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신체접촉의 즐거움에 대해 영아의 외향성이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영아의 외향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어머니는 영아가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종종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포근하게 안겨 있는 것을 선호하며, 친숙한 어른이나 아동들과의 집단 활동을 좋아하는 기질적 특성이 강할수록 스킨십과 같은 신체적 접촉의 즐거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아의 외향적인 기질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천희영, 1992; 최영희, 1991; Stifer et al., 1993)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둘째, 기질의 하위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기질의 세부요인이 애착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의 하위영역 중 순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기질의 세부요인은 억제 통제력, 접근 기대, 사회성이 나타났다. 즉, 영아가 좋아하는 것을 놓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억제통제력이 높을수록, 놀이터 가기와 같은 즐거운 활동을 기다리면서 보이는 흥분과 기대감의 정도가 낮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타인과 관계 맺기를 하고자 하는 동기 수준이 약할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이의 순응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의 하위영역 중 안전기지에는 기질의 세부요인 중 주의 전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놀이를 할 때 주의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양육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나타내는 안전기지 특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낯선 곳에 가면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자주 깬다거나 부모와의 분리 상황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해 오랜 시간 경계하는 영아일수록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며, 따라서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구운경·이양희(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적응성과 안정적인 애착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홍계옥, 1994)과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주의전환능력이 높아서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질 특성이 영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안정애착에 기여하는 안전기지를 삼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애착의 하위영역 중 까다로움/예민함 특성에 대해 기질의 세부요인 중 억제통제력, 낮은 기쁨, 분노/좌절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을 때 금지한 행동을 지속하거나,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 등의 부드럽고 낮은 강도를 가진 활동을 즐기지 않을수록, 즐거운 활동을 방해받거나 차단당했을 때 보이는 부정적 반응이 클수록 어머니는 영아를 까다로움/예민함이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결과는 영아의 기질과 모성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구운경, 이양희(1999)의 결과에서 나타난 영아의 기질 중 반응역과 모성접수간의 부적 상관에 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영아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질수록 어머니들은 영아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영아들이 자극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다. 이런 결과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영아들이 오히려 어머니의 몰입된 접촉이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들(유명희, 1990; Bates et al., 1982; Crockenberg & Smith, 1982)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애착의 하위영역 중 신체접촉의 즐거움에 대해 기질의 세부요인 중 안김, 수줍음, 자극의 통제, 낮은 기쁨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영아가 포근하게 안겨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클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뒤로 물러서거나 부모에게 매달리는 등 낯선 사람을 피해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어머니는 영아가 신체접촉을 즐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지시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약할수록, 햇빛이 드는 곳에 조용히 앉아있거나 어머니가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것과 같은 행동을 즐길수록 어머니는 영아가 신체접촉을 즐기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애착의 하위영역 중 감정공유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세부요인은 수줍음, 지각 민감성이었다. 이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낯선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같이 어울려 놀기보다는 천천히 다가가거나 그냥 바라만 보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클수록, 엄마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자신과 부모의 작은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할수록, 어머니는 영아와 감정공유의 즐거움을 크게 느낀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세부적인 기질특성이 애착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결과, 어머니에 의해 지각된 영아의 기질적 특성들이 어머니와 영아 간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참 고 문 헌

- 구운경·이양희(1999). Q-set를 이용한 애착 안정성과 모성행동 및 영아의 기질간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김선정(1998). 유아와 교사의 기질에 따른 유아-교사 간 애착 안정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경(1998). 영아-어머니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윤(2004). 유아의 기질 및 자아개념과 교사-유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 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지희(1996). 영아와 교사 간 애착 안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명희(1990).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은·신건호(2003).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3), 165-185.
- 이영·박경자·나유미(1997). 애착 Q - 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영환(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희(1994). 취업모와 자녀 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영아·김수영(2009). 영아의 기질 요인에 따른 영아-교사 간 애착 안정성 및 또래 간 상호작용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207-229.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희(1991).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계옥(1994).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계옥(2006). 교사, 유아의 기질 및 교사-유아 간 애착 안정성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1(2), 25-41.
- Bates, J. E., Maslin, C. A., & Frankel, K. A. (1985). Attachment security,

-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problem ratings at age three years.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Serial No. 209). 167-193.
- Bates, J. E., Olson, S. L., Pettit, G. S., & Bayles, K. (1982). Dimension of individuality i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at six month of age. *Child Development*, 53, 446-461.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3: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128.
- Crockenberg, S. B., & Smith, P. (1982). Antecede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irritability in the first three month of lif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 105-119.
- Goldsmith, H. H.,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Lewis, M., & Feiring, C. (1989). Infant, mother,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behavior and subsequ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0, 831-837.
- Mangeldorf, S., Gunnar, M., Kestenbaum, R., Lang, S., & Andreas, D. (1990). Infant proneness-to-distress temperament, maternal personality, and mother-infant attachment: Associations and goodness of fit. *Child Development*, 61, 820-831.
- Pederson, D. R., & Moran, G. (1996). Expression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outside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7(3), 915-927.
-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 386-401.
- Rothbart, M. (2006). Mary Rothbart's temperament questionnaires. <http://www.bowdoin.edu/~sputnam/rothbart-temperament-questionnaires/>에서 2009년 6월 18일에 인출.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Stifer, C. A., Coulhan, C. M., & Fish, M. (1993). Linking employment to attach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interact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64, 1451-1460.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 Child care and children's peer interaction at 24 and 36 months: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2(5), 1478-1500.
- Vaughn, B. E., Hinde, J. S., Waters, E., Dotsaftis, A.,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463-473.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version 3.0)*. Unpublished man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VI. 인생초기 경험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임신기 및 출산 시 변인을 중심으로

이정원·왕영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위촉연구원)

1. 서론

한 인간이 특정한 타인과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애착은 다양한 발달이 활발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생애 초기인 영아기에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발달 사안 중 하나이다. 영아기에는 애착이 영아와 양육자(주로 어머니) 간에 형성이 된다. 영아기 애착 형성에 관한 여러 이론 중 Freud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인간의 초기 경험이 애착 형성을 포함한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Bowlby(1969)의 애착이론에서는 부모의 행동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영아와의 유대형성에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영아의 인생에서 초기 몇 달 동안 어머니와 영아가 물리적으로 밀접하게 지내는 근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애착연구자들은 부모가 되기 전부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생각이 장차 부모로서의 행동의 정서적 질과 아동의 발달을 예측한다고 지적한다 (Ispe, Sable, Porter, & Csizmadia, 2007; Miller, Sable, & Beckmeyer, 2009).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뱃속의 아기에게 애착을 형성하기 때문에 영아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임신 계획의 유무라고 가정할 수 있다(정옥분·정순화·황현주, 2009). 임신에 대한 계획 및 수용과 영아의 애착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의도 되지 않은 임신이 가져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양적인 연구들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산후 불안과 우울이 더 심하다고 한다(Ispe et al., 2007). 대규모의 종단적 연구인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 1999)도 임신의 계획성 여부와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영아와 부모의 상호작용 및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의 Swain, Tasgin, Mayes, Feldman, Constable와 Leckman(2008)은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과 제왕절개수술로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 각각 6명을 대상으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그때 산모들의 뇌 반응을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로 촬영한 결과, 자연분만을 한 산모들이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은 산모들보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연분만이 어머니와 아기의 유대감을 더욱 높인다는 의미이다.

분만초기의 경험 및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 형성 과정의 원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Klaus와 Kennel(1976, 1996)은 생후 몇 분에서 며칠에 걸쳐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에 가장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가 있어서 산모와 신생아의 유대관계가 다른 시기보다 이 시기 동안에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기 동안의 친밀한 피부 접촉이 애착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생아와 산모와의 친밀성 발달의 중요한 요인을 찾으려고 시도한 Mercer와 Ferketich(1990)는 어머니와 영아의 신체적 접촉은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산육기의 처음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의 조기접촉 여부가 산모와 신생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신생아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모성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다(성미혜·김미경, 2005). 실제로 임신을 하고 있는 46가구와 생후 7일, 1개월 그리고 6개월에 인터뷰를 실시하고 행동을 관찰한 Peterson과 Mehl(1978)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 애착의 차이를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와 영아의 분리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어머니와 신생아의 분리가 덜하면 애착이 더 하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인은 출산 경험, 진통 시간, 태내 태도와 기대로 밝혀졌다.

Bowlby(1959)는 영아의 행동 중 젖 빨기, 매달리기, 따라다니기, 울기, 미소 짓기 등 다섯 가지 구체적인 행동 반응은 어머니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고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촉진시킨다고 하였고, Freud는 아기가 수유를 담당하는 대상에 대해 정서적인 선호현상을 보이는 것이 애착관계라고 보았다. 실제로 모유 수유 어머니는 인공 수유 어머니보다 영아와의 상호관계에 몰두하며 어머니와 영아와의 상호작용 점수가 높았다(Dunn & Richard, 1977).

영아기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 두 당사자인 영아와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영아들이 받는 양육의 질, 가정의 특성 또는 정서적 분위기 및 영아들 자신의 기질이 있으며(Shaffer, 2009), 이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

여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태내 환경, 출생 관련 변인 및 영아가 인생 초기에 겪는 경험이 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3년 동안 국내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애착관련 논문, 총135편을 분석한 연구(김미정과 강인설, 2008)에 의하면 아동기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1편뿐이었다.

영아의 발달단계와 관련해서 애착을 네 단계로 설명하는 Bowlby(1969)에 의하면,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Attachment in the making)는 생후 6주 ~ 8개월 사이이므로, 이 시기동안 영아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태내와 인생초기에 겪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계획된 임신 여부와 그에 관련된 어머니의 정서, 태어나면서의 경험으로는 출생 방법(산모의 편에서는 출산 방법)과 출산 후 어머니의 느낌, 그리고 영아기의 중요한 초기 경험으로 출생 후 어머니와 영아의 접촉, 모유 수유 등과 영아기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를 탐색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영아의 초기 경험과 애착 안정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II. 영아의 애착 안정성은 초기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2009의 1차 심층조사에 참여한 206 패널 중 한국아동패널 2008의 1차년도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 한 사례와 아버지가 심층조사에 참여한 패널 1사례를 제외한 영아기 아동과 어머니 204쌍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한국아동패널 2008의 1차 일반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와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심층조사에 참여한 206 패널의 특성과 일반조사에 참여한 패널의 특성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22~50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나. 측정변인과 도구

1) 임신, 출산 및 양육관련 변인

임신, 출산 및 양육관련 변인은 모두 어머니에게 병원용 또는 면접용 질문지를 실시하여 조사되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1차년도인 2008년도의 일반조사 실시에 앞서 예비표본을 모집을 위하여 산모가 패널 아동을 출산한 직후 입원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때 간략한 병원용 질문지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면접 조사하였고, 2008년도의 일반조사는 아기가 생후 4개월 때에 가정방문을 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처음 5개의 질문 내용은 병원용 질문지에 포함되어 있고, 모유수유는 가정 방문으로 이루어진 면접용 질문지에 포함되어있다.

가) 계획된 임신 여부

임신/출산 관련 특성 도구에 수록되어 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방식으로 어머니에게 실시되었다. NICHD(1999)의 'Your Pregnancy'에서 임신관련계획 문항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응답하도록 되어 총 2개 문항이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임신 계획을 어머니가 한 번에 응답하도록 하나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기의 어머니인 나만 계획하거나 바램', '아기의 아버지인 배우자(또는 동거자)만 계획하거나 바램', '나와 배우자(또는 동거자) 모두 계획하거나 바램', '나와 배우자(또는 동거자) 모두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았음'의 4개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 여부

위의 문항에서 '아기의 어머니인 나만 계획하거나 바램'에 응답한 집단(어머니가 계획한 집단)과 나머지 세 개에 응답한 집단(어머니가 계획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여부' 변인을 생성하였다.

(2)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계획한 임신 여부

어머니, 아버지 중 누구라도 계획한 임신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 세 개에 응답한 집단(계획임신)과 '나와 배우자(또는 동거자) 모두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았음'(비계획임신)으로 나누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계획한 임신 여부' 변인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이 두 개의 변인은 더미화하였다.

나)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

임신/출산 관련 특성 도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방식으로 어머니에게 실시되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와 출산 직후의 느낌을 '매우 기뻐다', '다소 기뻐다', '기쁜 마음과 난감하고 불행한 느낌이 교차하였다.', '다소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다',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다'의 5개 응답 중 하나로 측정하였다.

다) 출산 후 접촉

출산의 한 변인인 출산 후 접촉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아동학회와 한솔교육문화연구원(2001) 및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 위원회(2005) 및 성미혜와 김미경(2005)은 출산 후 접촉을 각각 분만 직후 1시간 이내 또는 30분 이내 아기와의 신체접촉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아동패널 2007의 예비조사 결과 현실을 반영하여 분만 직후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보았는가의 질문에 '그렇다'와 '아니다'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라) 분만형태

출산을 측정하는 도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분만형태에 대한 질문은 한국아동학회와 한솔교육문화연구원(2001)의 분만형태 문항을 산부인과 전문가와 함께 검토 후 수정하여, 문항의 보기를 '정상분만', '계획된 제왕절개',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로 구분하였다.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는 분만에서의 응급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분만형태를 의미한다.

마) 모유수유

모유수유 문항은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CAPI) 방법을 이용한 면접조사용 질문지에 수록이 되어있다. 아동의 건강특성 중 한 변인인 모유수유는 전국적으로 3년 주기로 수행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김승권·조애저·김유경·도세록·이건우, 2006)'의 모유수유 관련 문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인공유와 혼합하여 모유를 수유한 경우는 모유수유에 포함하지 않은 반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완전 모유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나마 모유수유를 하면서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산모는 수유 시도를 그

만들 때까지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며칠에 한번 아주 소량이라도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 모유수유 중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예'와 '아니다'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2) 아동의 애착 안정성

종속변인인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한국형 애착 Q-set(이영·박경자·나유미, 1977)을 사용하여 심층조사에서 측정되었다. 도구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의 6~8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다. 연구 절차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제1차년도인 한국아동패널 2008은, 한국아동패널 표집 틀을 이용하여 선정된 전국의 연간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산부인과에서 2008년 4~8월에 출생한 아동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병원에서 간단한 병원용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대상 패널 아동이 4개월이 되었을 때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CAPI를 이용한 면접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제1차 심층조사¹⁾가 실시되었고, 이때 애착 Q-set을 통하여 심층조사에 참여한 패널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 성향으로써, 특히 임신·출산기간에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와 아동의 '초기 경험'이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변인은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여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계획임신 여부',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의 어머니의 기분', '출산 직후 기분', '출산방법', '출산 직후 아기를 안아봤는지 여부(출산 직후접촉여부)' 및 출생 후 4개월 당시 조사한 '모유수유 여부'와 애착 안정성을 나타내는 'Q-set 상관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아동패널 심층조사 대상자들의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임신·출산 시 초기 경험의 양상은 어떠한지, 종속변수인 아동의 애착 안정성(Q-set 상관계수)과 독립변수인 '초기 경험'들이 어떠한 관계 양상을 보이며, 초기경험과 애착 안정성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을 나타내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1)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제1차 심층조사 절차는 본 보고서의 13~21쪽을 참고할 것.

라. 분석 방법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SPSS 14.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측정 변인의 빈도분석과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의 특성에 따라 심층조사 응답자의 하위 집단별로 Q-set 상관계수의 평균점수 차이가 유의한지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심층조사 대상자의 특성

1)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

심층조사에 참가한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아동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VI-3-1>와 <표 VI-3-2>에 나타난 바와 같다²⁾.

심층조사 시 아동의 월령 범위는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였고, 평균월령은 17.19개월이었다(표 VI-3-1 참조).

아동의 특성에서 성별은 남아가 52.5%를 차지하여 여아보다 약간 많았고, 출생순위는 첫째와 둘째인 경우가 92.6%로 대부분이며, 특히 첫째의 비중이 약 60%에 달하였다(표 VI-3-2 참조).

아동의 건강상태에서 조산의 기준인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경우는 심층조사 대상 중 2.5%로 대부분 39~41주 사이에 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저체중아의 기준인 출생 시 몸무게 2.5kg 미만으로 출생한 경우는 2.0%로, 심층조사 대상 아동은 대부분 정상적인 시기에 건강하게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직후 입원실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3.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응급 상황을 의미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4.4%로 낮은 편이지만, 저체중아나 조산이 아닌 경우에도 출생 시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204쌍의 영아기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결과임.

〈표 VI-3-1〉 심층조사대상 아동의 심층조사 시 월령

단위: 명, %

구분	개월	빈도	%	평균
아동 월령	15개월	5	2.5	17.19
	16개월	42	20.6	
	17개월	81	39.7	
	18개월	63	30.9	
	19개월	11	5.4	
	20개월	2	1.0	
계		204	100.0	

〈표 VI-3-2〉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심층조사 대 일반조사)

구분			비율(%)		평균	
			심층조사 대상자	일반조사 대상자	심층조사 대상자	일반조사 대상자
아동의 특성	성별	남	52.5	50.8	-	-
		여	47.5	49.2	-	-
	출생순위	첫째	58.8	47.5	1.5째	1.6째
		둘째	33.8	41.6		
셋째 넷째이상		6.4 1.0	9.6 1.3			
아동의 건강 상태	재태기간	임신 37주 미만	2.5	3.0	39주(출 산예정일 -4.57일)	39주(출 산예정일 -5.44일)
		임신 37주~38주 미만	9.8	7.8		
		임신 38주~39주 미만	22.1	29.1		
		임신 39주~40주 미만	30.4	29.6		
		임신 40주~41주 미만	28.4	24.2		
	임신 41주 이상	6.9	6.2			
	출생 시 몸무게	2.0~2.5kg미만	2.0	2.9	3.29kg	3.26kg
		2.5이상~3.0kg미만	18.6	19.8		
		3.0이상~3.5kg미만	52.5	48.5		
		3.5이상~4.0kg미만	21.1	23.8		
출생 시 치료여부	4.0kg 이상	5.9	5.1			
	치료받지 않음	86.3	86.2	-	-	
	입원실 치료 신생아 집중치료실치료	9.3 4.4	10.5 3.2			
어머니 의 특성	연령	25세 미만	2.0	3.2	31.2세	31.1세
		25세 이상~30세 미만	30.4	31.7		
		30세 이상~35세 미만	52.9	48.2		
		35세 이상~40세 미만	12.7	15.4		
		40세 이상	2.0	1.6		

구분			비율(%)		평균	
			심층조사 대상자	일반조사 대상자	심층조사 대상자	일반조사 대상자
학력	고등학교 졸업	15.8	31.1	-	-	
	대학(2·3년제) 졸업	32.0	28.1			
	대학교 졸업	40.4	34.5			
	대학원 졸업(석사)	10.8	6.0			
	대학원 졸업(박사)	1.0	0.3			
결혼기간	5년 미만	74.5	69.5	3.1년	3.7년	
	5년 이상~10년 미만	20.1	25.1			
	10년 이상	4.4	5.6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21.7	31.5	350만원	321.2만원	
	200~300만원 이하	30.4	35.4			
	300~400만원 이하	21.2	17.6			
	400~500만원 이하	14.8	9.6			
	500만원 초과	11.8	5.9			

심층조사에 참여한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심층조사 대상 아동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1.2세이고, 30세~35세 미만인 30대 초반의 어머니가 52.9%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15.8%였고, 84.2%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학력과 함께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 수 있는 가구소득은 평균 3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가장 많은 비율이 분포하고 있었다. 월평균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가구는 11.8%를 차지하였다. 2008년, 4분기 3인 가족 기준³⁾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359,265원, 전체 평균이 2,966,876원인 것을 감안하면,⁴⁾ 심층조사 대상자의 가구소득은 2008년도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의 결혼기간은 평균 3.1년으로써, 74.5%가 결혼기간 5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층조사에 참가한 대상들은 대부분 결혼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심층조사 대상자의 평균 결혼기간이 짧고 어머니의 연령 평균이 31.2세로 비교적 젊은 계층인 것이 심층조사 대상 아동에 첫째 비율이 높은 결과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아동패널 조사대상자의 가구형태가 대부분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이며, 본 심층조사 대상자의 자녀가 첫째인 경우가 많아 3인 가구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3인 가족으로 설정하였음.
 4) 2008년도 4분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러한 심층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일반패널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대체로 차이가 없으나, 아동의 출생순위에 있어 심층조사 대상자의 경우 '첫째'의 비율이 일반조사 대상자에 비해 10% 정도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두 집단의 '결혼기간'에서 일반조사 대상자가 평균적으로 결혼기간이 더 긴 것과 관련된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심층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패널조사 대상자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층조사 참여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 대졸이상의 학력이 일반조사 대상자 대비 15%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가구소득 평균도 약 28만 원 정도 높아, 비슷한 연령대 임에도 불구하고 심층조사 대상자들은 학력과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소 높은 집단임을 추정할 수 있다.

2) 임신·출산 시 초기경험의 특성

심층조사 대상자의 임신·출산 시 초기 경험의 특성을 일반패널조사 대상자의 응답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VI-3-3>과 같다.

임신기의 초기 경험으로 패널아동의 임신에 대한 계획성과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을 살펴보았는데, 심층조사 대상자와 일반패널조사 대상자의 응답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의 임신을 어머니, 아버지 혹은 부부 모두가 계획한 경우가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혼자 계획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머니의 계획이 포함된 경우도 75% 정도로 나타나, 최근 결혼한 부부의 임신은 '계획'과 '합의'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양상임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표 VI-3-3> 초기경험의 특성(심층조사 대 일반조사)

단위: %

구분	변인	응답	심층조사	일반조사
	어머니의 계획여부	그렇다	76.5	74.6
		아니다	23.5	25.4
임신기의	계획임신 여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계획임신임	83.3	82.3
		계획임신 아님	16.7	17.7
초기 경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	매우 기뻐움	71.6	69.7
		다소 기뻐움	16.2	16.2
		기쁜 마음과 난감하고 불행한 느낌이 교차함	11.3	12.8
		다소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	1.0	1.2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	0.0	0.1

구분	변인	응답	심층조사	일반조사
출산기의 초기경험	자연분만 여부	자연분만임	57.4	55.4
		제왕절개분만임	42.6	44.6
	출산 직후 기분	매우 기뻐움	79.4	82.8
		다소 기뻐움	15.2	13.1
		기쁜 마음과 난감하고 불행한 느낌이 교차함	5.4	3.9
		다소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	-	0.2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	-	-
	출산 직후 아기와의 접촉여부	출산 직후 아기를 안아봄	73.5	69.9
		출산 직후 아기를 안아보지 못함	26.5	30.1
	생후 4개월 당시 모유 수유여부	모유수유 함	69.6	62.0
모유수유하지 않음		30.4	38.0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기분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조사 대상자의 87.8%, 일반패널조사 대상자의 85.9%가 ‘매우’ 혹은 ‘다소’라도 기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고, 불행하거나 난감한 감정을 느꼈던 경우는 약 1% 정도로 매우 미미하였다. 대상자의 대다수가 부부의 계획과 합의에 의해 최근의 임신이 이루어졌다는 위의 응답결과와 비교할 때, 이 결과는 임신 사실에 대해 보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된다. 다만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경우나 계획을 했더라도 막상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기쁜 마음과 함께 난감함을 느끼는 양가감정을 보이는 경우도 약 10% 정도의 응답자가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출산기의 초기 경험을 살펴보면 심층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들이 자연분만, 출산 후 아기와의 첫 접촉, 모유수유 비율이 일반 대상자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후 4개월 당시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심층조사 응답자의 경우 일반응답자에 비해 약 7.6% 높아 모유수유를 많이 하는 특성을 보였다.

출산 직후의 기분은 심층조사대상자와 일반조사대상자 모두 약 95% 정도가 ‘매우 기쁘거나’ 또는 ‘기쁜’ 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대부분 ‘기쁜 마음과 난감함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던 것으로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경우는 거의 없어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임신을 알았을 때의 기분과 비교하면 출산 시에는 더욱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임신·출산기 초기 경험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

본 절에서는 임신·출산기의 초기경험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의 정도와 방향 및 임신·출산기 초기경험 변인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간(Q-set 상관계수)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I-3-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이분의 명목형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한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 여부' 변인과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계획한 임신 여부' 변인은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두 변수 간 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표 VI-3-4>와 같다. 이에 따르면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 여부'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계획임신 여부',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 여부'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여부'와 '출산 직후 기분', '계획임신 여부'와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과 '출산 직후 기분', '자연분만'과 '출산 직후 접촉여부', 그리고 '출산 직후 접촉여부'와 '출산 직후 기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들 중에서는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 여부'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계획임신 여부' 간에 상관계수가 .81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두 변수에 의해 구분된 집단은 매우 비슷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t-검증 시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계획한 임신여부' 변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임신을 알았을 때의 기분'은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 여부'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계획임신 여부' 모두와 부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을 알았을 때의 기분'이 '매우 기쁨=1', '다소 기쁨=2', '기쁜 마음과 난감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이 엇갈렸음=3', '다소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4',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5'로 코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나타내므로, 계획임신일수록 임신을 알았을 때 긍정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 여부'와 '출산 직후 기분'도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직후 기분'도 '임신을 알았을 때의 기분'과 같은 방식으로 코딩이 되었으므로, 이 결과는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일수록 출산 직후 긍정적인 기분을 가짐을 의미한다.

〈표 VI-3-4〉 초기경험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1.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여부	1							
2. 계획임신 여부	.81**	1						
3. 임신을 알았을 때의 기분	-.57**	-.54**	1					
4. 자연분만여부	.10	.09	-.04	1				
5. 출산 직후 접촉여부	-.02	.03	-.05	-.49**	1			
6. 출산 직후 기분	-.14*	-.08	.39*	.13	-.20**	1		
7. 모유수유 여부	-.04	-.04	-.00	-.06	.04	-.13	1	
8. Q-set 상관계수	.05	.06	-.10	-.11	.00	-.28**	.07	1

주: 1. 어머니가 계획한 임신 여부, 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계획임신 여부, 3. 임신을 알았을 때의 기분, 4. 자연분만여부, 5. 출산 직후 접촉여부, 6. 출산 직후 기분, 7. 모유수유여부, 8. Q-set 상관계수(애착 안정성)
 * $p < .05$. ** $p < .01$.

‘자연분만 여부’와 ‘출산 직후 접촉여부’간에도 부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상분만=1’, ‘계획된 제왕절개=2’,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3’으로 코딩이 되었으므로, 이 결과는 자연분만을 할 경우 출산 직후에 아기를 안아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출산 직후 접촉여부’와 ‘출산 직후 기분’은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기를 출산한 직후 아기를 접촉할수록 산모의 출산 직후 기분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 중 ‘자연분만 여부’와 ‘모유수유 여부’는 어떤 변인과도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초기경험 중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Q-set 상관계수)’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인은 ‘출산 직후 기분’이었다. 즉, 산모들이 출산 직후에 긍정적인 기분을 갖을수록 영아가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다. 임신·출산기 초기 경험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심층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계획임신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자연분만을 한 집단과 제왕절개를 한 집단, 출산 직후 아기를 안아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등에 따라 두 집

단 간의 애착점수의 평균 비교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교 가능한 두 집단 간 영아기 아동의 애착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응답빈도가 극히 낮아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변인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만을 제시하였다.

1) 계획임신 여부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임신기의 초기 경험으로써 임신을 계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생후 17개월에 측정된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VI-3-5>에 따르면 심층조사 대상자 중, 계획임신이 아닌 집단의 Q-set 상관계수 평균 점수는 .38이며,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계획하여 임신한 집단의 Q-set 상관계수 평균은 .42로 계획임신 집단의 애착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계획임신 여부에 따른 집단별 Q-set 상관계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IV-3-5 참조). 그러므로 계획임신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영아기 아동의 애착 평균 점수에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계획임신 여부에 따라서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차이가 없었다.

<표 VI-3-5> 계획임신 여부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계획임신 아님	34	.38	.19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계획임신임	170	.42	.22
<i>t</i>		-.83	

2)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임신부의 기분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점수는 <표 VI-3-6>과 같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 중, 매우 기뻐함과 다소 기뻐함을 '기뻐함'으로, 기쁜 마음과 난감하고 불행한 느낌이 교차함을 '양가감정'으로, 다소 불행하다고 느껴거나 난감하였음을 '불행했음'으로 구분하여 각 기분 상태에 따른 애착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VI-3-6>에서 보듯이, 불행했음에 응답한 빈도가 극히 낮으므로 통계적 차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임신 사실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낀 임신부 집단이 기쁨을 느낀 임신부 집단보다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약간 높음을 보여주었다.

<표 VI-3-6>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기쁨	179	.41	.22
양가감정	23	.46	.13
불행했음	2	.24	.24

3) 분만방법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출산기에 겪게 되는 최초의 경험으로써, 분만방법(자연분만 대 제왕절개 분만)이 다른 집단 간에 생후 17개월에 보이는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VI-3-7>에 따르면 심층조사 대상자 중 자연분만을 한 집단의 Q-set 상관계수 평균 점수는 .43이며, 제왕절개 분만을 한 집단의 Q-set 상관계수 평균은 .39로 자연분만을 한 집단에서 영아기 아동의 애착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분만방법이 다른 집단별 Q-set 상관계수(애착점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3-7 참조). 즉, 자연분만을 한 집단과 제왕절개 분만을 한 집단의 영아기 아동의 애착 평균 점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분만방법에 따라서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I-3-7> 분만방법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자연분만	117	.43	.19
제왕절개분만	87	.39	.24
t		1.50	

4) 출산 직후 아기와의 접촉 여부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출산 직후에 아기를 안아보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심층조사 대상자를 구분하여, 아

기와 접촉한 집단과 접촉하지 않은 집단 간에 생후 17개월에 측정된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VI-3-8>에 따르면, 심층조사 대상자 중 출산 직후에 아기를 안아본 집단의 Q-set 상관계수 평균 점수는 .41이며, 출산 직후 아기를 안아보지 못한 집단의 Q-set 상관계수 평균은 .41로 그 차이는 없었다.

출산 직후 아기와의 접촉 여부에 따른 Q-set 상관계수(애착점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VI-3-8 참조). 그러므로 출산 직후 아기를 안아봤는지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영아기 아동의 애착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출산 직후 아기와의 접촉 여부에 따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I-3-8> 출산 직후 아기와의 접촉 여부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출산 직후 안아봄	150	.41	.21
출산 직후 안아보지 못함	54	.41	.21
<i>t</i>		-0.05	

5) 출산 직후 산모의 기분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출산 직후 산모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점수는 <표 VI-3-9>와 같다.

출산 직후 산모의 기분 중 매우 기뻐움과 다소 기뻐움을 '기뻐움'으로, 기쁜 마음과 난감하고 불행한 느낌이 교차함을 '양가감정'으로 구분하여 각 기분 상태에 따른 애착점수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출산의 기쁨을 느낀 산모 집단의 영아가 양가감정을 느낀 산모 집단의 영아보다 애착 안정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출산 직후 매우 기뻐거나 다소 기뻐던 어머니의 영아들은 출산 직후 기쁜 마음과 난감하고 불행한 느낌이 교차한 어머니의 아기들보다 영아기에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였다.

〈표 VI-3-9〉 출산 직후 산모의 기분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기뻐움	193	.43	.20
양가감정	11	.13	.28
<i>t</i>		10.57**	

***p*<.01.

6) 모유수유여부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인생초기의 경험 중, 생후 4개월에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생후 17개월에 보이는 아동의 애착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VI-3-10〉에 따르면, 심층조사 대상자 중 출산 후 4개월 현재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던 집단의 Q-set 상관계수 평균 점수는 .42이며, 모유수유를 안하고 있던 집단의 Q-set 상관계수 평균은 .39로, 모유수유를 하고 있던 집단에서 생후 17개월에 측정된 영아기 아동의 애착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생후 4개월 시기의 모유수유의 여부에 따라 Q-set 상관계수(애착점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3-10 참조). 즉, 출산 후 4개월 현재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다르지 않았다.

〈표 VI-3-10〉 모유수유 여부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모유수유하고 있음	142	.42	.21
모유수유 안함	62	.39	.22
<i>t</i>		-.92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 및 출산 초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임신기 및 출산 초기 경험들 간의 상관을 탐색해 본 결과, 계획된 임신일수록 어머니가 임신을 알았을 때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임신의 계획 여부와는 별도로 수태 시 임신을 원했다고 보고한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임신에 대한 양가감정은 공통되는 감정이라는 외국의 선행연구(Ispa et al., 2007)와는 다른 결과이다.

임신의 계획여부는 어머니들의 출산 직후 기분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된 임신일수록 어머니들이 출산 직후 긍정적인 기분을 느꼈다.

자연분만 여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와 아기의 접촉여부와 상관을 보인 바, 자연분만을 할수록 출산 직후에 아기를 안아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한 경우, 어머니의 신체 상태가 보다 안정적임을 고려하면 아기와의 접촉이 용이할 것이다.

출산 직후 아기의 접촉여부와 출산 직후 어머니의 기분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한 직후 아기를 안아볼수록 어머니의 기분이 긍정적이었다.

출산 직후 어머니의 기분과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임신의 계획여부와 출산 직후 아기와의 접촉여부였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생리적 변화 및 육아에서 비롯되는 산후 우울이 아동의 양육 환경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중대하므로, 출산 직후 어머니들의 기분과 관계가 있는 변인을 밝힌 것은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사료된다.

출산 직후 어머니의 기분은 생후 17개월에 보이는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관계가 있었다. 출산 직후에 느끼는 어머니들의 기쁨이 클수록 이후 영아가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측정변인의 특성별로 집단 간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차이를 나타낸 유일한 변인은 출산 직후 어머니의 기분이었다. 그 밖의 모든 변인에서 17개월경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직후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17개월경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에 따라서는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출산 직후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는 영아들이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출산 직후에 어머니들이 더욱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분만

의 고통 후에 신생아와의 만남이 출산 직후 대부분의 산모에게 행복한 감정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영아기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신의 자녀인 새 생명과의 만남이 주는 기쁨이 출산 직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육아로 이어져 자녀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육아정책의 개발을 제언한다. 더불어 출산 직후 양가감정을 느끼는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어머니와 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므로, 소수이더라도 이런 산모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임신기 동안 일어나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로 인해 정서 상태의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는 임신부들에게 태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함양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지원 체제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 직후 양가감정을 느낀 집단의 빈도가 극히 낮음에도 출산 직후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17개월경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런 결과는 출산 직후 어머니의 기분이 이후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출산 직후 어머니의 기분과 상관을 보인 변인들 - 임신의 계획여부와 출산 직후 아기와의 접촉여부 -을 넘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출산 직후 어머니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계획임신 여부, 임신을 알았을 때의 임신부의 기분, 분만방법, 출산 직후 아기와의 접촉여부 및 모유수유 여부에 따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다르지 않았다. 측정변인별로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 출산 직후 아기를 안아 보지 못한 경우 및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경우의 어머니들이 가질 수 있는 결핍감이나 죄책감으로부터 어머니들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비계획적인 임신, 자연분만이 아닌 다른 분만방법의 권장, 출산 직후 아기를 안지 않아도 됨, 또는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을 명확하게 밝힌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영아기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과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되는 인생의 초기 경험들을 개별적인 수준에서 규명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복합적이고 중다적인 수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경험들과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인 유대감(bonding) 간의 관계를 탐색하지 못한 것을 또 다른 제한점으로 밝히며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미정·강인설(2008). 애착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95년~2007년. **아동학회지**, 29(5), 165-180.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도세록·이건우(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미혜·김미경(2005). 분만 직후 어머니의 신생아 접촉이 모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5(5), 842-849.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 위원회(2005).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지침서**.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 위원회.
- 이영·박경자·나유미(197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정옥분·정순화·황현주(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한국아동학회와 한솔교육문화연구원(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 Bowlby, J. (1959).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Books.
- Dunn, J., & Richards, M. P. M. (1977). Observations on the developing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baby in the newborn period. In H. R. Schaffer (Ed.), *Studies in parent-infant interaction*. London: Academic Press.
- Ispa, J. M., Sable, M. R., Porter, N., & Csizmadia, A. (2007). Pregnancy acceptance, parenting stress, and toddler attachment in low-income black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1-13.
- Klaus, M. H., & Kennell, J. H. (1976). *Maternal infant bonding: The impact of early separation or loss on family development*. St Louis: C. V. Mosby.
- Klaus, M. H., & Kennell, J. H. (1996). *Bonding: Building the foundations of secure attachment and independence*. Phyllis H. Klaus, Addison-Wesley Pub. Co.

- Mercer, R. T., Ferketich, S. L. (1990). Predictors of family functioning eight month following birth. *Nursing Research*, 39(2), 76-82.
- Miller, W. B., Sable, M. R., Beckmeyer, J. J. (2009). Preconception motivation and pregnancy wantedness: Pathways to toddler attachment secu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1, 1174-1192.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Instrument Document*. <http://secc.rti.org/instdoc.doc>에서 2007년 2월 4일에 인출.
- Peterson, G. H., & Mehl, L. E. (1978). Some determinants of maternal attach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 1168-1173.
- Shaffer, D. R. (2009).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Belmont, CA: Wadsworth.
- Swain, J. E., Tasgin, E, Mayes, L.C., Feldman, R., Constable, R. T., Leckman, J. F. (2008). Cesarean delivery affects maternal brain responses to own baby cr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10), 1042-1052.

3부

부 록

부록 1. 심층조사 대상자 신청화면

부록 2. 부모 안내문(심층조사)

부록 3.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

부록 1. 심층조사 대상자 신청화면


KIOCE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9년도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모집

◆ 신청 방법

위와 조사 장소 및 일시를 보고 해당 패널 본인이 심층조사 받기를 희망하는 지역을 1순위, 2순위로 표시하여 주시고, 아래의 '신청합니다' 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순위

2순위

신청합니다

◆ 연락처

- 심층조사 모집 관련 문의 :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 02-3466-2763
- 심층조사 검사 관련 문의 :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 02-396-7709

* 조사장 변경등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연구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 관교동 176-87 한국패널 건물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 02-396-7706, 7708, 7709, 7710

조사 수행기관 :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1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 02-3466-2763



미디어 리서치 MillwardBrown

육아정책개발센터

부록 2. 부모 안내문(심층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패널의 제1차 심층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아동의 발달 전반과 애착,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면접, 검사, 설문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동 대상의 베일리 발달 검사와 어머니 대상의 애착 검사는 약속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셔서 전문검사자의 협조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사를 받으러 오실 경우, 아이가 긴장하지 않고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일러주시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의 기질(ECBQ) 검사와 어머니 성격(PAI) 검사는, 약속된 검사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 택에서 직접 설문지에 응답해 오셔야합니다.

◎ 설문지 응답 시 유의할 사항으로,

- ▶ 아동의 기질 검사의 경우, 설문지에 설명되어 있는 '해당되지 않음(NA)'과 '전혀 그렇지 않다(1)'의 구분을 숙지하셔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어머니 성격 검사의 경우 4점 척도로 되어있는데, 응답번호가 **【1-2-3-4】**가 아닌 **【0-1-2-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안지에 제시되어 있는 각 척도의 의미를 고려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에 답을 칠하실 때, 해당번호 칸에 정확히 기입하시고 아래에 부착된 복사지에도 함께 표기될 수 있도록 연필이나 펜(사인펜 사용 금지)을 이용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에 부착된 복사지가 밀려 다른 칸에 답이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응답지의 첫 장은 설문이 끝난 뒤에도 제거하지 마시고 그대로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층조사 설문지이다 보니 문항수가 많은 편입니다. 조사 설계상 항목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오니, 기계적으로 읽고 답하시기보다 잘 숙지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빠뜨리는 문항 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설문지에 인적사항 기입이 반복되더라도 모두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심층조사가 완료(12월 초 예정)되고 데이터 검수 과정을 마치는 대로, 심층조사 참여 패널 분들께 검사결과를 통보해드릴 예정입니다.

패널조사를 위해 변함없이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올림

부록 3.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아동패널은 국제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하여 신생아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기초연구입니다.



한국아동패널 2009년도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_ 02-398-7713, 7706, 7709, 7739
FAX_ 02-750-3317
Email_ panel@kccce.or.kr
Homepage_ www.kccce.or.kr/panel



한국 아동 패널 심층조사 보고서

아동명		생년월일		성별		연령	
보호자명		관계		성별		연령	
검사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발달 특성 : Korean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 아동의 애착 행동 : Q-set ▶ 아동의 기질 특성 :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 어머니 성격 유형 :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I 아동의 발달 특성

1. 의뢰사유

2. 배경정보

3. 행동관찰

4. 검사결과

척도	요인	원점수	발달 지수	신뢰구간 (90%)	백분위	범주	발달연령
인지 동작							
행동 평정	주의/각성						
	과제지향성						
	정서조절						
	동작수준						
	기타 총점						

II 아동의 애착 행동 특성

애착이란 친숙한 사람과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로 아동은 태어나서 자신을 돌보는 사람, 특히 어머니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고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즉, 애착은 부모와 자녀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역	하위 영역 특성
순응성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고, 어머니가 제지하거나 야단을 치면 해당 행동을 곧 그만두는 등, 어머니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
안전기지	어머니가 아이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의 기저로 작용함을 일컬으며, 아이에게 어머니의 반응과 표현이 매우 중요하고 신뢰할만한 판단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까다로움 / 예민함	아이가 짜증이 많고 한번 화가 나면 계속해서 운다거나 저항하는 등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신체 접촉의 즐거움	어머니가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을 좋아함을 의미합니다.
감정 공유	아이가 자신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느낌과 행동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검사 결과

애착 점수	순응성	안전기지	까다로움 / 예민함	신체 접촉의 즐거움	감정 공유

2. 결과 해석

III 아동의 기질 행동 특성

기질이란 정서, 활동성 그리고 주의 집중 영역에 있어서 개개인의 반응성과 자기 조절에 영향을 주는 타고난 성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정서 영역, 활동성 영역, 그리고 주의 집중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 조절 능력이나 반응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양육을 받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 + 양육과 후천적인 경험'을 통하여 형성됩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18개의 영역에 있어서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역	기질 특성
활동 수준	운동속도 및 운동 강도의 측면과 같은 (대)근육 활동의 수준을 말합니다.
주의 집중	과제를 할 때 주의를 잘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의 전환	과제를 할 때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밀착성	양육자에게 안길 때, 기분 좋음을 표현하거나 아동이 포근하게 안겨있는 밀착성을 말합니다.
불편감	빛, 움직임, 소리, 촉각 등 감각적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두려움	고통이 예측되거나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걱정과 긴장을 보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분노 좌절	진행 중인 과제나 즐거운 활동을 방해 받거나 차단당했을 때 보이는 부정적 반응을 말합니다.
강한 기쁨	강렬하게 자극이 되는 놀이나 활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정도(ex. 회전목마보다 청룡열차를 더 좋아함)를 말합니다.
억제 통제력	지시에 따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낮은 기쁨	요란한 음악보다 조용한 음악이나 속삭임과 같이 약하고 낮은 강도를 가진 자극을 좋아하고 즐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활동성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정도로, 눈을 많이 깜박이거나 몸을 흔든다거나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지각 민감성	외부자극(촉각, 청각, 시각 등)의 작은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하고 알아차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접근 기대	즐거운 활동(놀이터 가기, 선물 등)을 기다리면서 보이는 흥분과 기대감의 정도로, 자신이 하려는 일에 신이 나서 흥분하는 등에 해당합니다.
슬픔	고통, 실망, 손실이 생겼을 때 기분이 나빠지거나 가라앉는 정도를 말합니다.
부끄러움	낮설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동과 표현을 억제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사회성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타인과 관계 맺기를 하고자 하는 동기 수준으로,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함을 의미합니다.
반응 진정성	울거나 화가 났을 때 평소의 기분상태로 쉽게 회복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충동성	어떤 행동을 하고자 했을 때 행동을 개시하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멈추어 생각할 없이 바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1. 검사 결과



주. 100점 기준으로 표준화된 점수로 평균점수는 50점입니다.

2. 결과 해석

IV 어머니 성격 유형

V 종합 평가

연구보고 2010-09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보고서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63-9 93330

